서울 혜화동 성당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07. 12

문 화 재 청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말은
변치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

목 차

■ 원색화보 ····· 7

Ⅰ 실측조사개요 ····· 21
1. 문화재 현황 ····· 21
2. 기록화 개요 ····· 22

Ⅱ 연혁 ····· 29
1. 건립배경 ····· 31
2. 건물연혁 ····· 34
3. 수리실적 ····· 39

Ⅲ 건축적 특성 ····· 45
1. 주변현황 및 배치분석 ····· 47
2. 공간구성 및 실별 특성 ····· 51
3. 건축양식 및 입면분석 ····· 68
4. 구조적 특성 분석 ····· 81
5. 재료분석 ····· 86
6. 창호 및 가구분석 ····· 94

Ⅳ 종합고찰 ····· 111

Ⅴ 흑백사진 ····· 117

□ 참고문헌 및 부록/초록(국문/영문) ····· 135

□ 실측도면 ····· 151

<표 차례>

표 1 추진일정 ····· 25
표 2 건축 및 수리실적 연표 ····· 44
표 3 실내재료 마감표 ····· 93

<그림차례>

그림 1. 광파측량 모습 ····· 23
그림 2. 광파측량 모습 ····· 23
그림 3. 기록화 사진촬영 모습 ····· 23
그림 4. 기록화 사진촬영 모습 ····· 23
그림 5. 위치도 ····· 47
그림 6. 배치도 ····· 48
그림 7. 백동관 ····· 49
그림 8. 교육관과 분도의 집 ····· 49
그림 9. 사제관과 성모동산 ····· 50
그림 10. 백동관 진입부와 주차장 ····· 50
그림 11. 지상 1층 평면도 ····· 51
그림 12. 정면 원기둥 ····· 52
그림 13. 정면에서 바라본 본체와 종탑 ····· 54
그림 14. 제의실과 성가대실 ····· 54
그림 15. 남측면과 부출입구 ····· 54
그림 16. 성당 평면 분석 ····· 56
그림 17. 전면 홀 ····· 56
그림 18. 제대에서 바라본 회중석 ····· 57
그림 19. 제대전경 ····· 59
그림 20. 파이프 오르간과 성가대실 ····· 59
그림 21. 지상 2층 평면도 ····· 60
그림 22. 2층 회중석 ····· 60
그림 23. 2층 복도 ····· 60
그림 24. 지하 1층 평면도 ····· 61
그림 25. 지하 1층 출입구 ····· 62
그림 26. 유아실 ····· 62
그림 27. 지하층-1층 사이계단 ····· 62
그림 28. 종탑 내부 최상부층 ····· 62
그림 29. 정면 진입계단 ····· 63
그림 30. 정면 부출입구 ····· 63
그림 31. 전면 홀-회중석사이 중앙문 ····· 64
그림 32. 북측 부출입구 ····· 64
그림 33. 지하층 입구홀 ····· 65
그림 34. 남측면 개구부 ····· 65
그림 35. 북측면 개구부 ····· 65
그림 36. 전면 홀 수직채광창 ····· 66
그림 37. 정면 전경 ····· 68
그림 38. 정면 부조벽 세부치수 ····· 70
그림 39. 정면 비례분석(정인하) ····· 71
그림 40. 우측면도 ····· 72
그림 41. 입면비례 ····· 73
그림 42. 우측면 수직창 ····· 74

그림 43. 측면 전면부 재료분리 ····· 75
그림 44. 우측면 부출입구 상세 ····· 76
그림 45. 종탑 개구부 상세 ····· 76
그림 46. 좌측면도 ····· 77
그림 47. 굴뚝상세 ····· 78
그림 48. 제대쪽 좌측면 ····· 79
그림 49. 종단면도 ····· 81
그림 50. 횡단면도 ····· 82
그림 51. 트러스 상세사진 ····· 83
그림 52. 트러스 상세사진 ····· 83
그림 53. 트러스 상세도 ····· 84
그림 54. 지붕 상세 ····· 84
그림 55. 지붕 및 종탑 평면도 ····· 85
그림 56. 그릴 상세 ····· 86
그림 57. 전면 석재 마감부 ····· 87
그림 58. 우측면 부출입구 상세 ····· 88
그림 59. 지붕 마감상세 ····· 89
그림 60. 종탑부근 지붕상세 ····· 89
그림 61. 2층 회중석과 천정틀 전경 ····· 90
그림 62. 모서리부분 천정틀 상세 ····· 90
그림 63. 전면 홀 ····· 91
그림 64. 고해실 전경 ····· 91
그림 65. 지하 1층 홀 전경 ····· 92
그림 66. 2층 회중석 전경 ····· 92
그림 67. 정면 개구부 ····· 94
그림 68. 전면 홀-회중석 사이 양여닫이 문 ····· 95
그림 69. 제의실 출입구 ····· 95
그림 70. 십자가의 수난 유리그림 ····· 97
그림 71. 숨을 거두신 예수 유리그림 ····· 97
그림 72. 천지창조 유리그림 ····· 98
그림 73.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유리그림 ····· 98
그림 74. 성모영보 유리그림 ····· 99
그림 75.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유리그림 ····· 99
그림 76.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 유리그림 ····· 99
그림 77. 성부 유리그림 ····· 99
그림 78. 성자 유리그림 ····· 99
그림 79. 성령 유리그림 ····· 99
그림 80. 성 베네딕트 유리그림 ····· 100
그림 81.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유리그림 ····· 100
그림 82. 성녀 소화테레사 유리그림 ····· 100
그림 83. 구세주 유리그림 ····· 101
그림 84. 성탄 유리그림 ····· 101
그림 85. 잃었던 아들 유리그림 ····· 101
그림 86. 찬미 유리그림 ····· 101
그림 87. 도자벽화, 제대, 십자고상, 감실, 독서대 ····· 102
그림 88. 감실 ····· 103
그림 89. 제대 ····· 104
그림 90. 103위 순교성인화 ····· 104
그림 91. 십자가의 길 ····· 104
그림 92. 세례대 ····· 105

그림 93. 성수반 ····· 105
그림 94. 부활성수대 ····· 107
그림 95. 성모상 ····· 107
그림 96. 로사리오 기도문 ····· 108

서쪽에서 바라본 전경

북쪽에서 바라본 전경

북동쪽에서 바라본 전경

정면

좌측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라…
요한복음 14장 6절
전지는 변하려니와 내말은
변치 아니하리라 루가복음 21장 33절

정면 부조벽

우측면 상세

좌측면 상세

정면 입구 기둥

좌측면 성모상과 로사리오 기도문

성모동산

‘성녀 소화 데레사’ 유리그림

‘성자’ 유리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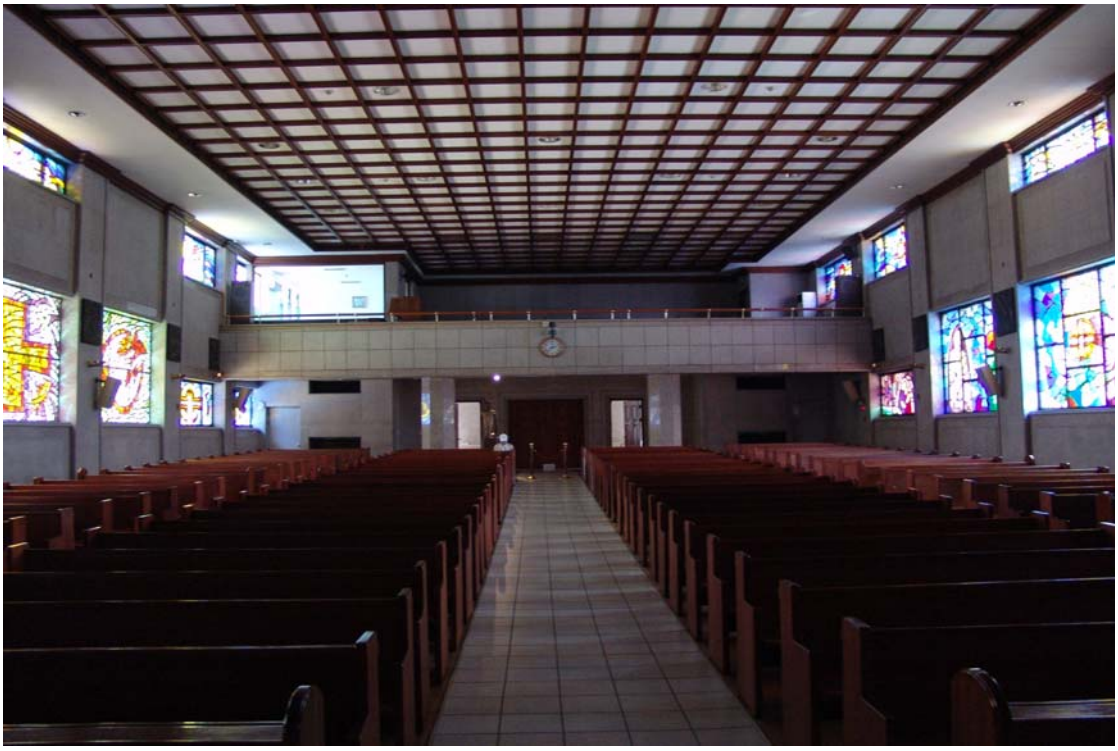
‘성부’ 유리그림

‘성령’ 유리그림

‘성 베네딕토’ 유리그림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 유리그림

성가대석과 파이프 오르간



제대에서 바라본 회중석과 입구

주일 미사 전경

지붕 트러스 상세

지붕 트러스 상세

종탑 상부

종탑 내부 계단

Ⅰ. 실측조사 개요

1. 문화재 현황
2. 기록화 개요

Ⅰ. 실측조사 개요

1. 문화재 현황

· 문화재명 : 천주교 혜화동 성당

· 문화재 구분 : 근대건축문화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8-2

· 소유자 : 천주교 서울 대교구

· 건립연대 : 1960년 5월

· 건축양식 : 양식 건축물

· 건축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위 목조 트러스지붕

· 설계자 : 이희태

· 시공자 : 한국인 시공감독 심오섭

· 건물용도 : 종교시설

· 건축규모 : 대지면적 _ 5,100.50㎡

: 건축면적 _ 107.69㎡

: 연 면 적 _ 3,532.3㎡ (성당부분 2,619.35㎡)

: 층 수 _ 건축물 최고 높이 약 13m, 종탑높이 23.5m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록화 개요

1) 조사 개요

등록문화재는 그 사전적 정의에 있어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근·현대에 형성된 소중한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로 설명된다. 즉 문화재 등록제도는 대부분이 건축물에 한정되고 또한 그 건축물에 지금도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문화재만큼 강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근대건축물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 등록문화제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02년 2월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이 등록문화재 1호로 지정된 이후 2007년 2월 무렵까지 총 320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었다.[1)]

금번 기록화사업의 과업은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근대건축물인 혜화동 성당에 대한 도면작성 및 건물과 관련된 간단한 연혁에 대한 조사이다. 시간적으로는 2007년 6월 25일부터 2007년 12월 25일까지이다.

조사 및 연구는 주로 건축사적인 특징과 관련되어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 졌고, 이후 성당에 대한 연혁과 옛 사진조사, 실측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성당의 도면작성을 위하여 실측조사 방법은 두 가지를 병행하였다. 우선 광파측량을 통해 건축물의 기본적인 배치 및 외부형태와 내부의 주요 기준점을 파악하였으며, 수작업이 가능한 창호와 가구, 외벽의 벽돌 쌓기와

1)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존 문화재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하여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등록 기준은 근대사의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기술 발전이나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 등이다. 지정문화재와 달리 신고를 위주로 하며 지도·조언·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통하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노력을 이끌어 낸다. 또한 외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부 수리를 허용,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세제와 수리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2001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당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7년 2월 기준 총 320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다 .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계단, 난간 등에 대해서는 간단한 스케치 후 7m 철재자를 이용해 직접 확인하면서 실측하였다.

수작업이 가능한 평면, 단면, 입면은 스케일을 적용하여 스케치하고 상세측량을 통해 얻은 치수를 기재하여 정확도 높은 상세도를 작성하였다. 반면 실측이 불가능한 기초부분, 벽체의 구성, 지붕의 상부구조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된 부분만 도면에 작성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았다.

사진촬영은 전문사진가를 통한 흑백 기록용 사진 촬영과 함께 연구진의 디지털 카메라를 통한 상세사진을 기록했다.

그림 1. 광파측량 모습

그림 2. 광파측량 모습

그림 3. 기록화 사진촬영 모습

그림 4. 기록화 사진촬영 모습

2) 기록화 사업의 배경과 목적

2001년 3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등록문화재제도는 우리나라 근대문화유산 보호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보존체계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방법론 또한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방법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작업 중의 하나는 근대건축물의 실측 및 이에 수반되는 기초자료의 정리이다.

이에 본 조사의 목적은 근대문화유산 건축물 기록화(실측, 사진촬영, 설명자료 등)를 통한 기록보존과 함께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나 지진, 천재지변 등 유사시에 대비한 수리 및 복원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과업내용 및 일정

□ 과업의 내용

- 연혁 및 관련 문헌자료 등 자료 수집
- 건축물의 양식 및 특성 등 현황조사
- 건축물 실측 및 도면 작성
- 기록용 사진 등 각종 사진촬영
- 실측조사보고서 작성
- 성과품 제출

□ 추진 일정

- 2007년 6월 26일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연구진 구성 및 업무 분장.
- 2007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대상 건축물 사전조사 및 사진 촬영.
- 2007년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자료수집.
- 2007년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1차 실측조사.

- 2007년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원고작성 완료.
-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원고 수정 및 보완.
-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실측조사.
-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보완조사.
- 2007년 10월 10일부터 33일까지 기록용 사진촬영 실시.
-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최종 보고서 검토.
- 2007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보고서 편집완료.
- 2007년 12월 20일 보고서 인쇄.

표 1. 추진일정

구 분	시 간 계 획							비 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진 구성 / 업무분장								총인원 7名
자료 수집								문헌자료 및 인터뷰
예비 조사								현황 조사
1차 실측조사								광파측량 (7월 26일-28일)
2차 실측조사								미흡부분 보완실측
보완 조사								최종 확인조사
기록용 사진촬영								120㎜ 사진촬영
자료조사용 사진촬영								디지탈 카메라
보완 촬영								디지탈 카메라
도면 작성								AUTO CAD 이용
도면 검토 및 보완								
보고서 작성 및 인쇄								편집 및 인쇄

□ 실행예산 : 31,575,000원

4) 조사관계자

□ 조사 연구진 구성

- 조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사연구실
- 책임연구원 : 홍대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건축학부 교수)
- 보고서작성 : 홍대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건축학부 교수)
  : 최종철 (여주대학 건축과 부교수)
  : 김종기 (한림성심대학 건축과 부교수)
  : 박희용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 실측조사 : 최춘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김종기 (한림성심대학 건축과 부교수)
  : 박희용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 도면작성 : 김종기 (한림성심대학 건축과 부교수)
  : 박희용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 장원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사진촬영 : 유호영 (디자인 공방)

□ 문화재청 관계자

- 유홍준 (문화재청장)
- 이성원 (문화재청차장)
- 엄승용 (문화유산국장)
- 김성범 (근대문화재과장)
- 김지성 (근대문화재과 서기관)
- 최병하 (근대문화재과 전문위원)

□ **협조기관**

- 서울 혜화동 성당 김철호 (바오로) 신부
- 명동성당 장긍선 (예로니모) 신부

Ⅱ. 연 혁

1. 건립배경
2. 건물연혁
3. 수리실적

Ⅱ. 연혁

1. 건립 배경

1) 천주교의 전래와 베네딕토 수도원

1784년 이승훈(베드로)이 북경의 북당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 한국에서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가톨릭은 여러 차례의 박해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박해와 선교의 세월을 거치면서 1831년에 정식으로 조선교구(정식명칭은 조선대목구)[2]가 설립되었으며, 1882년 종현 본당[3](현 명동성당)이 건립된 이후 파리 외방선교회, 베네딕토 수도회 등의 지원을 받아 본당들이 창설되었다.

종현 본당 이후 서울 지역에서 건립된 두 번째의 본당은 약현 본당(현 중림동 성당)이며 혜화동 성당은 세 번째 본당으로 1927년 백동[4] 본당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백동이 처음 거론된 것은 1787년 이승훈이 처남이었던 정약용과 함께 지금의 명륜동 김석태의 집

2) 당시 조선교구(朝鮮敎區)의 정식 명칭은 조선 대목구(朝鮮 大牧區)였다. 대목구(大牧區)라는 이름은 정식으로 교계 제도가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적용하였던 용어로 '교황 대리 감목구(敎皇 代理 監牧區)'를 줄인 말이다.

3) 본당(本堂, Parish)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번역된 용어로 '가톨릭 교회를 이루는 지역적인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회사에서는 '주교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가 그 지역 안에 상주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

4) 백동 본당의 柏洞이라는 이름은 조선 중종 조 이전까지 이곳을 잣나무 골(줄여서 잣 골, 柏洞)로 불렀던 데에서 기인한다. 지금의 혜화동과 동숭동은 윗 잣나무 골(윗잣골, 上柏洞)이었으며 동숭동은 아랫 잣나무 골(아랫잣골, 下柏洞)로 불렀는데 조선 태종 때 박은이 이곳에 잣나무를 많이 심고 생활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중종 때부터는 백동 일대를 혜화문내(惠化門內)로 불렀는데 혜화문은 혜화동에서 삼선교로 넘어가는 고개에 세워진 동소문(東小門)이었던 홍화문(弘化門)의 다른 이름이다. 이후 혜화문내라는 마을 이름은 일제시대였던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없어지고 상백동은 혜화정(惠化町)과 동숭정(東崇町)으로 나뉘었다. 정(町)이라는 명칭이 동(洞)으로 바뀐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부터이다.

에 모여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면서 집회를 갖던 일이 발각된 이른 바 반회사건(泮會事件)을 통해서이다. 물론 이 때 백동 지역에 천주교 복음이 전래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기록상 백동 지역에 천주교 신자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66년 병인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장한여(베드로) 등이 박해를 피해 백동으로 이주하였던 1860년대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제7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블랑주교에 의해 1882년 종현본당이 설립되고 제8대 조선교구장이었던 뮈텔(Mutel)주교에 의해 1891년 약현본당이 설립되었으며, 1917년 제2대 약현 본당 신부였던 비에모(Villemot, 바오로)신부에 의해 동소문밖 공소가 설정되었는데 이 공소에 소속된 신자들과 동소문 안 성 베네딕토 수도원안의 성당에서 주일 미사에 참례하였던 신자들이 백동 본당의 신자들이 되었다.

성 베네딕토 수도회의 한국진출은 1909년 2월 한국 교회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해 7월 백동에 있는 낙산아래 대지를 매입하고 12월에 임시 수도원건물을 완성하였다. 당시 이 수도원은 백동수도원 내지 성 분도 수도원으로 불렸는데 1913년 대수도원으로 승격되었다. 서울에 정착한 베네딕토 수도회는 교육활동을 시작하여 숭공학교와 숭신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본당 사목을 하고자 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당시 서울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베네딕토 수도회 회원들은 서울교구에서 분리된 원산대목구(원산교구)에서의 선교활동을 위해 함경도로 이전하였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수도원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을 토대로 백동 본당이 설립되었는데 이때가 1927년이었다.

2) 혜화동 성당의 설립과 변천

백동 본당의 건립은 서울과 인근 경기도의 사목 구역이 세 부분으로 나

뉘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최초 백동 본당에서 관할하는 사목 구역은 대단히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교세의 확장에 따라 다른 본당들이 설립되면서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소 다섯 번 이상의 관할 구역의 축소와 변경이 있었다.

백동 본당의 초대 주임으로 임명된 신부는 강원도의 용소막 본당에 있던 시잘레(Chizallet, 지사원, 베드로)신부였다. 이 때 백동 본당의 정확한 위치는 원래 성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땅들로서 지금의 가톨릭 대학교 교정과 주변이다. 당시 낙산 아래 혜화동과 동숭동 일대가 모두 수도회 땅이었는데 수도원이 덕원으로 이전하면서 재정곤란으로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용산 신학교 부지와 교환되기도 하였다. 초기 백동 본당에는 혜화동과 명륜동 일대에 거주하였던 150-200명가량의 신자들이 있었으며, 경기도 동부와 남부 일원에 위치한 공소들에 소속된 신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9년 지 베드로 신부는 용산에서 백동으로 이전된 소신학교(지금의 동성 중 고등학교) 교장으로 전임되고 황해도 해주 본당의 서기창(徐起昌, 프란치스코)신부가 부임하였다. 서 프란치스코 신부는 당시 본당으로 사용하였던 수도원 성당이 소신학교 성당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성당을 건립해야했다. 하지만 형편상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수도원 부속 건물이었던 목공소에 종각을 세운 뒤 성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제3대 오기선(吳基先, 요셉)신부 재임시에 기존의 철공소 건물을 개조하여 시설을 완비하고 “혜화 유치원”을 설립하였다. 제4대 생제(Singer, 성재덕 베드로)신부가 부임하여 청년회를 활성하는 등 여러 조직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교우 수의 증대에 따라 1943년에는 제기동 본당을 1945년에는 미아리 본당을 분할하기에 이르렀다.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혜화동 본당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1945년 2월 23일에 인가된 경성천주공교신학교(京城天主公敎神學校, 大神學校)가 혜화동에 자리 잡으면서 혜화동 본당과 소신학교, 대신학교가 서로 이웃

하게 되었다. 9년 동안 혜화동 본당의 주임신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성 베드로 신부는 1948년 프랑스로 귀국하고 혜화동 본당 사목은 메리놀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인수하게 되었다. 제5대 크레이그 후고(Craig Hugh, 기 후고)신부 재임시 여러 곳에 본당들이 설립되면서 혜화동 본당의 관할 구역은 혜화동 일대로 크게 축소되었다. 기 후고신부 이후 도피 파트리치오(Duffy Patrick)신부가 부임한 지 2년 만에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난 이후 현존하는 성당건물이 신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건물연혁

1) 창건과정

현존하는 혜화동 성당의 건립은 전쟁이 끝난 1954년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기 시작하였던 1950년 11월 충주 본당의 정원진(루가)신부가 혜화동 성당의 제7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기본적인 사목활동을 하면서 교세를 이어갔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혜화동 일대로 대거 이주해오면서 새롭게 입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신자수가 3,0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에 따라 40여 평에 불과했던 기존 성당으로는 증가한 신자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 새 성당 건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후 막대한 건축기금을 마련할 수 없어 전전 긍긍하던 중 장면(요한), 박병래(요셉), 장발(루도비코), 김옥윤 등을 중심으로 1954년 3월 새 성당을 짓기 위한 '신축성당 건립 기성회'가 조직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교구장이었던 노기남 주교를 설득하여 대신학교로 올라가는 통행로를 차지하며 대지를 확보하였다. 이후 기성회는 성당 건

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거두는 한편,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하여 1957년 5월 23일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정초식은 1958년 6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이후 성당의 완공과 축성은 1959년 6월에 제8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장금구(요한 크리소스토모)신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1960년 5월 기성회가 조직된 지 6년의 노력 끝에 건축면적 225평, 연면적 545평의 사제관을 포함한 성당이 완공되어 교구장 노기남 주교의 집전으로 축성식이 거행되었다. 성당건립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은 당시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장이었던 장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건축설계는 건축가 이희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당이 완공된 이후 조각가 김세중, 송영수, 최만린 등이 정면에 최후의 심판도를 제작하였으며, 이순석, 장면, 김옥윤, 홍길후, 정원진, 홍길후 등의 기증으로 세례대, 대제대, 영세대, 소제대 등의 성물들이 안치되었다.

2) 이희태와 혜화동성당

1925년에 태어나 1981년에 작고한 건축가 이희태는 1970년대 말에 개소한 엄·이건축의 대표이자, 절두산 성당의 설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식민지를 거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불우한 유년기를 보내고, 한국전쟁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제대로 된 건축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희태는 스스로의 예술적 감각과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건축가의 길을 갔던 사람으로 평가된다. 절두산 성당은 공간사에 의해 주최되는 건축 25년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계에서 널리 인정받은 작품으로서 지금도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우수한 현대건축으로 랭크되고 있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한 현대건축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희태는 김중업, 김수근과 함께 한국의 지역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건축가로 평가된다. 이희태는 생전 수십점의 작품을 남겼지만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종교시설이나 문화시설이다. 혜화동성당, 절두산 성당, 사르트르 수녀원, 청파동 성당, 국립극장, 공주박물관, 경주박물관 등이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들로서 두 부류 중에서는 종교시설의 숫자가 월등하다. 이희태가 종교시설 특히 가톨릭교회 시설들을 담당하게 된 것은 서울미대 학장이었던 장발 교수의 추천에 의해 이루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희태가 장발 교수를 만난 것은 1953년인데 장발 교수가 엄덕문에게 응용미술과 강의를 부탁하자 엄덕문이 이희태를 추천하였다. 강의는 8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장발 교수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게 되었다. 장발은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혜화동 성당에 소속되어있었는데 1954년 혜화동 성당을 새롭게 건립하기 위한 기성회가 만들어지자 이희태를 설계자로 추천하였다. 당시 장발은 김세중, 최만린 등의 서울대 미대 제자들도 포함하여 협동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희태의 건축은 벽화나 조각을 포함하여 종교적인 면이 강조된 종합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장발의 도움으로 이희태는 당시 유행하였던 고딕을 근간으로 하는 절충주의식 성당의 형식을 벗어나 지역적인 정서가 담겨있는 근대건축을 제안할 수 있었다.

혜화동 성당은 전후 상황 속에서 자재 공급이 원활하기 못하고 기금 마련이 어려워 공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면서 건축가의 초기 의도와 달라지기도 했지만, 이희태의 입장에서 장차 작품을 진행하면서 적용하게 될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진 작품이었다. 정인하에 따르면 이희태는 성당 형태를 구성하면서 세 가지의 특징적인 태도를 보였다. 첫째 분리된 종탑이 본체의 좌측에 붙어있으면서 첨탑이 아닌 사각형의 박스 형태로 처리되었으며, 둘째 본체의 비례가 엄격한 사각형 박스를 토대로 형성되었는데 특히 전면은 기하학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성당의 내부기능을 단순화시키고 성당 아래층에 회합실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할애함으로써 종교적인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을 분리하였다.[5] 첫째와 셋째의 특징은 근

5) 정인하 '감각의 깊이 : 이희태 건축론' (도서출판 시공문화사, 서울 2003) p.37

본적으로 근대성에 대한 추구를 토대로 한다.[6] 절충주의식 양식의 성당건축들이 만연하던 시대에 박스와 기능적 명쾌함을 기저로 하는 형태와 공간을 추구하였던 것은 특별하게 근대 건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희태의 입장에서 자신의 예술성에 입각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기둥과 슬래브를 이용한 르 꼬르뷔제의 도미노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구조방식은 건축의 근대성에 대한 천재적인 감각과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혜화동 성당의 정면에 도입된 비례체계는 당시 서울대 미대 응용 미술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탐구하였던 입면구성과 비례에 대한 이론을 실제 작품에 대입한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혜화동 성당은 이희태가 설계한 종교건축 가운데 비례체계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 경우로 간주되고 있다.

이희태는 타계한 뒤 20년이 지난 2,000년에는 가톨릭교회로부터 가톨릭 미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희태가 최초로 설계한 종교건축은 1954년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1959년에 축성된 명수대성당으로 지금은 멸실되었다. 이 건물을 시작으로 혜화동성당, 인천 송림동 성당, 진해성당, 경주성당, 절두산 성당, 청파동 성당, 아현동 성당, 압구정동 성당 등을 설계하였으며 명동 사르트르 수녀회, 계성여고, 전주교구 주교관, 서강대 예수회 신부관 등을 설계하였다. 이희태에게 성당을 비롯한 가톨릭 종교건축들은 건축가로서 본격적으로 발돋움하고 여러 건축적 개념들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들이었다. 특히 멸실된 명수대성당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혜화동 성당은 초기의 충실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건축가의 근대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작품으로 분류된다.

6) 김정신은 혜화동 성당을 건축뿐만 아니라 조각, 회화, 스테인드글라스 등의 가톨릭 미술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 건물로서 근대 한국 가톨릭건축 미술의 시발점이 된 성당으로 평가한다.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한국 교회사 연구소. 1994) pp.89-90
강지훈은 혜화동성당을 1950년대 말 처음으로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 시도된 근대지향적인 성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지훈 "한국 천주교회 성당건축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47

3) 성미술

혜화동 성당의 다른 특징은 어려운 시기에 건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당 안팎으로 의미 있는 성 미술품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혜화동 성당에 성 미술품들이 설치된 것은 성당 건립이 서울대 미술대학장이었던 장발의 지휘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첫 번째 이유가 있다. 이희태를 설계자로 추천하였던 장발은 자신의 제자들을 대거 동원하여 성당 내 성물들을 제작토록 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다른 성당에서는 보기 드문 예술성이 높은 성 미술품들이 설치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성 미술품은 성당 정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조이다. 이 부조는 애초에 기획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설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서 추가되었다. 이 부조는 1961년 김세중(프란치스코)이 원도를 작성한 뒤 송영수(미카엘), 최만린 등의 협조를 얻어 흙으로 원형을 제작하고, 김세중, 장기은이 직접 화강석으로 제작한 '최후의 심판도'이다. 부조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라"(요한 14.6),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말은 변치 아니하리라"(루가 21.33)는 성서구절이 새겨져 있다. 조각된 그림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4명의 복음사가들이 좌우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 미술품 제작에 참가한 사람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은 김세중으로 알려져 있다. 김세중은 정면의 부조 이외에도 종탑에 부각된 성 베네딕토 주보성인의 입상을 제작하였으며, 제대 뒤 벽면에 달려있는 청동 십자고상도 제작하였다. 청동 십자고상은 1958년에 제작한 것이며 청색 대리석의 제대와 성체 감실 역시 그의 작품들이다.

성당의 왼쪽 벽에 나란히 붙인 '십자가의 길'은 1960년경 독일에서 미술을 전공한 미국인 헨더슨[7]이 장발의 자문을 받아 황동으로 만든 부조 작품이다. 또 세례대는 1958년 이순석(바오로)이 화강석으로 제작한 작품

7) 헨더슨은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 문정관이었던 Gregory Henderson의 부인이다.

이다.

종탑의 청동십자가는 당시 평양교구장 서리였던 캐롤 몬시뉼[8]이 기증한 것으로 성북동 소재 한국 순교 복자회 수사들이 제작한 것이다.

성당내부 우측벽에 걸린 한국순교자 103위 복자성화는 1976년 순교복자들을 한 폭의 그림에 담기로 협의하고 1976년 9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문학진(토마스)교수에게 작업을 의뢰하였다. 김대건(안드레아)신부를 중심으로 103위의 순교복자들이 그려지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성화는 1년여에 걸친 연구와 각계 전문가들의 고증과 자문을 토대로 완성되었는데 가로 4m 세로 3.2m의 유화 작품이다. 성화가 완성되어 축성이 이루어진 기간은 1977년 7월 15일이며, 이후 변색된 부분이 있어 1984년 5월에 손질되었다.

3. 수리실적

제8대 장금구 신부 재임시 성당이 완공된 후 첫 번째 변화는 제9대 주임신부였던 류수철 신부 재임 중에 일어났다. 그 때까지 수녀원 건물은 장금구 신부 때 박병래가 기증한 성당 대지위에 사용료 100만 환을 지불하고 지은 이레나 교우의 가옥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좁고 구조상 문제가 있어 1965년 100만 환을 모금하여 11월 14일 40평 규모의 2층짜리 수녀원 건물을 신축 완공하였다. 마찬가지로 협소하고 불편하였던 사제관도 2층으로 증축하였는데 가건물 형식으로 마감되었다. 1965년에는 유치원과 사무실도 신축되었으며 1967년에는 1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당 사무실과 성물 보급소를 증축하였다.

1970년 제10대 이계중 신부 재임 기간 중 건평 59평의 2층 건물인 강당을 증축하였으며 1971년에는 마당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1972년에는

8) 캐롤(Carroll) 몬시뇰은 메리놀 외방 전교회 소속으로 1981년 미국에서 선종하였다.

성모상이 건립되고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다.

제12대 박희봉 신부가 부임하였던 1975년에는 성당 신축시 무허가로 건립된 낡은 사제관을 철거하고 새 사제관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그해 9월 2일 착공이 이루어져 12월 26일 “순교 복자 79위 시복 50주년 기념 사제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제관이 준공되었는데, 연건평110평이며 타일로 마감된 2층 건물이었다. 사제관은 회의실과 교리 교육실로도 활용되었으며, 겨울철에는 80여명이 참석하는 미사가 봉헌되기도 하였다.

1980년에는 수녀원 신축이 진행되었는데 25년 동안 사용한 기존 수녀원은 오래되어 생활에 큰 불편과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다. 13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이기명 신부는 부임 직후부터 수녀원 신축을 추진하여 10월 26일 기공식을 가져 이듬해(1981년) 3월28일 준공하였다. 건평 62.19평의 3층 건물로 시멘트 벽돌조로 지어졌다. 1981년에는 2층 강당을 보수하고 강당 창을 이중창으로 개수하였으며 3월에는 본당 사무실을 보수하였다. 1982년 1월에는 성당 2층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가대 좌석 공사를 실시하면서 바닥에 모노륨을 깔았다. 4월 21일 성당 왼편에 성모동산을 만들기 시작하여 5월 15일 준공하였다. 1982년에는 서울시 지하철 4호선 공사계획에 따라 성물보급소와 숙직실, 화장실 등이 철거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교육관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9월 26일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교육관이 완공된 것은 1983년 5월 8일이며 연건평 218평 3층 벽돌조 건물로서 본당 사무실, 숙직실, 회의실, 성물보급소, 화장실, 휴게실, 교리실 등이 입주하였다. 1983년 11월에는 성당 전면 창의 유리그림을 완성하였으며 12월에는 성당 2층의 한편을 유아실로 개조하였다.

제14대 이상훈(리노)신부 재임기간인 1987년 10월 7일은 혜화동 본당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로서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성당 냉난방 시설교체공사가 이루어졌다. 공사는 1986년 5월 말에서 6월 중순까지 이어

졌다. 1987년에는 노후되어 비가 새기도 하였던 성당 지붕을 개수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기존의 양철지붕을 구리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서 1987년 6월 26일에 시작하여 8월 말에 완공되었다.

1986년 5월 60주년 기념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 성당내부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는 문제가 검토되어 6월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이름난 일본 예수회 소속의 본(Bonne) 신부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자문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7월에는 독일 카셀지역의 베르너 보쉬(Werner Bosch)사에 의뢰하여 기술자 야코비(Richard Jacoby)씨가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1987년 3월 제작이 끝나 1개월 만에 한국에 도착하여 설치작업이 이루어졌다. 1987년 6월 21일 음색을 내는 스탑 16개 파이프 수 1060개가 넘는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조율까지 완료되어 첫 시연회를 열게 되었다.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당 보수공사는 1989년에 들어와서 다시 구체화되었다. 6월부터 10월까지 천장개축공사가 진행되었고 전등들이 노출형에서 붙박이형으로 교체되면서 모든 조명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목재로 마감되었던 내부벽체 마감이 화강석으로 교체되었으며, 바닥의 모노륨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연마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공사와 함께 지하성당(현 소화성당)을 건립하는 공사가 병행되었다. 지하 성당은 평일 미사 참석자들이 100-200명 정도로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본당을 사용함으로써 냉난방비의 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하 성당은 소규모의 전례행사와 교리 강좌, 연수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지하 성당은 성당과 사제관 사이의 마당을 굴착하여 건립하였는데 명성종합건설에서 8개월 보름간의 공사기간동안 시공하였다. 이외에도 성당 앞 도로확장에 따른 식재 이식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도시 가스 유입공사가 진행되었다.

1989년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성부’, ‘성자’, ‘성령’을 주제로 성당 내부의 우측 벽에만 그려졌던 유리그림을 확대하여 좌측 벽에도 제

작하기로 하고 최초의 제작자였던 이남규 교수에게 의뢰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1991년까지 총 25점의 유리그림이 완성되었는데 주제는 '성베네딕도', '서울 제 44차 세계 성체대회', '성녀 소화데레사', '천지 창조', '성서 말씀내용', '성령과 빛의 찬미 등'이다.

1991년 제15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박순재(라파엘)신부는 부임 즉시 성당 분위기 쇄신을 위해 조경공사를 시작하면서 성모동산의 성모상을 성당 계단의 왼쪽으로 이전하고, 오른 쪽에는 예수상을 안치하였다. 또 도로변 담장 안쪽에 14개의 화강석 조각 작품으로 십자가의 길을 조성하였으며, 사제관 앞마당의 성당 벽에는 자연석으로 화단을 꾸미면서 화강석 조각 작품으로 로사리오의 길을 조성하였다. 십자가의 길과 로사리오의 길을 위한 작품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최봉자 수녀 작품이다.

1989년 말에 완공된 지하 성당은 본래부터 시설이 완전하지가 못하여 누수가 되고 습기가 차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1993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소화 성당'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소화 성당에는 최봉자 수녀가 제작한 브론즈 십자고상과 성체 등이 안치되었으며 대성당에서 사용하였던 권순형의 작품인 감실을 안치하였다.

1993년 3월 27일에는 청동으로 제작된 대형 십자가가 종탑에 설치되었다. 기존의 십자가가 종탑의 규모에 비해 작았기 때문이다. 1994년에는 성당과 유치원 사이의 건물에 대한 증축이 진행되었다. 1970년에 한 번의 증축이 있었지만 안전도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4층 높이로 증축되었다. 1994년 10월 25일 축성식과 동시에 이 강당에는 '백동관'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백동관은 본당의 역사와 교회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신자들의 신앙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1996년에는 1997년에 있을 본당 창설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문화사업, 성당 및 부속 건물의 보수와 유지, 기념행사의 세

부문에 걸쳐 개별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성미술 도록이 발간되었으며, 최종태 서울대 교수에게 의뢰하여 한국인 성모상과 예수상이 성당 앞 계단에 안치되었다. 또한 정문 오른쪽에 성물 보급소를 신축하여 1997년 3월 30일 부활 대축일에 축성식이 이루어졌다. 이 건물에는 '분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나아가 1997년 3월에는 성당 지붕 양쪽 난간에 동판을 입히는 작업이 진행되어 5월 초에 끝났으며, 계단 보수 및 성당 전면의 화강석 부조 조명과 보수공사도 진행되었다. 아울러 제의실 및 제대보수 공사도 이루어졌다. 성당 설계 도면도 새롭게 제작되었는데 그동안에는 1955년 이희태에 의한 설계이후 설계도면이 분실되어 없는 상태였다. 도면제작은 이희태가 대표로 있었던 엄이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되어 1개월간의 측량과 설계 작업 끝에 1996년 6월 17일 완성되었다.

혜화동 성당이 설립된 이후 그동안 진행되었던 건축 및 수리실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기	주임신부	신축 / 개보수 내용	비고
1927. 4.	초대 지사원 베드로	백동(혜화동) 본당 설립	
1929. 9.		구 백동 성당 완공	
1954. 3.	7대 정원진 루가	신축 성당 건립기성회 발족	회장 : 장면 요한
1960. 6.	8대 장금구 크리소스토모	신축성당 완공	
1965. 11.	9대 이창숙 그레고리오	수녀원 신축과 사제관 2층 증축	수녀원 2층 40평
1970. .	10대 이계중 요한	강당증축과 본당 설비공사	강당 2층 59평
1975. 12.	12대 박희봉 이시도르	사제관신축과 시설보완작업	사제관 2층 110평
1981. 3.	13대 이기명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수녀원 신축과 성당보수	3층 61평
1983. 5.		교육관 완공	3층 218평

1986. 6.	14대 이상훈 리노	냉난방시설과 성당지붕개수	
1987. 6		파이프 오르간설치	독일 베르너보쉬사
1989. 11.		성당 내부수리와 지하성당건립	
1993. 5.	15대 박순재 라파엘	지하 성당보수	
1994. 10		강당 증축후 백동관으로 명명	
1995. 8		화장실 전면 보수	
1996. 6	16대 염수의 요셉	성당 설계도면 제작과 지붕동판공사	
1997. 3.		분도의 집 완공	2층 30평
1997. 5.		성당 지붕 동판공사	

표 2. 건축 및 수리실적 연표

Ⅲ. 건축적 특성

1. 주변현황 및 배치분석
2. 공간구성 및 실별특성
3. 건축양식 및 입면분석
4. 구조적 특성 분석
5. 재료 분석
6. 창호 및 가구 분석

Ⅲ. 건축적 특성

1. 주변현황 및 배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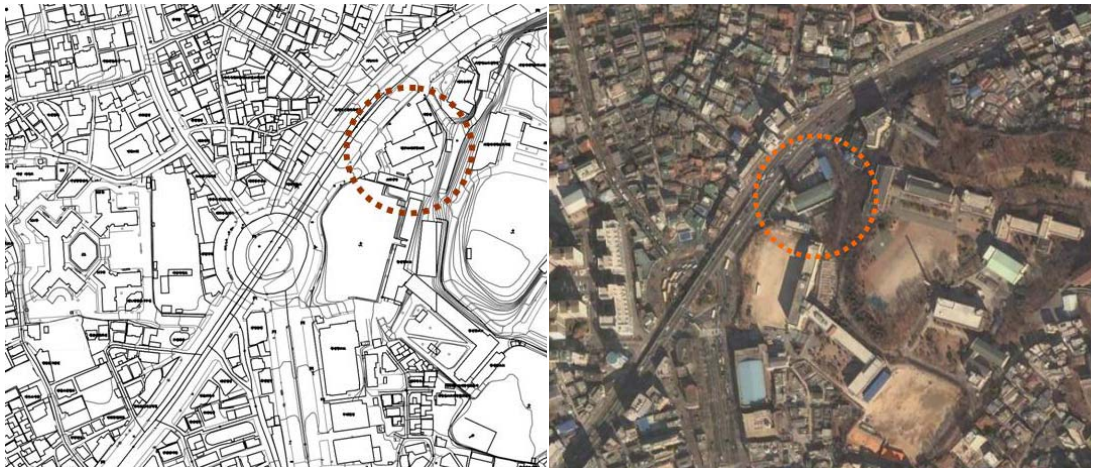


그림 5. 위치도

혜화동 성당이 들어선 서울 종로구 혜화동 58-2번지는 서울 4대문 안에서도 동쪽 끝에 위치한 부지로서 대학로의 북쪽 끝에 위치한 혜화동 로터리에 면하여 동쪽에 위치한다. 대학로에 위치한 혜화역에서는 북쪽으로 500m 가량 이동하면 나오고, 삼선교에 위치한 한성대입구역에서도 500m 가량 이동하면 도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혜화동 성당은 혜화역과 한성대입구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혜화동 성당 남쪽으로 인접하여 옛 소신학교였던 동성고교가 있고 동성고교를 지나면 대학로와 주변지역이 펼쳐진다. 1km 이내에 동숭동과 서울대학교 병원, 문예진흥원, 국제 교육진흥원 등이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성북동 방향으로 혜화초등학교와 서울 과학고, 경진중학교 등과 서울성곽이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삼선동과 동소문동으로 이어지며 북동쪽으로 삼선중학교, 남동쪽으로 한성대학교가 위치한다. 혜화동 성당 부지와 연접한 동쪽에는 대신학교인 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이 있다. 다시 혜화동 로터리의 서쪽은 성균관과 창경궁 등 유적들과 성균관대학교가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명륜동과 원서동, 계동으로 이어진다.(그림 5 위치

도)

혜화동 성당 전면의 도로는 혜화동로터리를 중심으로 동(35m 도로) 서(35m 도로) 남으로 왕복 8차선의 차도가 흐르며 명륜동에서 삼선교 방면으로는 4차선 육교가 이어진다. 로터리에서 성북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가 형성되어있다. 혜화동 성당으로 출입하는 입구는 명륜동에서 혜화동로터리를 돌아 삼선교로 돌아나갈 때나 대학로에서 삼선교 방면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 할 때 모서리 부분에 형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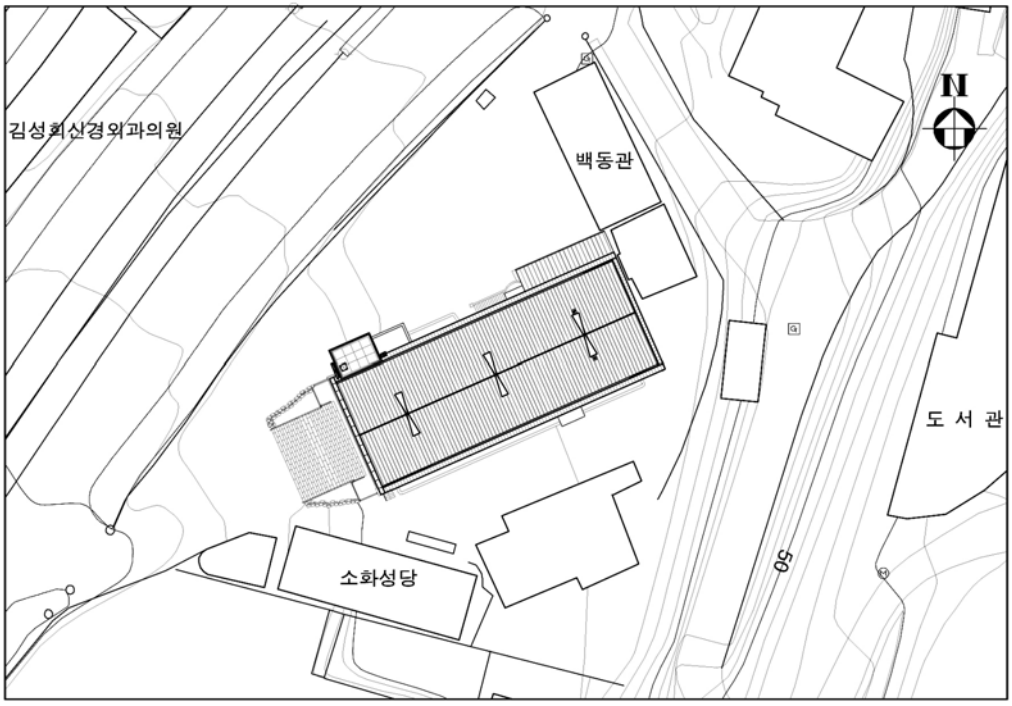


그림 6. 배치도

도로에 면하여 사다리꼴 형상으로 생긴 대지면적은 5100.48㎡으로 종교부지로 용도 전환되어있다. 유치원은 본당과는 별도로 1712.7㎡이다. 사다리꼴 부지의 서남쪽 모서리를 파고 들어간 형상의 입구를 지나면 기록화 대상 건물인 혜화동 본당 건물의 정면이 나타난다. 본당건물은 사다리꼴 부지의 가운데 대각선 방향에 따라 위치하여 외부공간을 3구역으로 나눈다. 입구영역과 주차장과 백동관으로 이어지는 북서 영역, 교육관과 사제관이 위치한 남동 영역은 본당을 중심으로 구분되어있다.(그림 6)

그림 7. 백동관

그림 8. 교육관과 분도의 집

사다리꼴 부지를 가로 질러 가운데에 위치한 본당 건물은 전면 계단을 제외하고 길이 41,500mm(전면 기둥중심에서 배면 벽체의 중심까지), 폭 17,000mm(기둥의 중심 간격)의 직사각형 형상이다. 전면에 형성된 계단은 길이 10,800mm이며 폭은 12,000mm로서 정면 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직사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본당의 좌측에 폭 4,800mm, 폭 4,000mm 높이 24,000mm의 직육면체형상 종탑이 부가되어있으며, 제단이 있는 동북쪽으로 길이 12,400mm 폭 4,000mm의 제의실과 성가대석이 돌출되어있다. 제의실과 성가대석은 1층 높이로서 별도의 경사지붕을 설치하였다. 정면 계단의 좌우에는 예수성심상과 성모상을 중심으로 화단이 조성되어있다. 신축과 두 차례의 증축을 통해 완공된 백동관(그림 7)은 본당의 북동쪽 모서리에 연결되며 본당의 뒤편으로 3층 높이의 수녀원이 건축되어있다.

사다리꼴의 남서쪽 모서리를 통하여 진입할 때 오른 편으로 보이는 건물은 2층 높이의 성물보급소인 '분도의 집'이다. 분도의 집은 2층 높이로 연면적 30평 규모로서 혜화동 성당에서 가장 최근에 건립된(1997년 3월) 건물이다. 분도의 집 뒤편으로 교육관이 위치하며 1983년 5월에 높이 3층, 연면적 218평으로 건축된 콘크리트 양식 건물이다.(그림 8) 교육관 배면에 위치한 사제관은 본당과 평행하게 배치되었으며, 1975년 12월 높

이 2층, 연면적 110평으로 '순교 복자 79위 시복 50주년 기념 사제관'이라고 명명된 콘크리트 양옥 건물이다.(그림 9) 본당과 교육관 사이에는 교육관에서 진입되는 지하성당인 소화성당이 위치한다.

그림 9. 사제관과 성모동산

외부공간은 크게 3곳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 삼각형의 형상으로 구분된다. 출입구 부분은 밑변과 높이가 35m 정도 되는 이등변 삼각형의 형상으로 진입광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위실이 위치한다. 본당의 좌측은 높이 50m 밑변 40m 정도 되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백동관의 진입공간이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림 10) 반면 본당과 사제관 사이의 공간은 폭 15m 정도의 사각형 공간으로 다른 외부공간에 비해 사적인 성격이 강하며 사제관에서 본당으로 직접 이어지는 출입동선이 형성되어있다. 사제관의 북동쪽 모서리에는 성모동산을 설치하여 이곳이 정적이며 사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성격을 강화한다.

그림 10. 백동관 진입부와 주차장

2. 공간구성 및 실별 특성

(1) 전체 평면형식 및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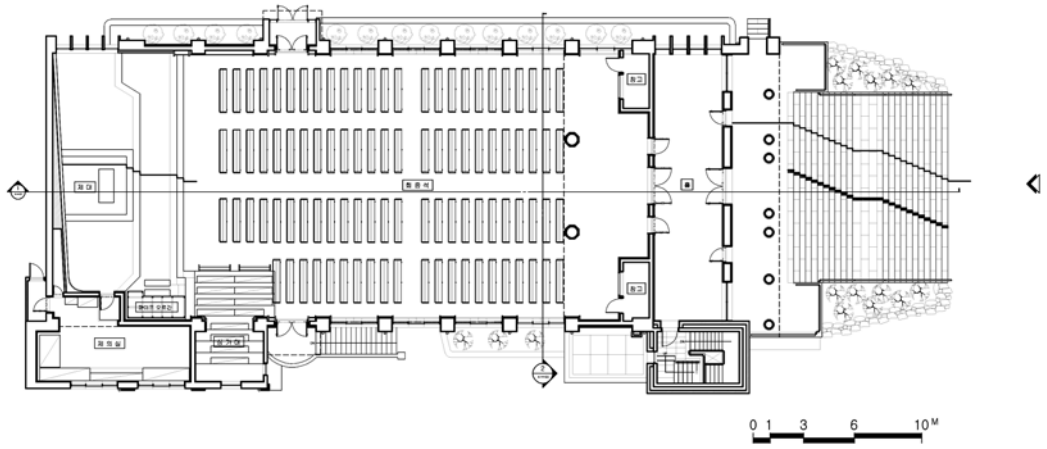


그림 11. 지상 1층 평면도

혜화동 성당의 평면형식은 전문 건축가에 의해 자율적으로 개발된 근대적 형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직육면체의 단순한 입방체 형식을 토대로 전통적인 공간구분과는 다른 통합된 형식의 공간구성체계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1960년 이후 베네딕토 수도회의 알빈 신부[9]를 위시하여 몇몇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 성당 건축에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혜화동 성당은 보수적이었던 가톨릭교회의 성당 역사에서 대단히 선구적인 위상을 차지한다. 이희태의 이러한 평면형식은 근본적으로 바실리카 식 성당 평면형식을 토대로 가장 근대적인 형식으로 분류된다.

9) 알빈(Alwin Schmid)신부는 독일인으로서 베네딕도 수도회의 수도신부이다. 한국에서 체류한 17년(1961년-1978년)동안 건축가이자 화가로 활동하였다. 그가 설계한 79개의 성당은 같은 기간에 지어진 성당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대건축양식에 기반한 성당건축을 주도하였다. 알빈 신부는 독일의 현대 교회 건축가인 루돌프 슈바르츠(Rudolf Schwarz)와 도미니쿠스 뵘(Dominicus Böhm)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다양한 유형들의 성당건축을 학국의 상황에 적용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성당은 성스러운 신의 집이 아니라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 영원함과 무상함이 함께 만나는 곳이자 모든 인간적인 관심사를 위한 고향이었다. 김정신 “우리나라 교회 건축의 현황”(‘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천주교 서울 대교구 혜화동 교회 70주년 기념 ‘성미술 도록‘의 부록편 pp.11-12)

혜화동 성당의 근대성은 입면을 통해 파악되는 형태적 특징 이외에도 평면을 통해 파악되는 공간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파악된다. 기본적으로 내부에 기둥을 설치하여 네이브 공간과 아일공간으로 구획하던 전통적인 공간구획형식이 사라지고 통합된 하나의 공간이 형성되었으며, 천정의 형식도 통일하여 입구에서 제단으로 이어지던 연속적인 흐름이 약화되었다. 근본적으로 직육면체의 공간속에 통합된 회중석과 제대공간의 구분도 약화되었으며, 빛의 형식도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지니게 되었다.

최초 설계 시 본당의 평면형식은 종탑과 제의실의 돌출된 부분을 제외하면 길이 41,500mm(전면 기둥중심에서 배면 벽체의 중심까지), 폭 17,000mm(기둥의 중심 간격)의 직사각형이다. 내부기둥이 없고 지붕의 변화가 없어 굳이 네이브 공간과 아일 공간으로 구획되지 않는다는 것만 제외하면 장방형의 형식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전면 홀과 회중석, 제대로 이어지는 구성방식은 바실리카 식이다. 하지만 외벽 중심선에 맞추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하고 상부에 목재 트러스 지붕틀을 얹어 긴 스팬의 공간을 중간 지지대 없이 구현한 것이나, 기둥 사이를 조적 벽체로 처리하고 유리그림이 들어가는 수평적인 창문을 설치한 형식은 전형적인 근대건축형식이다.(그림 11)

건물전체를 지지하는 구조체는 외벽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제대의 뒤편인 동쪽벽은 이중벽 형식으로 벽체가 기둥역할을 하도록 옹벽으로 처리되었으며 입구에 해당하는 서쪽에는 원기둥을 세워 정면의 의미를 강조하였다.(그림 12) 남쪽과 북쪽의 외벽에는 정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기

그림 12. 정면 원기둥

둥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는데, 두 개의 벽기둥을 포함하여 모두 22개가 있으며 기둥 간격은 3,700mm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져 있다. 부분적으로 기둥 간격의 변화는 동쪽과 서쪽 외벽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다. 제대가 설치된 동쪽 끝부분의 기둥간격(동쪽부터 1열 기둥과 2열 사이)은 4,600mm이며 다음 칸(2열 기둥과 3열 기둥 사이)이 4,000mm이다. 또 나르텍스의 폭을 정하는 기둥 간격(10열 기둥과 11열 기둥 사이)도 4,800mm로 변화를 주었는데 이것은 회중석으로 이어지는 전실공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채 조정된 것이다.

원래는 성가대 석이었던 회중석을 포함한 2층은 기둥열 9열에서 시작되어 12열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11열로 마무리 된 1층에 비해 외부로 돌출된 것이다. 2층의 돌출은 1층에서 출입문으로 이어지는 전면에 자연스럽게 캐노피가 생성되는 결과가 초래하며 입면상 입구에 깊이감을 부여하고 출입구 상부에 돌출된 별도의 면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돌출된 2층 슬래브는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7개의 원형기둥(지름 600mm)과 오른 쪽에 1개의 큰 각기둥(1,400mm×1,000mm)에 의해 지지되는 데 1층의 끝인 11열에서 원기둥의 중심을 연결하는 12열까지는 2,200mm 간격이 있다.

직사각형의 기본 틀을 토대로 종탑과 제의실은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북쪽 외벽에 연결되어 독립된 형상으로 돌출되어있다. 종탑의 평면적 크기는 길이 4,800mm, 폭 4,000mm로 동서로 긴 직사각형이며, 제의실도 동서로 긴 직사각형으로서 성가대석이 증축되면서 길이가 확장되어 길이 12,300mm, 폭 4,000mm의 크기가 되었다. 평면상으로 돌출된 종탑과 제의실 공간은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형태적으로 본당과 다른 높이를 가짐으로써 독립된 형상으로 보인다.(그림 13) 종탑은 22,800mm의 높이로 본당의 외부 높이인 11,400mm의 두 배로 본당에서 분리된 형상이다. 성가대석을 포함한 제의실의 돌출된 부분은 8,600 mm 높이로 본당의 북쪽에 본당보다 낮고 긴 모습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그림 14)

남쪽 외벽에도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곳은 사제관에서 본당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처리하는 부출입구 부분이다. 서쪽에서 이어지는 주 출입구 이외에 부출입구는 남쪽 외벽과 북쪽 외벽에 한 곳씩 형성되어있다. 증축된 형식으로 판단할 때 부출입구들은 기둥 열 4열과 5열 사이에 형성되었으며 별도의 방풍실 없이 홑 문으로 설치되었다. 하지만 남쪽의 부출입구는 사제관과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길이 3,000mm 폭 1,200mm 규모의 방풍실이 증축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종탑과 제의실 외 또 하나의 돌출부가 만들어졌다.(그림 15)

그림 13. 정면에서 바라본 본체와 종탑

그림 14. 제의실과 성가대실

그림 15. 남측면과 부출입구

혜화동 성당의 평면을 통해 논의되는 또 하나의 원리는 비례체계이다. 혜화동 성당은 서울대 미대 응용 미술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입면구성과 비례에 대한 이론에 심취하였던 건축가 이희태에게 이론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희태의 건축론을 서술한 정인하에 따르면 이희태의 비례개념은 비례를 건물 입면의 장식적인 개념으로만 파악하였던 알베르티 류의 비례개념과 비례를 평면에 집중시켰던 팔라디오의 비례개념을 넘나들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반면 비례개념을 구조체계와 연계시켜 건물 전체를 만들어내는 작동 시스템으로 승화시킨 르 꼬르뷔제의 비례개념과는 구분하고 있다.[10] 실제 문화시설이나 종교시설을 통해 구현된 이희태의 비례체계는 구조체계와는 큰 상관이 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조롭고 건물 기능에 따라 다른 비례체계를 적용하였다. 정인하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 문화시설에서 평면의 비례가 중시된 반면, 종교시설에 적용된 비례체계는 대부분 입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혜화동성당에 대한 분석도 입면 특히 정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평면 전체의 길이와 기둥간격의 조절상태를 감안한다면, 혜화동 성당의 경우는 평면과 입면 모두를 통해 이희태가 선호하였던 정사각형 비례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1]

1층 전체 길이 41,500mm와 17,000mm의 직사각형 형상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정사각형에서 출발하여 부속실들을 부가시킴으로써 형성되었다. 기둥 중심간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기둥 열 10열과 11열 사이의 전면 홀 공간을 제외하면 성당의 길이는 34,500mm가 되며 이것은 폭 17,000mm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미세한 차이를 무시한다면 혜화동 성당의 평면은 가로 세로 17,000mm의 두 정사각형이 연속되면서 전체의 윤곽이 결정되었으며 이곳에 전면 홀과 제의실, 종탑 등 부속공간들이 기능에 따라 부가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6)

10) 정인하 ‘ 감각의 깊이 : 이희태 건축론 ’(도서출판 시공문화사, 서울. 2003) p.33

11) 이에 대해 정인하는 ‘이희태는 건축의 입면을 내부공간이나 기능 그리고 구조체계로부터 분리하여 자율적인 속성을 부여하려하였다. 이 경우 건물 외부에 드러나는 중요한 기둥들과 벽체는 비례에 의해 그 위치와 형태가 결정되었고, 또 구조적인 의미보다는 장식적인 속성을 부여하려 했다. 이런 점에서 이희태 건축에서 나타나는 비례개념은 명백히 알베르티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위의 책 pp.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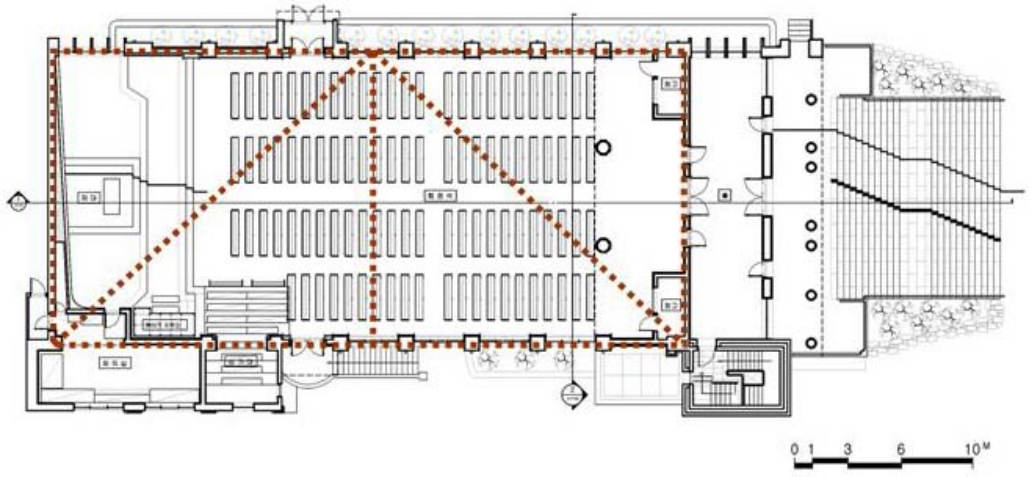


그림 16. 성당 평면 분석

(2) 전체 공간구성 및 실별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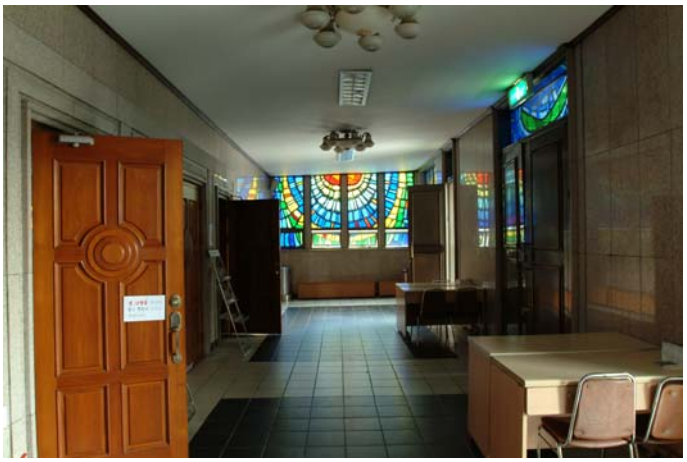


그림 17. 전면 홀

본당의 전체 공간구성은 가톨릭의 전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들과 최소한의 회합실로만 구성되었다. 전체 층수는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지상 1층의 대부분은 회중석이 차지한다. 회중석의 서쪽 즉 본당 출입구인 전면에 현관역할을 하는 홀(그림 17)과 계단실 역할을 하는 종탑이 형성되어있으며, 회중석의 동쪽 끝부분에 제대가 위치하고 제대의 우측에 제의실이 위치한다. 지상 1층과 달리 지상 2층과 지하 1층은 지상 1층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 공간을 단면적으로 나누거나 증설한 후 몇 개의 부속실들을 집어넣었다.

경사를 무시할 때 혜화동 성당 회중석의 전체 공간은 길이 34,500mm 폭 17,000mm 높이 7,150mm의 직육면체 형태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

로 파악된다. 공간상의 변화는 네 개의 원형기둥과 2층 돌출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원형기둥은 회중석이 시작되는 라인의 두 군데와 2층 돌출부가 시작되는 기둥 9열 부분의 두 군데에 설치되었다. 또 성가대석이 있는 곳으로 공간의 돌출이 이루어지며, 성가대석 바로 뒤편의 파이프 오르간이 돌출되면서 직육면체 형상의 공간에 대한 부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회중석

본당 전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회중석은 1,2층에 걸쳐 형성되어있으며 6명이 앉을 수 있는 장의자들이 배치되었다. 성가대석과 설비실이 일부 돌출된 것을 제외한다면 1층 회중석의 전체 모습은 직사각형이며 2층 회중석은 홀과 유아실에 의해 일부가 잘려나가 凸 자형식의 공간을 이룬다. 1층 회중석에는 총 95개의 장의자들이 중앙 통로 3군데 좌우 통로 2군데를 두고 배치되었으며, 2층에는 18개의 장의자들이 배치되었다. 제대로 향하는 통로와 직각방향으로도 통로들이 만들어져 있으며 회중석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가운데에 형성되었다. 2층 회중석에도 제대를 향하는 방향으로 5개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으나 직각방향 통로는 앞부분에만 형성되었다. 1,2층 회중석의 장의자들이 최대로 활용된다면 총 680여명이 동시에 앉아 미사를 참례할 수 있다.(그림 18)

그림 18. 제대에서 바라본 회중석

제대를 제외한 1층 회중석은 기둥 열 3열에서 시작되어 10열에 끝나며 전체 길이는 25.9m 이다. 길이에 폭 17m를 곱하면 회중석의 전체 면적은 440.30㎡에

이른다. 회중석은 제대를 향해 앉아 일정한 가시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바닥면이 약한 경사상태를 이룬다. 단면을 통해 볼 때 회중석은 폭 방향에서의 경사는 없으나 길이 방향에서의 경사는 입구부분과 제대부분을 제외하고 전면에 걸쳐 형성되었다. 입구에서 제단 쪽으로 내리막 경사를 이루고 있다가 제대가 있는 부분에서 다시 올라간다. 기둥 열을 기준으로 볼 때 제대가 있는 1열에서 3열까지는 수평을 이루며 회중석이 시작되는 3열 바로 전면에서 계단을 통해 바닥이 내려가 있다. 3열에서 4열까지는 수평을 이루다가 4열부터 장의자가 설치된 9열까지는 오르막 경사를 이루며 9열에서 입구인 10열까지는 다시 수평상태를 유지한다. 제대에서의 높이와 입구부분에서의 높이는 동일하며, 입구와 제대에서 측정된 높이(바닥에서 반자까지)가 가장 낮고 제대 바로 전면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가 가장 높다. 입구와 제대에서의 반자높이는 6,800mm이며 제대 바로 전면 바닥에서의 반자높이는 7,500mm이다. 따라서 단면의 높이 차이는 700mm이며 경사로의 길이가 24,000mm임을 감안할 때 경사도는 3%정도이며 평균높이는 7,150mm이다.

제대

회중석보다 70cm 가량 높게 형성된 제대공간은 회중석에서 3개의 계단을 통해 올라가며, 중앙에 제단을 두기 위해 다시 2단을 올렸다. 결국 제단이 있는 곳은 회중석보다 1m 가량 높으며 제단 뒷벽으로 십자고상이 달려있다. 제단이 설치된 계단은 기둥 열 2열까지 확장되어있으며, 길이 2m 폭 90cm의 제단은 본당 폭의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되었다. 하지만 제대를 바라보았을 때 좌측으로 제의실과 파이프 오르간이 돌출되어 제단은 좌측으로 치우친 형상이다.

제대의 뒷벽은 1979년 권순형(프란치스코)가 도자기로 제작한 것으로 25cm×25cm 작은 조각들을 붙여 만든 벽화의 명제는 '성사(聖事 Sacrament) 혹은 신비'라는 의미를 지닌다. 제단의 뒤편 좌측에는 감실이

설치되었다.(그림 19)

그림 19. 제대전경

그림 20. 파이프 오르간과 성가대실

제의실과 성가대석

제대공간의 좌측에 형성된 제의실과 성가대석은 길이 12.3m 폭 4m의 직사각형 평면을 기본으로 제대와 회중석으로 일부 돌출된 모습이다. 길이 12.3m 중 제의실은 8.9m 성가대석은 3.4m의 길이로 구분되며 성가대석에서 회중석과 면하는 벽은 개방되어있다. 제의실과 제대사이는 벽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출입문인 여닫이문이 설치되었다. 성가대석은 개방된 방향으로 좌석들이 돌출되어 회중석의 일부를 침범하는 형상이다. 돌출된 제의실에 붙어 길이 3.4m 폭 1.6m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었다.(그림 20)

제의실은 일부가 층 제대공간과 연접한 제의실은 미사가 이루어질 때 신부들이 착용하는 제의들과 미사에 필요한 각종 성물이나 도구들이 보관되고 신부들의 갱의실로 활용되는 필수공간이다. 나아가 성가대석은 미사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간으로 반 개방공간형식으로 회중석의 좌측 앞쪽에 위치한다. 회중석의 뒤편 전면 홀에서 회당으로 진입하면서 볼 때 좌우에 위치한 길이 2.2m 폭 3.4m의 작은 공간들은 에어콘이 설치된 창고공간들이며 출입을 위한 여닫이문들이 하나씩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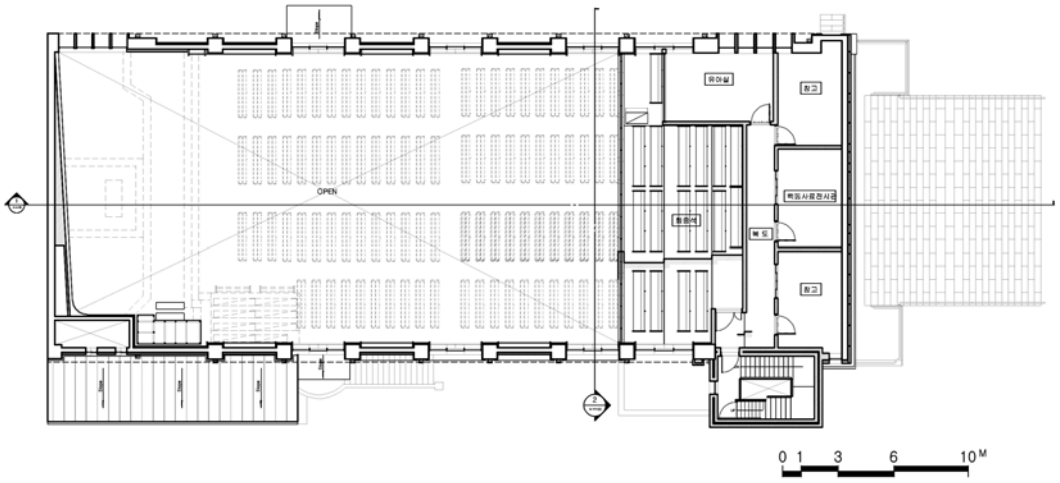


그림 21. 지상 2층 평면도

그림 22. 2층 회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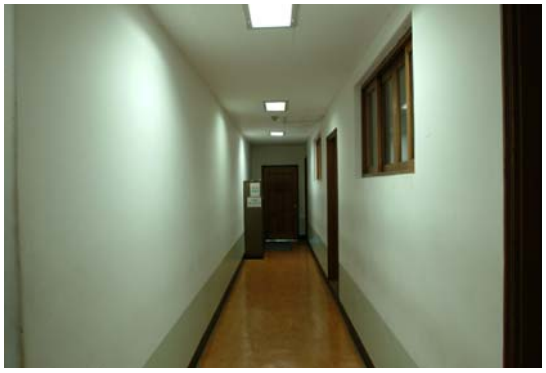


그림 23. 2층 복도

2층은 6,800mm 높이의 1층 공간 뒤편을 나누어(1층높이 3,000mm, 2층 높이 3,400mm, 슬래브 두께 200mm) 캐노피를 만들고 원래는 성가대석이었으나 지금은 회중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2층 회중석 공간은 1층 나르텍스의 상부까지 이어졌으며, 유아실과 회합실로 이어지는 복도와 연속된다. 이후 기능적 수요에 의해 2층 회중석의 남쪽부분에 유아실을 설치하고 바닥에 마루를 깔아 난방설비를 하였다.

1층의 외부로 돌출되어 원형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2층 공간에는 세 개의 작은 방들이 설치되었으며 창고 백동사료전시관 등 부속공간들로 사용되고 있다. 2층 공간은 기둥 열 9열에서 시작되어 12열에서 끝나며 전체

길이는 10,700mm이다.(그림 21,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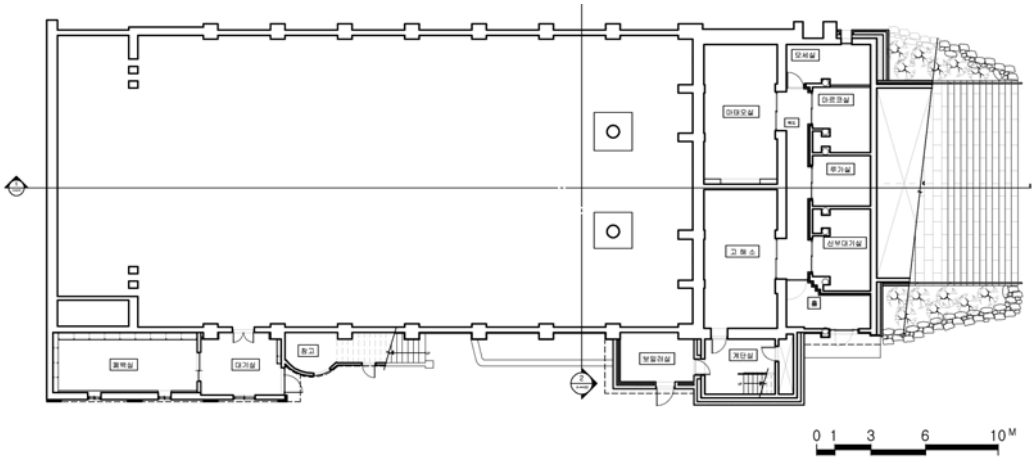


그림 24. 지하 1층 평면도

지하공간(그림 24)이 위치한 곳은 1층 전면 홀의 하부에서 이어져 2층보다 더욱 돌출되었다. 기둥 열 10열에서 시작되어 12열의 외부로 3,800mm 더 돌출되어 건축되었다. 지하층의 전체 길이는 10,800mm로 2층의 길이와 유사하며 공간의 구성도 2층과 유사하게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실들을 위치시켰다. 1층 전면 홀의 하부공간은 크게 두 실로 구분되었으며 종탑의 계단실에서 직접 연결되는 공간은 고해실과 준비실로 활용되고 있다. 고해실의 남쪽으로 이어진 큰 공간은 마태오실로 명명된 회합실이며 복도의 서쪽공간은 작은 회합실 4군데로 나뉘어졌다. 4개의 회합실 중 외부에서 복도로 직접 이어지는 부출입구 근처의 회합실은 신부대기실로 활용된다. 부출입구는 성당 정면에서 계단을 올라가기 전 좌측을 돌아 고해실 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다.(그림 25)

그림 25. 지하 1층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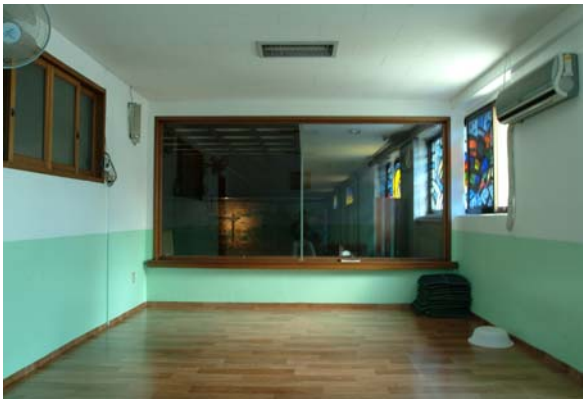


그림 26. 유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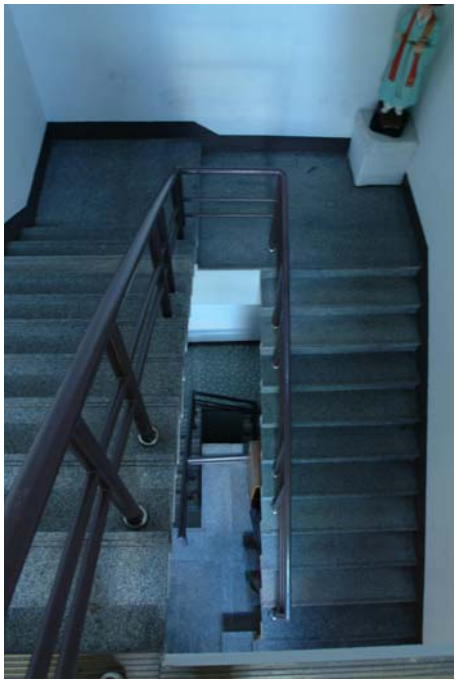


그림 27. 지하층-1층 사이계단

그림 28. 종탑 내부 최상부층

2층 공간에는 회중석의 일부와 유아들과 유아들의 보호자들이 미사 중 사용할 수 있는 유아실이 위치하며(그림 26), 소그룹 단위의 회합이 가능한 회합실들이 설치되었다. 지하층도 회합실들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

나 고해실이 설치되어 미사와 관련된 성사가 집행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종탑의 하부는 계단실로 대용되며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은 타일로 마감되었다. 반면 2층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나무 계단이 설치되었으며 최상부 종이 설치된 부분까지 이어져 있다.(그림 27 ,28)

(3) 동선체계

3개 층에 분산된 실들은 용도에 따라 미사를 위한 주 동선과 분리된 별도의 동선이 설정되었다. 1층 공간에는 미사를 위한 원칙적인 동선들만 형성되었다. 서쪽 정면 계단을 통해 올라온 주 동선은 전면 홀을 통해 회중석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그림 29, 30)

그림 29. 정면 진입계단

그림 30. 정면 부출입구

1층 회중석으로의 출입은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전면 홀을 통해 신자들이 이용하는 정면의 출입구와 북쪽에 형성된 계단을 통해 성가대석 옆으로 이어지는 부출입구, 북쪽의 부출입구와 대칭되는 남쪽에 형성된 부출입구가 그것이다. 정면 출입구는 2중 문 형식이며, 출입문들 사이에 형성된 전면 홀 공간은 신자들의 현관이자 미사 준비 실임과 동시에 방풍실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입문은 모두 8개로서 전면 홀의 좌우 벽면에 중앙 양 여닫이문(그림 31)을 중심으로 한쪽 여닫이문

그림 31. 전면 홀-회중석사이 중앙문

그림 32. 북측 부출입구

들이 좌우로 설치되었다.

북쪽 성가대 실 옆에 형성된 부출입구는 그야말로 신자들의 비상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으로 평소에는 서비스 통로로도 활용된다.(그림 32) 반면 북쪽 부출입구와 대칭되는 곳에 위치하는 남쪽 부출입구는 별도의 방풍실이 증축되어 평소에도 상당량의 동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출입구 외부에 위치한 사제관과 성모동산, 로사리오 기도의 길 등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이 문은 사제들이 미사 때 주로 사용하는 통로이며 성모동산 등에서 개인 기도를 마친 신자들이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통로이다.

2층과 지하층으로의 접근은 주로 종탑 아래에 위치한 돌음 계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는 회중석이 위치한 1층 슬래브가 지면의 경사에 따라 정면 계단아래 지표면에 비해 4m 이상 상승된 지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별도의 출입구가 성당 좌측에 형성되었다.

종탑의 계단실을 통해 진입한 2층은 출입부분에서 회중석과 복도로 나뉘어 진입할 수 있으며, 복도를 따라 가면서 소 회합실로 들어가며 복도의 끝에서 유아실로 진입할 수 있다. 지하층의 경우 종탑의 계단을 타고 이어지는 동선은 고해실의 준비공간으로 연결되며, 외부에서 이어지는 동선은 복도로 바로 연결된다. 복도를 통해 좌우의 고해실과 회합실로 들어

갈 수 있다.(그림 33)

그림 33. 지하층 입구홀

(4) 개구부와 채광방식

성당 전체를 통틀어 개실들의 성격에 따라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한 경우는 파악되지 않으나, 국부적인 공간효과를 위해 조정된 부분이 나타난다. 물론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는 입면상의 효과를 위해 조정된 부분이 더 크다.

국부적인 공간 효과를 위해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가 조정된 경우는 회중석에서 나타난다.(그림 34, 35) 기둥 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큰 개구부가 설치된 곳은 제대의 남쪽 부분(1열에서 2열 사이)이며, 제대 바로 다음 칸인 2열과 4열 사이에는 아예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물론 2열과 3열 사이에는 상부에 높이가 낮은(700mm) 수평창이 설치되어있으나 바닥에서 60,000mm이상 높이 형성되어 회중석의 채광에는 간접적인 영향만 끼친다. 부출입구가 있는 4열과 5열을 지나 5열에서 8열 사이에는 높이 2,100mm의 높은 창이 설치되었으며 8열에서 10

그림 34. 남측면 개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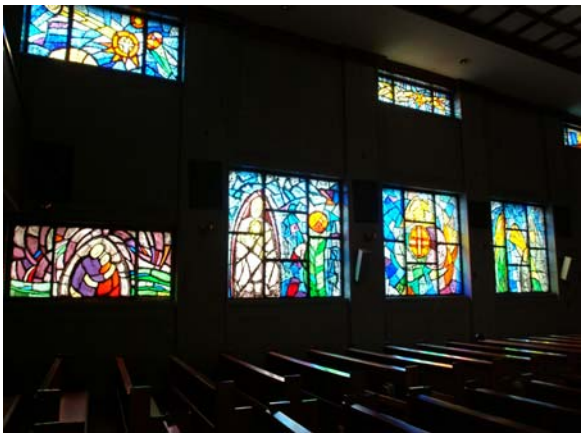


그림 35. 북측면 개구부

열 사이에는 높이 1,200mm의 창이 상하에 걸쳐 설치되어있다. 제대의 남쪽 부분에 설치된 창은 높이 5,800mm로 붙박이 창이며 콘크리트로 수직 차양 장치를 만들어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개구부는 현재 유리그림이 그려져 있어 채광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반투명하고 채색된 빛들이 투영되어 벽으로 막힌 부분과 비교되면서 공간에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를 토대로 파악했을 때 건축가는 제대가 있는 곳에 최대한의 빛을 유입하고자 하였으며, 극적인 효과를 위해 제대 전면부분에는 빛의 유입을 차단하였다. 또 회중석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능한 많은 빛을 유입시켜 입구부분과 구분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전면 홀 공간에는 종탑이 있는 북쪽 벽과 회중석으로 이어지는 동쪽 벽을 제외하고 남, 서쪽 벽면에 개구부가 형성되어있다. 남쪽의 벽면에 형성된 개구부에서 유입되는 채광량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남측 입면에서의 대칭적 효과를 위해 개구부의 형식을 제대의 개구부 형식과 똑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6)

그림 36. 전면 홀 수직채광창

반면에 서쪽 정면에 형성된 개구부들은 출입문의 상부에 작게 설치되어 채광효과는 높지 않다. 따라서 전면 홀 공간의 채광은 대부분 남쪽의 유리그림을 통해 유입되는 빛에 의해 이루어진다.

2층의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1층 공간들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된다. 2층 회중석은 기둥 열 9열과 10열 사이에 형성된 개구부와 북쪽 개구부를 통

해 빛이 유입되며, 전면 홀의 상부에 위치한 유아실은 9열과 10열 기둥사이의 개구부 일부와 1층에서 연속된 수직 창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인다. 기타 회합실들과 복도는 정면 부조벽이 설치되면서 외부로 면한 창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 지하 공간들도 외부에서 이어지는 부출입구가 유리문으로 처리되면서 유입되는 빛 이외에는 별도의 창이 없다.

3. 건축양식 및 입면분석

(1) 건축양식

혜화동 성당의 근대적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입면을 통해 외부로 드러난 형태부분이다. 콘크리트 구조를 토대로 화강석과 적벽돌로 치장한 외부형태는 육면체의 박스 형태와 평활한 면, 지붕의 수평선, 노출된 기둥을 통한 규칙적인 리듬이 근대적 비례와 리듬감을 잘 전달한다. 이것은 김정신이 제시한 근대주의 성당의 특징들 중 기하학적인 형태와 철근 콘크리트구조를 사용한 다양한 형태라는 두 가지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12)]

그림 37. 정면 전경

부분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혜화동 성당의 정면은 높은 계단위에 규칙적으로 기둥이 나열되고 기둥 위에 넓고 평탄한 면이 두드러지며 좌측면에 형성된 육면체의 종탑에 의해 단순하고 명쾌한 모습을 지닌다. (그림 37) 반면 측면은 수평선이 강조된 옥상 하부에 백색 페인트로 마감된 콘크리트 기둥들이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기둥 사이에는 적벽돌 벽과 유리그림이 그려진 개구부들이 부분적으로는 규칙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불규칙하게 설치되어있다. 기하학적인 특징이 두드러져 보이는 입면은 정사각형 비례에 의해 전체 크기가 조절되었다.

12) 김정신, 위의 책 pp.13-14

기록에 따르면 혜화동 성당의 입면은 두 차례의 변형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정인하의 분석에 의하면 1971년 6월 <공간>지에 실린 입면과 1997년 성당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엄이건축에서 제작한 도면은 높이와 비례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다.[13] <공간>지에 실린 입면은 명료한 비례형식을 밝혀주는 반면 엄이건축에서 제작한 도면은 투박한 비례형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애초 이희태가 제시하였던 형식이 공사 도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 변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의 변형은 건물 전체에 대한 개보수과정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면 기둥과 측면에 부분적으로 붙어있는 화강석 마감이 첨가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의 변형은 입면의 비례형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정면의 형식과 비례

정면 상부 부조가 새겨진 평활한 면과 좌측의 기다란 육면체 종탑이 전체 형식을 좌우하는 정면의 양식은 근대건축양식의 표본이라고 할 만하다. 돌출된 2층을 지지하기 위해 전면에 노출된 7개의 원기둥과 기둥 상부에 엔타블레츄어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모울딩으로 말미암아 근대건축적인 느낌이 부분적으로 반감되기는 하나 오히려 기둥은 새로운 근대적 의미를 부여받은 르 꼬르뷔제의 원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인식된다. 나아가 모울딩 부분은 상부의 평탄 면과 하부의 기둥 사이를 중재하는 요소로 엔타블레츄어의 흔적으로 인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모울딩은 넓게 펼쳐진 전면 계단과 함께 성당 본체의 수평성을 강조하여 수직적인 종탑과 대비되는 효과를 강화한다.

본체와 종탑의 대비는 수평과 수직간의 대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종탑의 수직성은 앞으로 돌출된 본체의 수평성과 완전히 분리되어 인식됨으로써 강조되며, 재료의 물성에서도 적색 벽돌과 백색 화강석의 대비가 이

13) 정인하, 위의 책 pp.39-40

루어져 있다. 두 요소의 대비는 부조의 형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전면 화강석 벽에는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기준으로 4명의 복음사가들이 좌우로 대칭적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부조들이 전체에 걸쳐 넓게 새겨져 있는 반면, 종탑의 전면 벽에는 한쪽에 치우쳐 주보성인인 베네딕트 성인의 부조만 새겨져 여백의 미를 강조하였다. 전면 화강석 벽에 새겨진 부조는 김세중(프란치스코), 장기은이 직접 화강석으로 제작한 것으로 부조와 함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라”(요한 14.6),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말은 변치 아니하리라”(루가 21.33)는 성서구절이 새겨져 있다. (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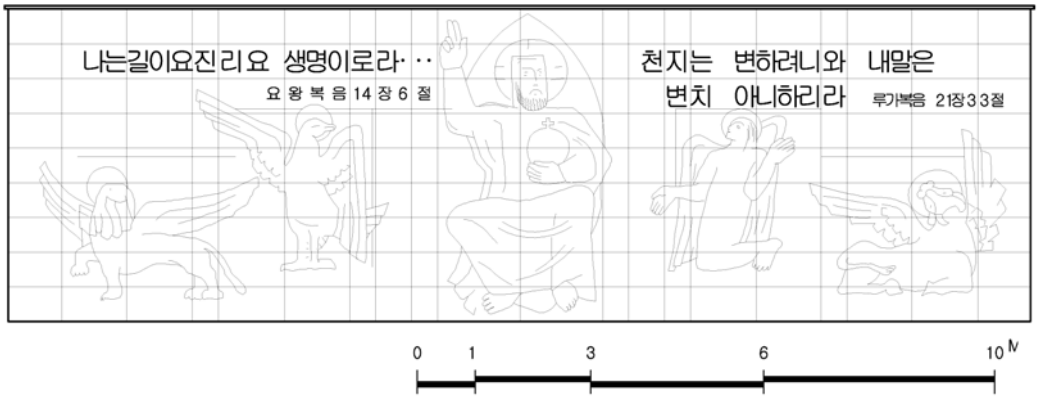


그림 38. 정면 부조벽 세부치수

이연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우측에 무릎을 꿇고 있는 천사 같은 인물이 마태오이며, 그 우측에서 송아지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이다. 좌측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물은 요한이며, 사자의 형상으로 뒤를 보고 있는 인물은 마르코이다. [14]

정면 2층 부분이 돌출됨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성당 전면에 일련의 원기둥들을 노출함으로써 성당으로서의 의미를 획득함과 아울러 진입부의 공간감을 강화한다. 2층 돌출은 1층 진입부의 기둥 뒤편으로 깊은 그림자를 형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진입부의 공간적인 깊이감이 형성된다.

14) 이연호 “혜화동 성당의 조각”(Copyright(C)2002 Nuri Media Co, Ltd) p.142

정인하에 따르면 진입계단을 제외한 정면은 정사각형의 비례체계에 의해 정확하게 조절되어있다. 종탑을 제외한 본체의 정면은 9m ×9m의 정사각형 두 개로 이분 된다. 결과적으로 정면은 세로 1 : 가로 2의 비율을 지니며 두 개의 정사각형이 만나는 지점에 성당 현관의 중심이 위치한다. 그리고 개별 정사각형의 수직적으로 이분한 지점에 2개의 보조문이 위치한다. 나아가 최후의 심판도 부조가 새겨진 화강석 벽은 세로 1 : 가로 3 의 비례를 유지하며, 1층 상부를 가로지르는 수평부재는 정면 전체 높이의 1/4에 해당하는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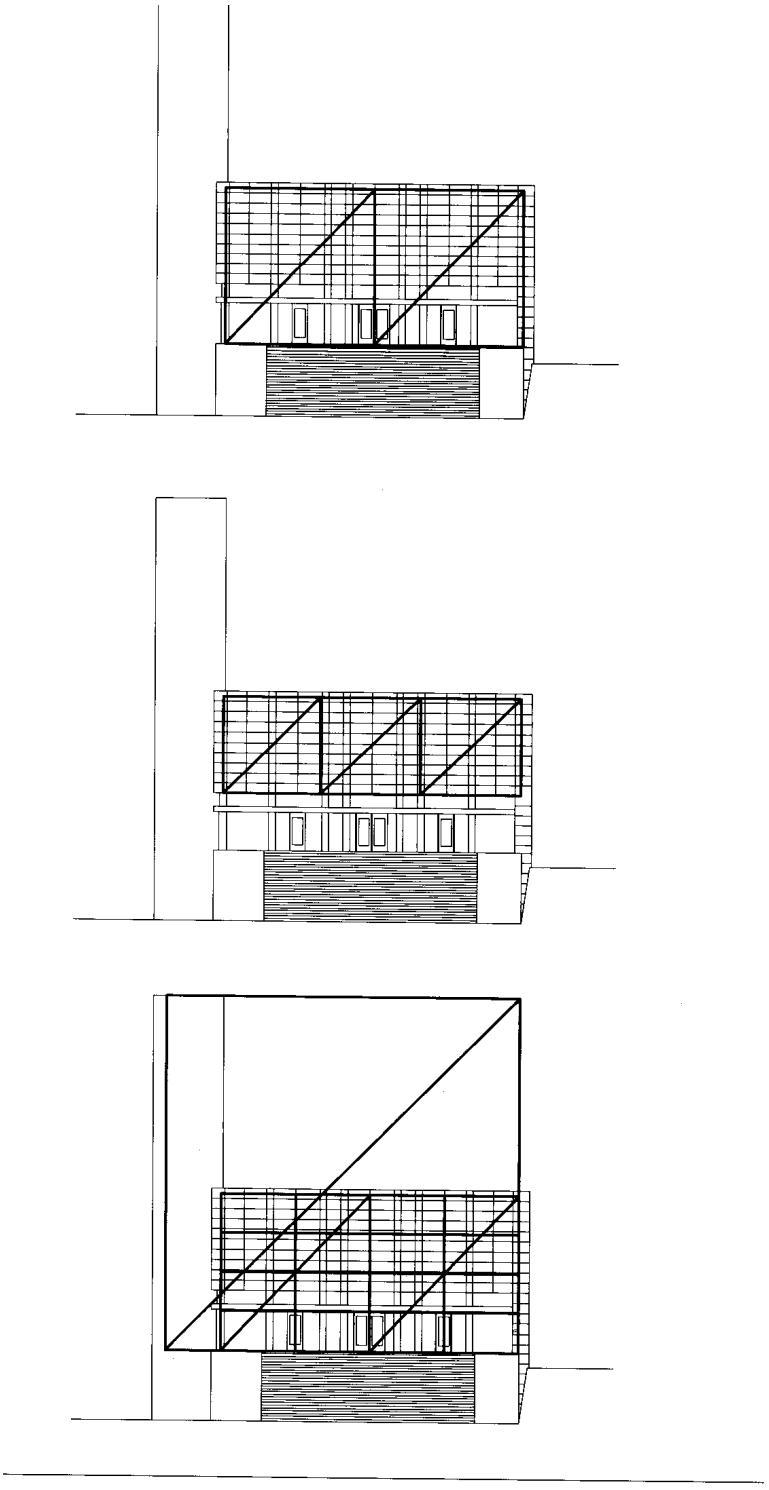


그림 39. 정면 비례분석
(출처 : 정인하 '감각의 깊이'p.41)

위치한다.

종탑의 높이도 정사각형 비례에 의해 조절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종탑을 포함한 건물전체의 폭과 종탑의 높이는 거의 일치한다.[15] (그림 39)

정면에서 나타나는 정사각형 비례는 평면에서 나타나는 비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만하다. 결국 건축가는 정사각형 비례를 토대로 건물 전체의 윤곽을 설정하고 벽과 입면의 세부적인 선의 위치를 정했다.

정사각형 구도를 토대로 면을 분할해 가는 원칙은 혜화동 성당 설계자인 이희태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다. 혜화동 성당과 비슷한 시기에 설계되었던 경주 성당, 진해 성당, 인천 송림동 성당에서도 같은 비례형식들이 적용되어 건축 어휘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3) 측면의 형식과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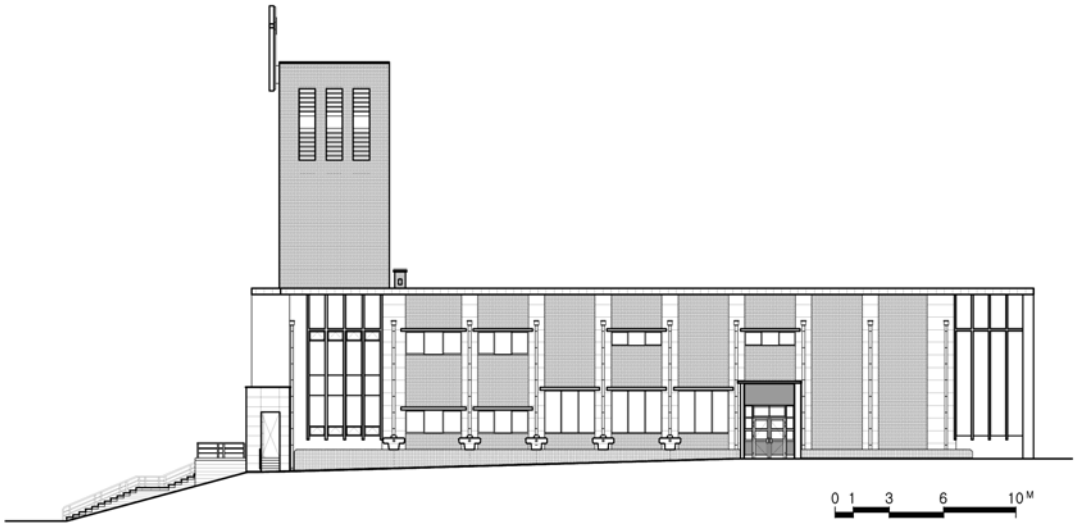


그림 40. 우측면도

정면의 표정이 면과 부조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측면은 수직선과 수평선에 의한 면 분할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탑이나 제의실 등 별도의 부속공간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모습이 외부로 표출된 우측

15) 정인하, 위의 책 pp.40-42

면은 지붕 파라펫 선에 의해 수평이 강조되고 외부로 노출된 기둥에 의해 수평적으로 규칙적인 리듬이 만들어진 것이 두드러진다.(그림 40)

평면과 정면에 적용된 정사각형 비례는 측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가장 높은 지면에서 성당 본체상부까지의 높이는 9.2m이며 본체의 뒤편에 높이 솟아있는 종탑까지의 높이는 19.6m이다. 반면 종탑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성당 본체의 후면까지의 길이는 39.4m로서 종탑까지 높이의 약 두 배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우측면에는 두 개의 정사각형이 형성된다. 또 본체의 입면만을 대상으로 볼 때 돌출된 2층 부분을 제외하면 한 변이 9.2m인 정사각형이 네 개 겹쳐져 형성된 것이며, 창문의 높이도 정사각형 비례에 의해 결정되었다. 즉 상부와 하부에 걸쳐 형성된 창문들은 지면에서 상부창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7.4m이며, 옥상 난간에서 하부창 아래 부분까지의 높이가 7.4m이다. 이 수치는 기둥간격 3.7m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둥 간격이 커진 나르텍스와 제단 부분에 설치된 수직창을 제외한 나머지 창이 설치되는 벽면은 네 개의 작은 정사각형에 의해 세부적인 수치들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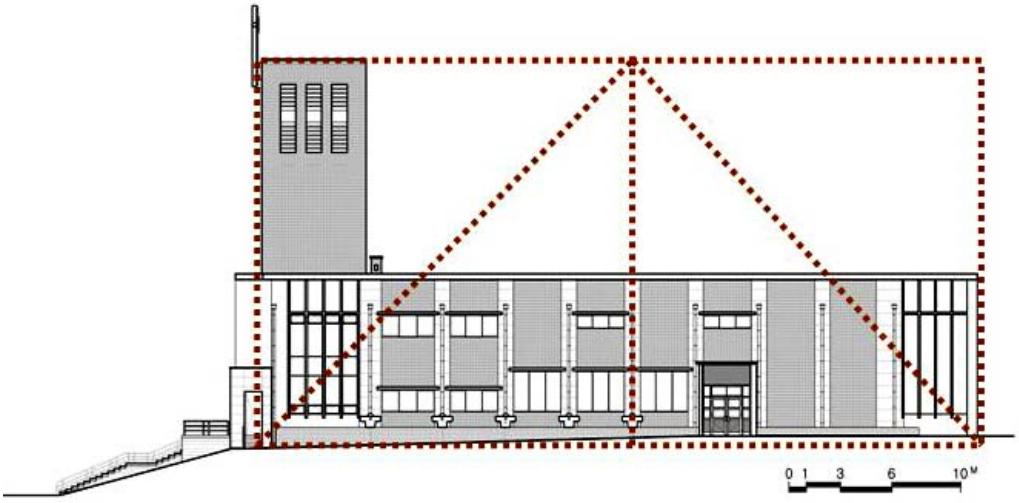


그림 41. 입면비례

지면에서 옥상 난간 상부까지의 높이는 경사지반에 의해 9.2m에서

그림 42. 우측면 수직창

10.6m까지 변화하며 기둥의 높이도 9m에서 10.2m까지 변화한다. 전면 홀과 제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기둥간의 간격은 3.7m이며 기둥의 폭은 0.9m이다. 전면 홀과 제대가 있는 부분의 기둥 간격은 4.8m이며 개구부를 나누는 수직 창살에 의해 수평적으로 4분할되어 있다.(그림 42) 기둥부분은 콘크리트 위에 시멘트 몰탈 뿜칠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백색 수성페인트 칠에 의해 마감되었다. 기둥은 원래는 기둥과 같은 재질이었던 옥상 난간 상부의 수평선과 함께 돌출된 요소로서 입면 전체의 윤곽을 정하고 규칙적인 분할과 리듬을 형성하는 요소였으나, 옥상 난간 상부에 동판이 덧 씌워지고 정면 쪽으로 화강석 면이 형성되었으며 부출입구가 돌출 처리되면서 최초의 구성과 리듬감은 상당부분 상쇄되어있는 상태이다.

기둥과 개구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벽체는 최초 시공되었던 적벽돌 마감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파벽돌을 사용하여 마감한 벽체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성당 전체를 통해 훼손된 부분은 한두 곳에 불과하다. 벽체이나 적벽돌로 마감되지 않는 부분은 2층 돌출부와 돌출부의 아래에 새롭게 형성된 화강석 벽 그리고 전면 홀과 제단 부분의 상부이다. 2층 돌출부는 정면의 넓은 부조면에서 이어지는 면으로 정면과 동일한 화강석판으로 마감되었으며, 원형 기둥이 있는 정면공간으로 측면에서 연결되는 계단을 감싸고 형성된 벽은 2층 돌출부의 벽면과는 다른 크기의 화강석

판으로 마감되었다. (그림 43)

그림 43. 측면 전면부 재료분리

기둥에 의해 3.7m 단위로 나뉜 8개의 벽면은 채광을 위한 개구부와 부출입구가 설치되었다. 우측면에 나타나는 개구부는 4가지 스타일의 창과 하나의 부출입구이다. 네 가지 스타일의 창들은 모두 유리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그 중 전면 홀과 제대 부분에 설치된 연속된 수직 개구부는 가장 큰 개구부이다. 평면의 기둥 열 5열에서 8열 사이에 설치된 창은 두 번째로 큰 창으로서 높이 2.1m 폭 2.9m이다. 이 창들은 회중석의 거의 가운데부분을 채광하며 바닥에서 평균 2m의 높이에 설치되어 회중석에 가장 강한 빛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둥 열 8열에서 10열 사이에는 상부와 하부에 걸쳐 4개의 창이 형성되었다. 기둥 사이 벽 전체에 걸쳐 형성되면서 창의 폭은 앞선 창과 마찬가지로 2.9m이지만 높이는 1.2m로서 앞선 창의 반보다 약간 높다. 상하에 걸쳐 형성된 네 개의 창은 회중석이 시작되는 입구의 공간과 2층 회중석으로 빛을 유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부에 위치한 창의 하단부는 높이 2.1m 창의 하단부 높이와 일치한다. 또 상부에 위치한 창의 상단부는 가장 작은 수평창들의 상단부 높이 및 전면 홀과 제단 부분에 설치된 수직창의 상단부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창들의 상부와 하부는 앞서 설명한 비례에 따라 위치가 조절되었다.

규모가 가장 작은 창인 높이 70cm의 세 창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기둥 칸을 한 칸씩 걸러 설치되었다. 기둥 열 2열과 3열 사이, 4열과

5열 사이, 6열과 7열 사이에 걸쳐 형성되었다. 높이에 비해 창의 폭은 다른 창들과 마찬가지로 2.9m 이므로 전체 형상은 수평적으로 긴 모습이다. 전통적인 성당 형식과 비교할 때 높은 측창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음 직한 이 창들은 상부 공간에 빛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높이 1.2m의 창들 중 상부에 설치된 창들과 연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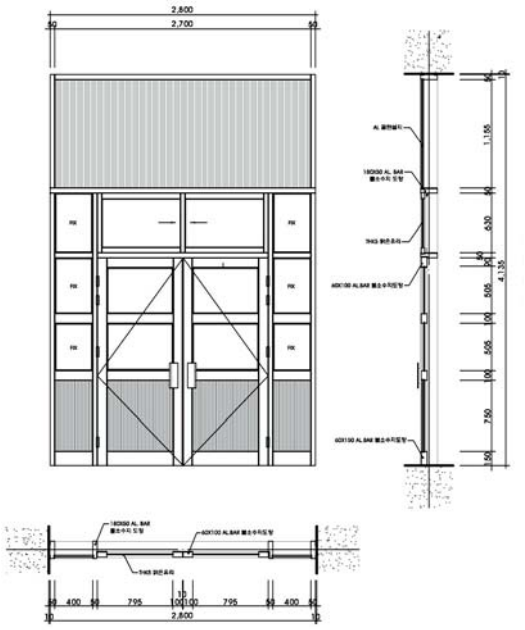


그림 44. 우측면 부출입구 상세

기둥 열 4열과 5열 사이에 위치한 부출입구는 사제관에서 제대로 이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개구부로서 별도의 방풍실을 돌출시켜 증축시켰다. 벽체의 외부 선에서 화단이 형성된 부분까지 1.4m 가량을 돌출시켜 형성된 방풍실은 기둥에 붙여 시멘트 벽돌을 쌓아 측벽을 형성하였으며 지붕에 콘크리트 슬래브를 만들고 전면에 알루미늄 새시를 달아 양 여닫이문을 형성하였다. 양 여닫이문의 좌우에는 좁은 폭의 고정 문이 있으며 문의 상부는 알루미늄 판으로 막았다. 따라서 부출입구의 지붕과 측벽은 몰탈 마감에 백색 페인트칠이 된 모습이며, 전면은 4분된 알루미늄 문이 설치된 모습이다.(그림 44)

그림 45. 종탑 개구부 상세

종탑상부에 형성된 3개의 개구부들은 근본적으로 종탑 내 환기를 위해 만든 것들로서 유리나 다른 재료로 막혀있지 않고 개방된 상태에서 수평 그릴에 의해 수평적으로 구획되었다. 개구부의 크기는 가로 1m 높이 3m 로서 세 개의 정사각형이 중첩된 비례이며, 개구부 사이는 0.5m씩 간격이 형성되어있다. 종탑 개구부의 중심부에는 40cm 두께의 콘크리트 보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보를 중심으로 상하부에 콘크리트 그릴이 경사지게 설치되어있다. (그림 45)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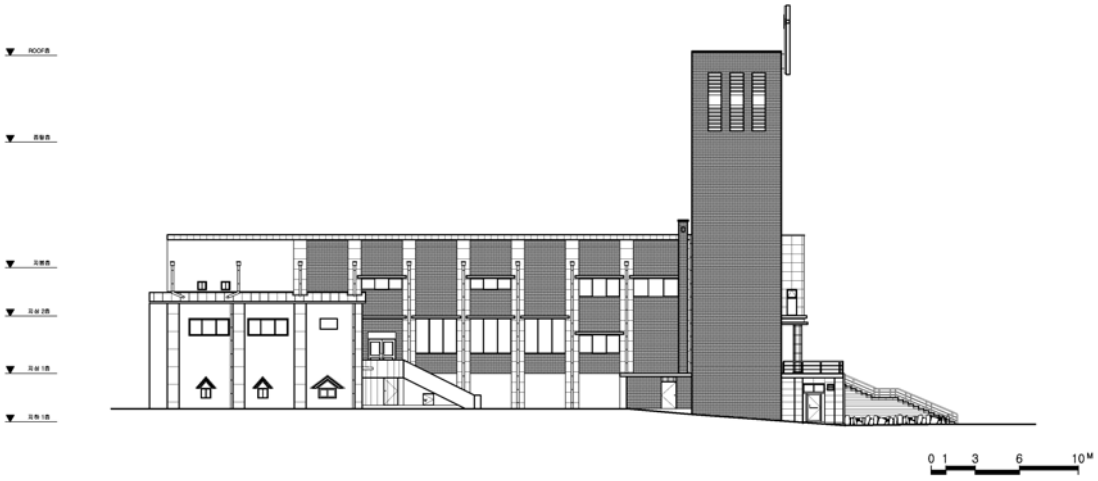


그림 46. 좌측면도

건물의 북쪽 면인 좌측면은 지반의 높이가 낮아 대부분 층고 10.4m 를 유지한다. 따라서 우측면에서 보이는 비례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 제의실과 성가대실의 부속공간이 외부로 돌출되고 종탑도 전체 형상이 나타나면서 본체를 가리기 때문에 우측면에서 나타나는 리듬감도 축소되어있다. (그림 46)

종탑의 전면 2층 돌출된 부분과 진입계단, 지하공간으로의 출입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벽면은 적벽돌로 마감되었으나 증축이나 수리가 이루어지면서 적벽돌과는 다른 재질로 처리된 부분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종탑에 연결된 보일러실은 추후에 증축이 이루어지면서 시멘트 벽돌벽에 모

르터를 바르고 페인트칠을 하고 마감하였다. 보일러실과 같이 지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굴뚝은 적벽돌로 마감되어 전체 벽면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굴뚝의 머리 부분을 장식적으로 처리하여 전체 형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이 형성되었다.(그림 47) 굴뚝은 보일러실에서 시작하여 본체 파라펫 선 위 1m 까지 돌출되었는데 외부로 드러난 전체 높이는 10m가 넘는다.

그림 47. 굴뚝 상세

확장공사를 통해 외부로 돌출된 제의실과 성가대석이 위치한 부속건물은 성당본체의 동쪽 끝에서 부출입구가 있는 기둥 열 4열까지 이어지며 높이는 상부 창보다 40cm 정도 낮은 높이에서 지붕이 형성되었다. 부속실의 외부는 본체의 기둥 열에 맞추어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사이에 시멘트 벽돌로 벽을 쌓은 뒤 몰탈 마감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였다. 기둥은 후일 화강석 판을 붙여 모양을 내었다. 지붕은 기둥의 외부 면보다 10cm 가량 돌출되어 홈통을 달았으며, 지붕널은 동판으로 마감하여 짙은 밤색을 지닌다. 처음부터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출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의 난간 부분은 콘크리트에 몰탈을 마감하고 페인트칠을 하였다.

제의실의 상부에 해당하는 벽면은 시멘트 몰탈 위 페인트로 마감된 모습이 나타난다. 제의실과 성가대석이 증축되면서 본체의 벽면을 기둥까지 포함하여 해체하고 다시금 벽을 쌓은 모습이 나타난다. 기둥 열 2열은 보이지 않으며, 1열과 3열 기둥은 다른 기둥과 마찬가지로 노출되어있다.(그림 48)

좌측면에 형성된 개구부들 중 본체에 형성된 것들은 우측면의 개구부들과 대칭을 이룬다. 다만 전면 홀이 위치한 곳에는 종탑으로 인하여 수직

그림 48. 제대쪽 좌측면

창이 없어졌으며, 제대부분도 제의실과 성가대석이 돌출되면서 수직창이 없어졌다. 따라서 좌측면에 형성된 개구부들은 높이 2.1m 폭 2.9m의 큰 창 세 개와 높이 1.2m 폭 2.9m의 중간 규모의 창 네 개, 그리고 높이 0.7m 폭 2.9m의 수평창 두 개가 우측면과 대칭된 위치에 형성되어있으며, 성가대석 바로 옆 부출입구도 우측면의 부출입구와 같은 크기로 대칭적인 위치에 설치되었다. 다만 좌측면 부출입구는 방풍실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고 상부 캐노피만 돌출되어있다.

돌출된 제의실 볼륨에 형성된 개구부는 상부에 셋, 하부에 셋이 있다. 지붕의 하단에 거의 붙어있는 상부의 창문은 가로 2.7m 높이 1m 크기의 3분된 미서기 창이 둘 있으며, 가로 1.4m 높이 1m의 붙박이창이 오른 편에 형성되었다. 세 창 사이에는 외부로 돌출된 기둥들이 놓여있다. 상부의 창들 위에는 콘크리트 인방들이 창의 가로길이만큼 설치되었다. 하부에 형성된 창들은 상부 창들의 아래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삼각형 모양의 인방들이 창 위에 설치되었다.

좌측면에서 돌출된 또 하나의 요소인 보일러실에도 개구부가 형성되었다. 보일러실로의 출입구와 출입구 상부에 형성된 채광창으로서 출입구는 철제 방화문이며 채광창은 간단한 알루미늄 새시로 만들어진 것이다. 철제 방화문의 크기는 90cm×210cm이며 채광창은 90cm×30cm 이다. 또한 종탑 상부의 개구부는 우측면의 개구부들과 동일하며 위치도 대칭을 이룬다.

좌측면에서 종탑의 우측 즉 성당 전면의 형상은 우측면에 비해 복잡한 모습을 지닌다. 외부의 중앙계단과 본체 2층의 돌출된 부분 그리고 원형

기둥이 나타나며 지하로 들어가는 개구부를 포함한 지하층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전면중앙계단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만들어진 수평 난간들이 계단 상부를 장식하며, 돌출된 지하층의 상부 즉 성당내부로 들어가는 진입공간으로 이어진다. 노출된 지하층의 벽면은 화강석으로 마감되었으며, 지하공간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유리문으로 만들어진 부출입구가 형성되었다. 노출된 지하층 위로는 화강석이 덧 씌어진 원형기둥과 돌출된 2층 부분이 나타나며, 2층 돌출부분에는 알루미늄 새시에 유리가 끼워진 창이 설치되었다. 창의 크기는 1m×3m이며 상하로 나뉘어 창의 상단부는 프로젝트 창이 설치되고 하단부에는 붙박이창으로 마무리 되었다.

4. 구조적 특성 분석

건축구조형식 개관

혜화동성당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를 토대로 목조지붕트러스를 올린 형식이다. 성당 바닥에서 지붕 층 하단까지의 높이는 7.2m이며 전면부에 기둥을 설치하고 2층 회중석과 회합실 등을 형성하였다. 전면부에 별도로 설치된 기둥은 건물 내부인 기둥 열 10열에 두 개를 설치하고 외부인 12열에 8개를 설치하였다. 별도로 설치된 기둥들은 대부분 원기둥이나 남쪽 외벽을 따라 형성된 기둥은 각기둥형식이다. 지붕의 높이는 트러스의 상부높이에 따라 1.8m에 이른다. (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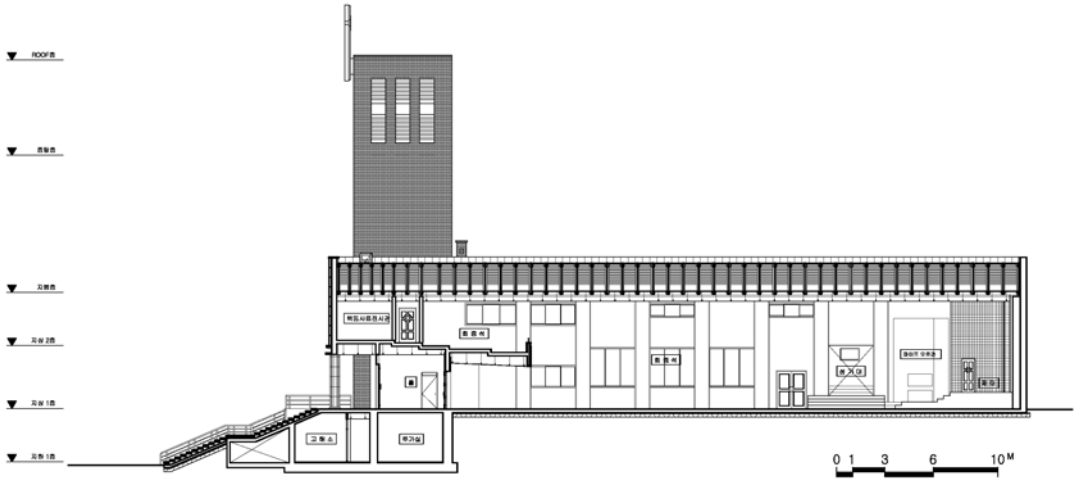


그림 49. 종단면도

성당 전면부에는 지하공간도 형성되었는데 회합실과 고해소, 피트공간으로 할애되었으며 기둥 열 10열에서 시작하여 전면 계단의 중간 계단참까지 이어졌다. 지하층의 층고는 3.3m이다.

성당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엄이건축에서 제작한 도면에 의하면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 줄기초와 독립기초형식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성당 전면 지하층 아래 부분의 기초는 줄기초 형식으로 지하층 복도 양측 벽에

서 연결된 줄기초가 형성되었다. 지하층 복도의 양측 벽은 지상 1층 출입문이 설치된 외벽(기둥 열 11열)과 외부 원기둥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선(기둥 열 12열)과 일치한다. 또 줄기초가 형성된 곳은 2층 회중석을 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기둥 열 9열 부분과 두텁게 옹벽 처리된 제대 뒷벽인 기둥 열 1열 부분이다. 슬래브에서 기초 끝부분까지의 깊이는 지하실 아래 부분의 경우 1m 가량 되며, 가장 깊은 곳은 2층 회중석을 받치는 기둥아래 형성된 줄기초로서 2m에 이른다. 제대 뒷벽에서 연결된 기초는 1.2m 가량 깊이가 형성되었다. 그 외 남북 외벽에 형성된 기둥들은 개별 독립기초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성당 본체는 900mm×900mm의 정사각형 기둥에 의해 획정되며 기둥들은 기초에서 시작되어 돌출된 옥상 난간 상부와 맞닿아있다. 기둥 사이에 형성된 벽은 조적벽으로 별도의 줄기초 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상부는 옥상 난간까지 2.7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하여 테두리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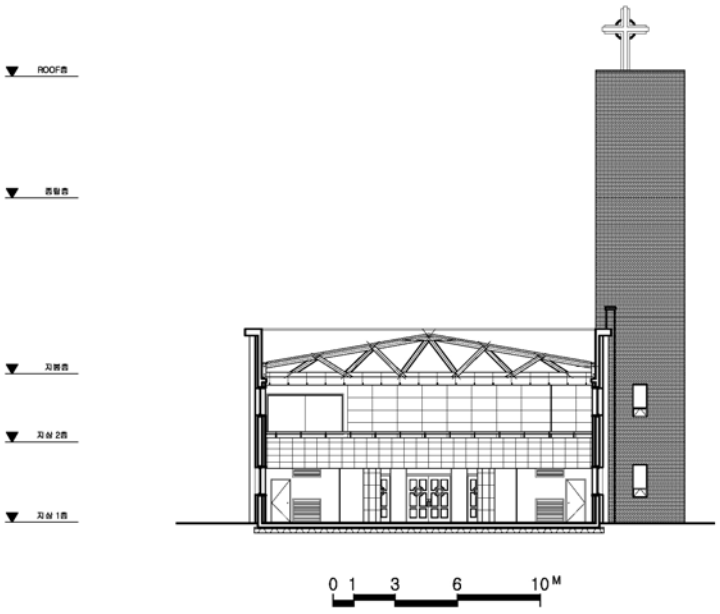


그림 50. 횡단면도

옹벽은 상부에서 ㄱ자로 꺾어져 옥상 난간 상부를 형성한다. 벽의 외부는 치장벽돌로 마감되어 있으며 옥상 난간 상부는 동판으로 감쌌다. 기둥은 콘크리트 벽 위에 몰탈을 바르고 백색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기둥과 벽의 상부에 설치된 옹벽은 트러스를 올리기 위해 하부에 실내

방향으로 돌출부를 형성하였다. 돌출부는 옹벽인 제대 뒷벽과 2층 정면 판벽에는 형성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붕 트러스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돌출부는 기둥이 설치된 장변방향의 벽에만 형성된 것이다. 최후의 심판도가 그려진 2층 정면 판벽은 옹벽으로서 돌출된 2층 캔틸레버의 외벽역할을 하며, 바닥 슬래브 아래로 보의 춤만큼 늘여 뜨려진 옹벽의 전면 하단에 콘크리트 띠를 붙여 모울딩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콘크리트 기둥 위에 테두리보를 걸치고 테두리보 위에 트러스를 올린 지붕 구조는 혜화동 성당 건립당시 기둥 간격 10m 이상의 긴 스팬을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었다. 혜화동 성당의 기둥 간격은 16.5m 로서 별도의 중간 기둥 없이 처리가 어려운 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의 무게를 최소화 시키면서 대 공간을 구성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혜화동 성당의 지붕에 올라간 트러스는 총 47개로서 동일한 간격(9.3m)으로 설치되었으나 2층 회중석 상부에서는 부분적인 변화가 있다.

그림 51. 트러스 상세사진

그림 52. 트러스 상세사진

트러스의 형식은 5각형 형식으로 전체길이는 15,925mm이며 높이는 1,795mm이다. 상부 ㅅ 자 보의 말단부는 절단된 듯이 마무리 되어있으며 짧은 기둥이 형성되었는데 기둥의 높이는 401mm이다. 따라서 상부 경사진 보의 기울기는 1,394 / 7,963으로 17% 정도의 경사를 이룬다. 상부보와 하부 수평 보 사이에는 5개의 ㅅ 자보가 설치되었는데 대부분의 부

재들은 춤이 높은 두 개의 목재를 사용하여 형성하였다. 하지만 두 목재 사이에 끼워 형성한 ㅅ 자보의 일부는 단일 목재만으로 구성되었다. 상부의 경사보와 하부의 수평보 그리고 기둥과 ㅅ 자보의 연결은 부재 사이에 다른 부재를 끼우고 보울트로 고정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51, 52)

트러스 전체를 통틀어 사용된 목재의 단면은 두 종류이다. 하부 수평보는 춤 230mm 너비 50mm의 부재를 사용하였고 상부의 경사보와 기둥, ㅅ 자 보들은 춤 200mm 너비 45mm의 부재를 사용하였다.(그림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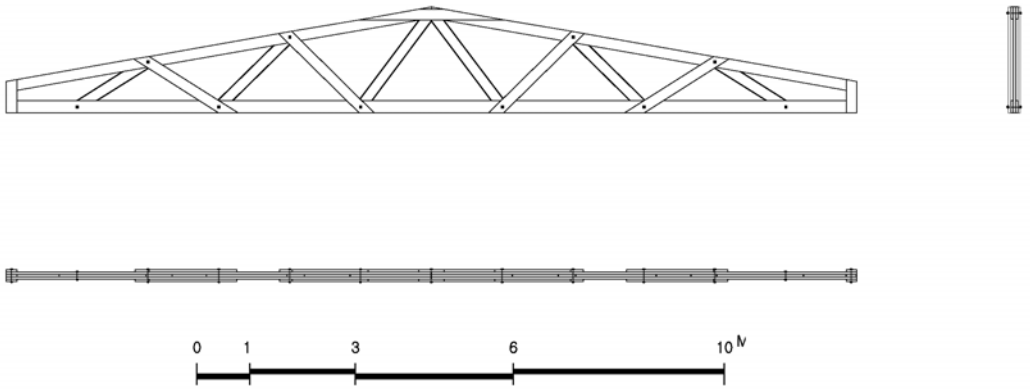


그림 53. 트러스 상세도

트러스의 상부에는 판재를 덮고 방수층을 형성한 뒤 외부에 동판을 얹어 지붕을 마감하였다. 지붕에는 여섯 군데에 채광을 위한 창을 설치하였고 두 군데에 통풍을 위한 무동력 배풍기를 설치하였다.(그림 54)

그림 54. 지붕 상세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를 따지면 24.9m인 종탑은 2층 회중석이 있는 높이에 별도의 출입구가 형성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이 출입구에서부터 본격적인 종탑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꼭대기까지의

높이는 17,740mm이다. 종탑내부는 지붕과 연결되는 높이에 별도의 층이 형성되어있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가 통합된 하나의 공간이며,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두고 돌음 계단이 형성되어있다. 온전한 돌음 계단은 세 번을 돌게 되어있으며, 최상부에는 목재로 틀을 만들고 종을 설치하였다. 최상부 층에는 종탑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으로 사다리가 형성되었다.(그림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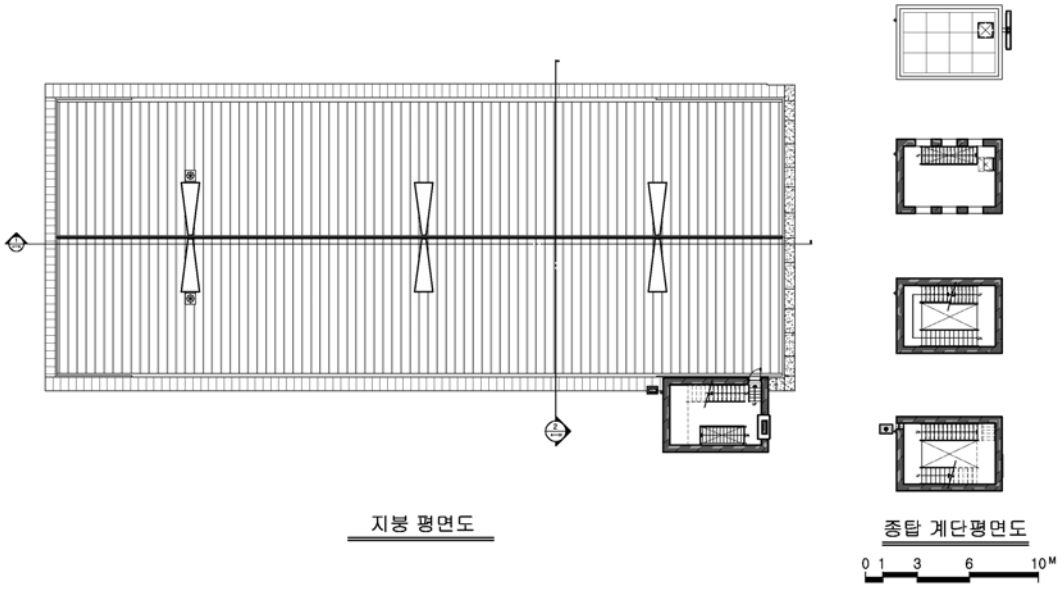


그림 55. 지붕 및 종탑 평면도

2층에서 이어지는 종탑 내부의 계단은 모두 목재계단이며 계단참들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캔틸레버 구조들이다. 계단에는 별도의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오르내리기에 위험하다.

5. 재료 분석

전체 재료개관

혜화동 성당은 전체 재료를 개관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목재 트러스를 올려 골조를 형성하고 적벽돌을 이용하여 외부를 마감하였으며, 내부는 여러 번의 변경을 통해 석재와 목재로 마무리된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건축 재료들을 구조재료와 외부마감재, 인테리어 재료, 창호재료 등으로 나누어 서술할 필요가 있다.

구조체의 재료

기초에서 지붕까지 건물의 골조를 형성하는데 사용된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와 목재이다. 철근 콘크리트는 기초를 비롯한 지하구조물을 조성하고 기둥과 보의 역할을 하는 벽체상부를 형성하는 구조 재료로 활용되었다. 기둥 사이의 벽체의 재료는 피복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철근 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벽돌을 이용하여 조적벽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6. 그릴상세

그 외 철근 콘크리트는 지하층과 1층 바닥 슬래브 및 2층 회중석 슬래브의 구조재료로도 사용되었으며 성당 전면 부조벽의 바탕재료도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구조형식을 취한다. 외부가 적벽돌로 마감된 종탑은 바탕이 철근 콘크리트 옹벽구조이며 성당 정면의 전면계단도 철근 콘

크리트로 조성되었다.

종탑 상부에 위치한 개구부의 창살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상부 테두리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보의 형식으로 개구부의 중간을 가로지르며, 상하로 조성된 그릴도 콘크리트로 제작된 그릴이다.(그림 56)

외부마감재

외부마감재는 부위에 따라 석재나 적벽돌로 마감하거나 콘크리트 위 몰탈을 바르고 페인트칠을 하여 마감하였다. 석재로 마감된 부분은 몇 차례의 개보수공사를 통해 원래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7. 전면 석재 마감부

석재로 마감된 부분은 전면에 집중되어있으며, 2층의 부조벽과 하단 모울딩, 그리고 정면에 노출된 기둥과 측면에서 들어오는 입구부분의 작은 벽, 전면 계단의 마감에도 석재를 사용하였다.(그림 57)

정면 노출 기둥의 아랫부분도 전면계단에서 연계하여 석재로 마감하였다.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화강석이며, 표면처리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기둥을 감싸는 부분이나, 측면에서 들어오는 입구부분의 작은 벽을 덮는 돌, 그리고 부조벽의 하단부 모울딩은 물갈기를 하여 광택이 있으나 부조벽과 모울딩, 계단과 입구의 바닥은 광택이 없고 미끄럽지 않게 하였다. 부조벽의 표면은 버너구이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광택이 없는 부분은 잔다듬으로 처리하였다. 좌측면의 돌출된 성가대석과 제의실의 외벽에

서 돌출된 기둥들도 화강석으로 마감되었다.

측면에서 파악되는 마감 재료들은 입면의 효과를 위해 부위별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리듬을 부여하고 윤곽을 한정시키고자 하였다. 콘크리트 위 몰탈을 바르고 수성 페인트를 칠한 부분은 대부분 돌출된 부위로서 기둥과 창문의 인방부분 그리고 상부 옥상 난간과 벽체의 기단부분이다. 좌측면에서는 돌출된 제의실 및 성가대석의 외벽과 제의실 상부 본체의 외벽부분도 수성페인트로 마감되었는데, 본체의 외벽이 몰탈을 바르고 페인트칠을 한 것이라면 제의실의 외벽은 몰탈 뿜칠 후 페인트를 칠한 것으로 보인다. 좌측면에는 부출입구로 이어지는 계단난간부분도 콘크리트로 처리되었는데 몰탈을 바르고 페인트칠을 하여 마감하였다.

우측면에서 몰탈 위 페인트 마감한 부분은 좌측면과 마찬가지로 돌출된 부분들과 벽체의 기단 부분, 상부 옥상 난간 부분이나 벽체의 기단부분은 식재로 인해 가려져 있다. 우측면은 특별히 돌출된 방이 없어 좌측면의 제의실처럼 벽 전체가 페인트로 처리된 부분은 없으나 전면 홀이 있는 곳과 제대가 있는 곳은 수직창의 유리그림을 형성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 기둥들이 5개씩 돌출되어있으며 유리그림 위 인방부분도 돌출부분으로 몰탈 위 페인트 마감처리 되었다. 돌출된 기둥에는 구리로 제작된 홈통들이 수직으로 하나씩 달려 있다. 사제관과의 연계성이 강조된 부출입구는 추가적으로 방풍실이 형성된 곳으로 전면은 출입문이지만 측면은 시멘트 벽돌을 조적하고 몰탈을 바른 후 페인트로 마감한 부분이며, 상부는

그림 58. 우측면 부출입구 상세

콘크리트 슬래브에 몰탈을 바르고 페인트칠을 하였다.(그림 58)

측면에서 돌출된 부분이외는 벽체와 창호들이며, 벽체는 적벽돌쌓기로 마감되고 창호는 유리그림으로 처리되었다. 벽체의 마감 재료로 활용된 적벽돌은 일종의 파벽돌로서 거친 질감을 갖는다. 건축될 당시 충실한 시공 때문인지 지금까지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부분적으로 몇 군데에서 백화현상과 균열이 발생하였다.

벽체들이 콘크리트와 벽돌로 형성된 부분이라면 지붕은 목재와 동판으로 제작된 부분이다. 지붕의 마감 면은 동판이음으로 마감되었으며 지붕 위로 돌출된 창이 있는 부분도 동판으로 마감되었다. 용마루와 배수로부분도 동판으로 마감하였으며 돌출된 옥상난간 상부를 감싸는 재료로도 활용되었다. 대신 정면 화강석으로 마감된 부조벽의 상부는 두께 60mm의 두겁돌이 얹혀 최종 마감 재료가 되었다. 두겁돌은 정면 옥상 난간 상부와 좌측면에서 종탑 앞부분까지 연장되었다.(그림 59, 60)

그림 59. 지붕 마감상세

그림 60. 종탑부근 지붕상세

내부 실별 마감재

외부와는 다르게 회중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부는 몰탈 마감 후 수성 페인트 칠을 하여 마감하였다. 가장 큰 공간인 회중석은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석재로 벽과 바닥을 마감하였다. 회중석의 벽은 기둥을 포함하

그림 61. 2층 회중석과 천정틀 전경

그림 62. 모서리부분 천정틀 상세

여 창호부분을 제외한 전체에 걸쳐 인조대리석을 붙였다. 인조 대리석은 2층 회중석의 전면 마구리부분까지 적용되었다. 회중석의 바닥에는 화강석이 깔려있으며 물갈기로 표면을 처리하고 상부에 모노륨을 깔았다. 천정에는 별도의 반자가 형성되었는데 목재를 사용하여 격자형 천정틀을 짜고 천정틀 위에 암면흡음텍스를 붙였다. 목재 천정틀의 크기는 850mm × 850mm 정도로서 하부로 노출되어 의장적인 효과를 지닌다. 하지만 양측 통로의 상부와 제대상부에는 천정틀이 노출되지 않아 일반 회중석과는 차별화되어있다.(그림 61, 62)

회중석에서 이어지는 성가대실의 벽은 회중석의 마감형식이 그대로 이어져 인조 대리석을 붙였으나 바닥은 목재로 경사면을 만들고 긴 의자를 설치하였다. 또 미사용구와 제의를 보관하는 제의실은 보다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벽에는 무늬목을 붙이고 바닥은 몰탈 위에 무늬목을 깔았다. 성가대실과 제의실의 천정은 경량 천정틀을 설치하고 암면흡음텍스를 붙였다. 지상 1층 전면 홀도 벽과 바닥이 석재로 마감되었으나 회중석과는 달리 바닥과 마찬가지로 벽도 화강석 물갈기로 처리되었

다. 또 천정은 경량 천정틀을 설치하고 암면흡음텍스를 붙여 평범하게 처리하였다. (그림 63)

그림 63. 전면홀

지하 1층의 경우 홀을 제외한 창고를 포함한 모든 방들이 동일한 마감 재료를 사용하였다. 벽은 콘크리트 바탕에 몰탈을 바르고 수성페인트를 칠해 마감하였으며, 바닥은 테라죠 현장갈기를 하였다. 천정은 노출된 슬래브에 몰탈을 바르고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다만 고해실로 사용되는 곳은 홀의 일부를 막아 만든 곳으로 목재 간막이가 설치되었다. 고해실 간막이로 사용되는 목재들은 원목에 조각을 하여 장식을 하고 니스칠을 하였다.(그림 64)

그림 64. 고해실 전경

지하 1층 홀은 개수공사를 통해 마감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벽은 몰탈 위 수성페인트로 마감된 부분과 치장벽돌이 외부에서 연장되어 처리된 곳이 번갈아 나타난다. 바닥은 화강석 물갈기로 마감되었으며 천정은 경량철골을 이용하여 천정틀을 짜고 베니어합판을 붙인 다음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그림 65)

2층 회중석은 벽을 1층과 동일하게 인조대리석으로 마감하고 바닥을 화강석 물갈기로 처리하였다. 천정은 1층에서 이어진 목재 천정틀에 암면흡음텍스를 설치한 형식이 그대로 연장되었다. 목재 천정틀은 노출되었으

며 벽과 연결된 마구리부분은 베니어합판을 대고 페인트칠을 하였다.(그림 66) 회중석의 일부를 막아 형성한 유아실의 벽은 콘크리트 벽체바탕에 몰탈을 바르고 수성페인트를 칠한 형식이나 바닥은 몰탈 위에 장판지를 깔아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천정은 경량 천정틀에 암면흡음텍스를 붙였다. 바닥에 장판지를 붙인 모습은 2층 복도에서도 발견된다. 2층의 나머지 공간인 창고와 백동사료전시관의 벽과 바닥은 수성페인트 마감과 테라죠 현장깔기로 처리되었다. 천정은 유아실과 동일하게 경량 천정틀에 텍스로 마감되었다.

그림 65. 지하 1층 홀 전경

그림 66. 2층 회중석 전경

전체 실내재료 마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67)

구 분	실 명	벽	바 닥	천 정
지하 1층	마테요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고해소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모세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마르코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루가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신부대기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홀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치장벽돌마감	화강석물갈기	결량철골 천정틀 / 수성페인트 마감
	계단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보일러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창고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대기실 및 폐백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지상 1층	전면홀	화강석물갈기	화강석물갈기	목재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예배실	인조대리석	화강석물갈기	목재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성가대	인조대리석	-	목재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제의실	무늬목	몰탈 위 무늬목 깔기	목재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지상 2층	예배실	인조대리석	화강석깔기	목재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유아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몰탈 위 장판지 마감	목재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창고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
	백동 사료전시관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목재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복도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몰탈 위 장판지 마감	목재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표 3. 실내재료 마감표

6. 창호 및 가구 분석

창호

혜화동성당의 개구부는 각층의 개수를 합쳐 문이 총 36개소에 있으며, 창은 41개소에 설치되었다.

문은 주출입구인 정면에서 전면 홀을 통해 회중석으로 이어지는 곳에 양 여닫이 문 2개를 포함하여 6개소가 집중 배치되었으며, 나머지는 실이 구획된 곳마다 하나 이상 형성되었다. 1층에는 남북 외벽에 형성된 부출입구에 양 여닫이 문 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창고와 제의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그 외 종탑으로 이어지는 개구부가 별도로 형성되었으며, 제의실에서 외부에 형성된 창고로 들어가는 문과 창고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문이 하나 형성되어있다. 전면 홀로 들어가는 3개의 주 출입구 문들은 철재 힌지도어로서 암갈색의 도장이 칠해져 전체적으로 무겁고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문의 높이는 세 곳이 동일하게 2,650mm이며 중앙 문의 폭은 1,065mm × 2이며 양쪽에 형성된 여닫이문 폭은 900mm이다. 이들 문의 상부에는 유리그림이 그려진 창문들이 위치한다.(그림 68)

그림 67. 정면 개구부

전면 홀에서 회중석으로 들어가는 3개소의 문들은 전체 문들 가운데 가장 장식적이다. 목재로 제작된 문들은 3겹 원형의 돌출부를 중심으로 무늬목들이 붙어 있으며 갈색도장이 칠해져 주출입구와 마찬가지로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그림 69) 문의 높이는 2,300mm이며 폭은 중앙 양 여닫이문의 경우 1,100mm × 2로 전체 2,200mm이며 외여닫이문들은 1,000mm씩 이다.

그림 68. 전면 홀- 회중석 사이 양여닫이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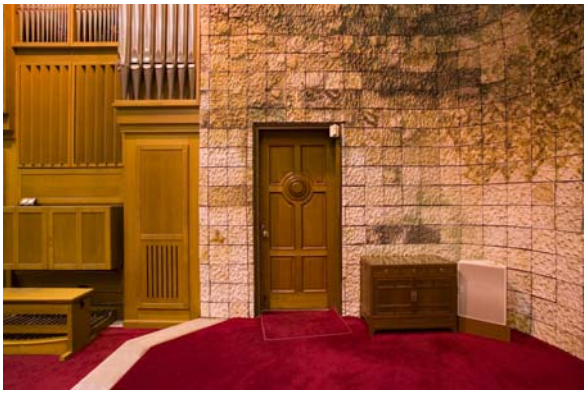


그림 69. 제의실 출입구

외벽에 형성된 부출입구 중 남측의 부출입구는 방풍실을 두고 2중으로 설치되었다. 방풍실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곳에는 알루미늄 양여닫이문을 설치하였으며 문의 하단부와 상부에는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하였다. 문 상부에는 2개의 미서기창이 있으며 양쪽으로 6개의 고정창이 설치되었다. 문 전체의 크기는 주변 창문과 상부 패널까지 포함하여 4,135mm × 2,800mm이다. 이 문의 형식은 북측 벽에 형성된 부출입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방풍실에서 회중석으로 이어지는 문은 철재 힌지도어이다.

1층에서 제의실로 들어가는 문은 목재문으로 전면 홀에서 회중석으로 이어지는 문의 형식과 동일하며 높이는 2,100mm 폭 900mm이다.(그림 70) 또 제의실에서 제대 뒤 벽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는데 이 문도 같은 형식으로 폭만 880mm로 차이를 보인다. 제의실에서 외부 창고로 이어지는 문은 목재문으로 높이 1,700mm 폭 620mm로 작게 형성되었다. 창고에서 외부로 이어지는 문은 철제문이다. 회중석 뒤편에 형성

된 창고로 들어가는 문들도 같은 철제문으로 높이 2,100mm 폭 950mm 이다.

2층에는 회중석으로 들어가는 양 여닫이문을 비롯하여 유아실과 창고, 백동 사료전시관으로 출입하는 여닫이문들이 있으며 종탑으로 연결되는 문이 1층과 같은 위치에 형성되었다. 종탑 계단실을 통해 2층 복도로 연결되는 문은 철제문으로 높이 2,100mm 폭 1,020mm이며, 2층 복도에서 회중석으로 연결되는 문도 철제 양 여닫이문으로 두 짝의 문 폭이 다른 문으로 높이 2,100mm에 폭은 1,450mm에 이른다. 유아실을 비롯하여 백동사료전시관, 창고 등 나머지 실로 이어지는 출입문들은 전부 목재문으로 높이 2,150mm 폭 1,100mm이며 1층 전면 홀에서 회중석으로 이어지는 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지하 1층의 문 14곳 중 외부에서 직접 이어지는 문들이 5개소에 설치되었는데 지하 홀로 들어가는 유리문을 비롯하여 보일러실에 2개소 계단 아래 창고로 들어가는 1개소 폐백실 전면 대기실로 직접 이어지는 여닫이문이 1개소 있다. 이 문들은 대부분 철제문이나 폐백실 전 대기실로 이어지는 문은 스테인리스 문이다. 스테인리스 문은 외부에서 고해소 등이 있는 공간의 홀로 들어가는 곳과 홀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형성되었다. 외부에서 대기실로 들어가는 문은 옆에 붙은 고정창까지 포함하여 높이 2,300mm 폭1,520mm이며 홀로 들어가는 문은 상부와 양옆 고정창까지 포함하여 높이 2,600mm 폭 1,520mm이다. 반면 홀에서 복도로 이어지는 문은 상부에만 고정창이 있으며 높이 2,600mm에 폭 1,200mm 이다. 복도에서 모세실로 들어가는 곳에도 스테인리스 문이 설치되었는데 상부에 고정창이 있는 형식은 홀에서 복도로 들어가는 문과 동일하며 폭만 1,000mm로 다르다. 모세실을 제외한 지하 1층에 위치한 나머지 실로 들어가는 문들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미서기 문으로 상부에 별도의 미서기 창들이 붙어있다. 미서기 문들의 크기는 실의 크기에 따라 1,750mm, 2,250mm 두 종류이며 높이는 2,600mm으로 반자의 높이에

맞추어져 있다. 고해소에서 종탑 계단실로 이어지는 문은 상부와 동일한 철제 여닫이문이다.

혜화동 성당에 설치된 창문들은 대부분 성화를 주제로 하는 유리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출입문에 붙은 창문이나 추후 변경된 부분의 창문에서만 예외가 발견된다.

그림 70. '십자가의 수난' 유리그림

그림 71. '숨을 거두신 예수' 유리그림

정면에는 별도의 독립된 창이 1층 벽의 모서리 쪽으로 두 군데 형성되었다. 중앙부분에는 출입구들이 있으며 출입구의 상부에 출입구와 연계된 창들이 있다. 독립된 좌우 창의 크기는 가로 2,120mm 높이 1,000mm로서 동일하며 모두 유리그림이 그려져 있다. 혜화동 성당 창에 그려진 유리그림들은 1980년과 1989-1991년에 걸쳐 이남규(루가)교수가 그린 작품들로서 전부 29점에 이른다. 정면 좌측 창에 그려진 유리그림은 손을 소재로 하여 '십자가의 수난'을 묘사한 것이며(그림 71) 우측 창에 그려진 그림은 '숨을 거두신 예수'를 묘사한 것이다.(그림 72) 중앙과 양옆 출입구 상부에 위치한 창문들은 붙박이창들로서 폭은 출입구와 동일하며 높이는 세 곳 모두 580mm이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이남규 교수가 그린 유리그림이 있는데 중앙 양 여닫이문의 상부에는 성지가지를 소재로 한 그림이 있으며 양 옆의 여닫이문 상부에는 밀과 포도를 소재로 한 그림이 묘사되었다.

우측에 해당하는 남측에는 총 17개의 창문이 존재하며 이중 8개는 같

은 형식으로 4개씩 짝을 지어 하나의 창처럼 인식된다. 이 창들은 전면 홀의 남쪽과 제대의 남쪽에 위치하며 외부로 돌출된 수직 콘크리트 기둥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면 홀의 남쪽에 위치한 수직창은 상부와 하부에 프로젝트 창이 설치되었으며 가운데 고정창도 3등분 되었다. 창의 전체 높이는 5,840mm이며 폭은 910mm이다. 상하에 설치된 프로젝트 창의 높이는 497mm이다. 이 창들에도 유리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상부에는 '빛'을 하부는 '천지창조'를 묘사하였다.(그림 73) 전면 홀의 것에 비해 제대 남쪽에 위치한 수직창들은 높이는 동일하나 폭이 880mm로 다소 좁은 편이다. 4짝의 수직창들은 전면 홀의 수직창에 비해 프로젝트창도 없으며 분할되지도 않았다. 전면 하나의 유리가 끼워진 창에 그려진 유리그림은 성당 전체를 통해 가장 화려하고 장대하며 세밀하다. 그림의 주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라는 전면 부조벽의 성경구절

그림 72. '천지 창조' 유리그림

그림 73.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유리그림

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그림 74)

수직창들을 제외한 나머지 남측 면의 창들은 모두 9개로서 2층 높이에 4개 1층 높이에 5개가 위치한다. 전면 홀에 가까운 기둥 열 8열에서 10열 사이에 위치한 4개의 창은 상부와 하부 모두 동일한 높이를 갖고 있으나 폭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4창의 높이는 1,300mm이나 기둥 열 8열과 9열 사이의 두 창은 폭이 2,850mm이며 9열에서 10열 사이의 두 창은 폭이 3,150mm로 300mm의 차이가 난다. 이 창들은 모두 3짝의 미서기 창으로 유리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성모영보'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빛'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이 묘사되었다. (그림 75, 76,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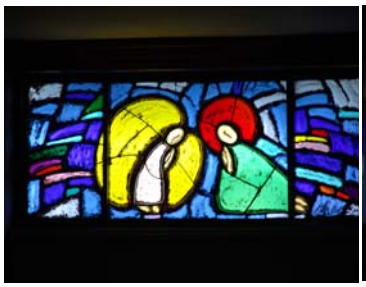


그림 74. '성모영보' 유리그림

그림 75.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유리그림

그림 76.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 유리그림

그림 77. '성부' 유리그림

그림 78. '성자' 유리그림

그림 79. '성령' 유리그림

기둥 열 4열에서 8열 사이에 5개의 창이 있으며 상부에는 폭 2,850mm 높이 800mm의 수평창 2개가 설치되었다. 수평창에는 '구원의 약속' '하느님의 손'이 유리그림으로 묘사되었다. 하부에는 폭 2,800mm 높이 2,400mm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대형 창이 3개 있으며, 이중창으로 설치되어 알루미늄 창 내부에 유리블록이 설치되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수평적으로 3등분 되었지만 창들은 모두 고정창이다. 이곳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묘사한 유리그림이 있다.(그림 78, 79, 80)

좌측면인 북측에는 성당 본체에 8개의 창문이 있으며 제의실 및 성가대석에 6개, 2층 돌출된 부분에 1개가 있다. 우측면에 있었던 수직창들은 제의실과 종탑으로 인하여 없으며, 나머지 창들은 대체로 우측면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기둥열 4열과 5열 그리고 6열과 7열 사이의 상부에는 폭 2,850mm 높이 800mm의 수평창이 2개 있는데 ‘초목, 물, 땅, 사람을 지어내시다’ ‘고난’을 추상적으로 묘사한 유리그림이 그려져 있다. 기둥열 5열에서 8열 사이의 하부에는 우측면과 대칭적으로 폭 2,800mm 높이 2,400mm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대형 창이 3개 있는데 ‘성 베네딕트’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성녀 소화데레사’를 묘사한 유리그림들이 그려졌다.(그림 81, 82, 83) 이 창들은 우측면의 창들과 마찬가지로 이중창이며 내부에는 유리블록 형식을 취한다.

그림 80. ‘성 베네딕트’ 유리그림

그림 81.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유리그림

그림 82. ‘성녀 소화테레사’ 유리그림

2층 회중석이 있는 부분인 기둥열 8열에서 10열 사이에는 상부에 2개 하부에 1개의 창이 있는데 우측면과 다른 점은 기둥열 9열과 10열 사이 하부에 창이 없다는 점이다. 이 창들은 우측면의 창들과 동일하게 높이는 1,300mm이나 폭이 2,850mm과 3,150mm 두 가지이며, 모두 3짝의 미서기 창이다. 이 창들에 그려진 유리그림은 ‘성탄’ ‘구세주’ ‘잃었던 아들’을 묘사하고 있다.(그림 84, 85, 86)

제의실 및 성가대석에 설치된 창문은 모두 7개이며 북측면에 6개 서측면에 1개가 있다. 북측면의 6개는 상부에 3개 하부에 3개가 있는데 하부의 창들은 삼각형 지붕모양의 인방으로 장식을 하였고 유리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다. 상부의 창들은 모두 3짝 미서기 알루미늄 창으로 좌측의 2개는 폭 1,780mm 높이 1200mm이며 우측창은 폭 1,200mm 높이 70mm의 2짝 미서기 창으로 크기가 작다. 이 창들에는 유리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빛'과 국악기 향비파를 소재로 '찬미'를 묘사하고 있다.(그림 87)

그림 83. '구세주' 유리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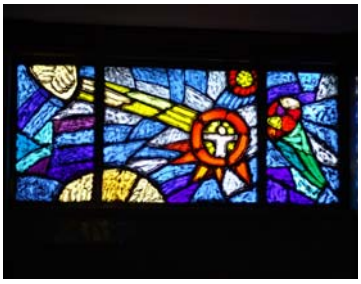


그림 84. '성탄' 유리그림

그림 85. '잃었던 아들' 유리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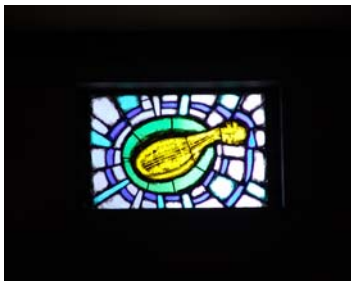


그림 86. '찬미' 유리그림

성가대실의 서측벽에 설치된 개구부는 상부 고정 하부 프로젝트 형식의 알루미늄창으로 폭 600mm 높이 1,600mm로서 프로젝트 창의 높이는 400mm이다. 이 창에도 성인을 주제로 한 유리 그림이 그려져 있다.

종탑의 하부 계단실로 사용되는 곳에도 2개의 창문이 설치되었는데 성가대실의 알루미늄창과 마찬가지로 상부 고정 하부 프로젝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체 크기는 폭 700mm 높이 1,600mm이며 프로젝트 창의 높이는 400mm이다. 다른 창과 마찬가지로 유리그림이 그려져 있다. 2층 회중석 전면 창고가 있는 돌출부의 북측면에도 알루미늄창이 설치되어있다. 제의실이나 종탑의 형식과는 반대로 상부 프로젝트 하부 고정창의 형식이며 폭 680mm 높이 1,600mm 프로젝트창의 높이 600mm이다.

도자벽화[16]

제대 뒤편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도자 벽화는 1979년 권순형(프란치스

16) 도자벽화를 비롯한 가구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혜화동 성당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도서출판 기쁜 소식 출판. 1996년 12월)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코)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당시 박희봉(이시도르) 주임신부에게 의뢰받아 제작하였으며, 25cm×25cm의 도자 조각들을 이어 전체를 구성하였다. 벽화의 명제는 '성사(Sacrement)' 혹은 '신비'의 뜻으로 성사 생활을 통한 성장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갈색은 풍요로운 밀밭을 상징하며 청록색은 심오한 우주 자체와 더불어 하느님의 포도밭을 상징한다. 둥근 태양은 빛의 원천으로서 야훼 하느님을 표상하며 전체 구도에서 정점을 이룬다. (그림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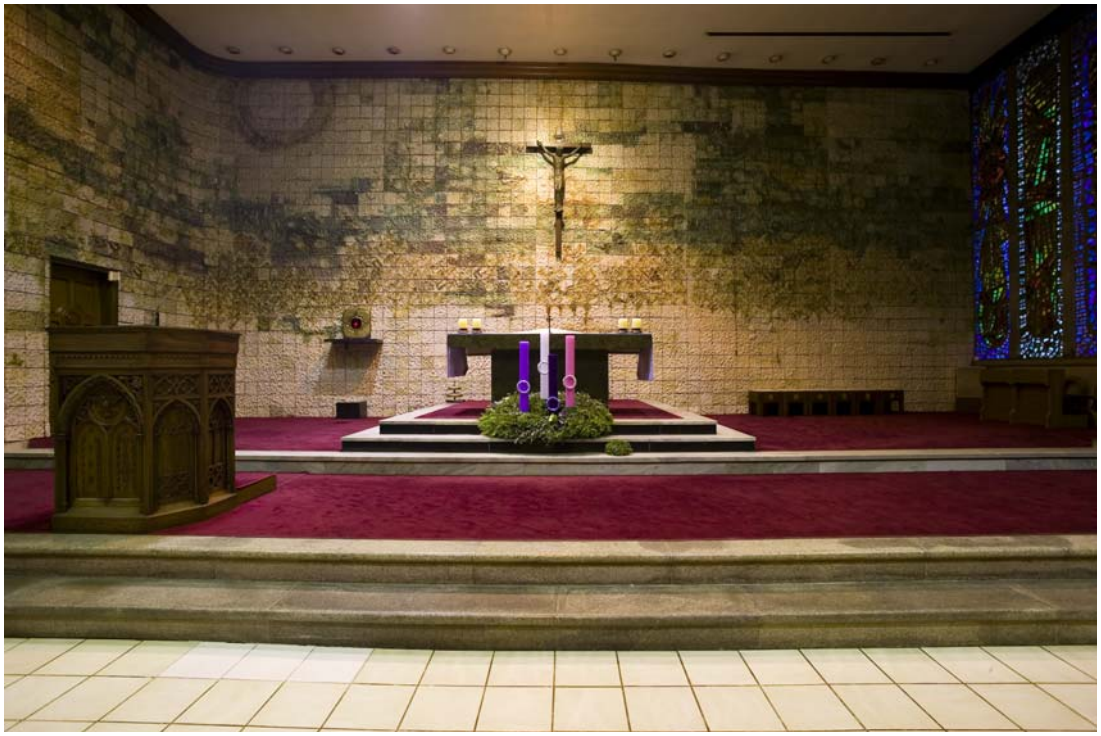


그림 87. 도자벽화, 제대, 십자고상, 감실, 독서대

십자고상

정면에서 보았을 때 제대의 뒤편 중앙 상단부에 위치한 십자고상은 1958년 김세중(프란치스코)에 의해 제작되었다. 재료는 마찬가지로 김세중(프란치스코)이 제작한 제대의 청녹색과 어울리는 색으로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크기는 가로 115cm이며 높이 228cm 깊이 30cm에 이른다.

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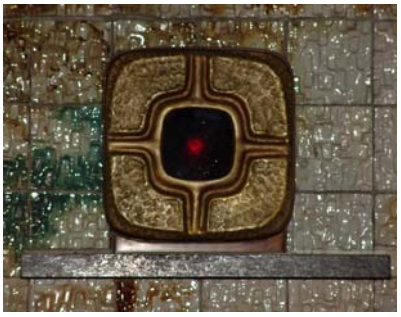


그림 88. 감실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는 감실은 1993년 최봉자(레지나)수녀가 디자인 한 것으로 가로 세로 50cm의 정사각형 정면에 깊이 34.5cm이다. 감실 중앙에 설치된 빨강 색 유리에 위치한 등은 성체 등으로서 성심(聖心)을 상징한다. 성체를 감실에 모셔두는 목적은 병자들에게 영성체를 시켜주는 것과 미사시간 이외에도 성체의 형상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흠숭케 하기 위한 것이다.(그림 89)

제대

제대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제직을 거행하는 천상 제대의 상징이자 그리스도 자신의 상징으로서 처음에는 최후의 만찬에서 나타나는 식탁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4세기부터는 골고타 바위와 제대위에 모셔둔 순교자들의 유해를 연상하는 것이며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뜻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님의 잔치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혜화동 성당의 제대는 십자고상을 제작한 김세중(프란치스코)가 1958년에 제작한 청색 대리석 작품으로 당시 사목회장이었던 장면(요한)박사가 기증한 것이다. 제대의 크기는 245cm × 100cm × 98cm이다.(그림 90)

103위 순교성인화[17)]

1977년 문학진(토마스)에 의해 제작된 '103위 순교복자성화'는 1976년 박희봉(이시도르) 주임신부에 의해 의뢰되었으며 10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1977년 7월 15일 김수환 추기경에 의해 축성되었다. 오기선 신부와

17) 103위 성인화의 특징은 철저한 고증에 의해 성인 개개인의 행적과 특징에 따라 복장과 소품 그리고 다른 자세와 동작을 특색있게 그려낸 것이나, 특히 성인들의 손 모양을 생동감있고 다양하게 묘사한 것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평가된다. 배선영 "한국 가톨릭 회화의 토착화 과정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 95

유홍렬 박사, 석주선 선생 등 전례와 역사 복식 등 묘사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엄밀한 고증을 거쳐 제작된 성화는 한국적 특징을 살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배경이 되는 산은 도봉산의 일부이다. 성화에 그려진 103위 순교자들은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다. 성화가 제작된 지 10년 만인 1996년 8월에는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을 문학진 화백이 직접 전면 보수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림의 크기는 가로 330cm 높이 285cm에 이른다.(그림 91)

그림 89. 제대

그림 90. 103위 순교성인화

십자가의 길

본당 내부 파이프 오르간 바로 옆 기둥에서 시작하여 맞은 편 기둥까지 이어진 십자가의 길은 1960년 주한 미국대사관에 부임한 남편을 따라온 조각가 헨더슨 부인이 장발(루도비꼬)의 자문을 받아 황동으로 부조한 작품이다. 천주교에서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의 언덕을 거쳐 갈바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14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성화나 조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14처라고도 부른다. 혜화동 성당에는 본

그림 91. 십자가의 길

당 내부와 아울러 외부에도 설치되어있다.

내부에 설치된 십자가의 길은 혜화동 성당에 설치된 많은 성 미술 중 유일하게 외국인에 의해 제작된 십자가의 길은 변형되고 과장된 인체의 표현에서 극적인 상황설정이 잘 묘사되고 있으며 남성적인 터치로 예술성이 높아진 작품으로 평가된다. 크기는 가로 65cm 세로 80cm이며 두께는 7cm이다. (그림 92)

세례대

제대의 남쪽 해설대 옆에 자리하고 있는 단지 모양의 세례대는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그 몸에 결합되고 성령의 도유를 받아 하느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의미가 있다.

여러 성미술품들이 제작되던 1958년 화강석을 다듬어 제작된 세례대는 성미술 제작에 큰 업적을 남긴 이순석(바오로)의 작품으로 단아하고 단순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상부 원의 지름 90cm 높이 115cm이다. 이순석(바오로)의 호는 하라(賀羅)이며, 독창적 석조예술의 세계를 정착시키고 응용미술의 시대를 연 한국 공예사의 뛰어난 인물로 인정받았던 작가이다.(그림 93)

그림 92. 세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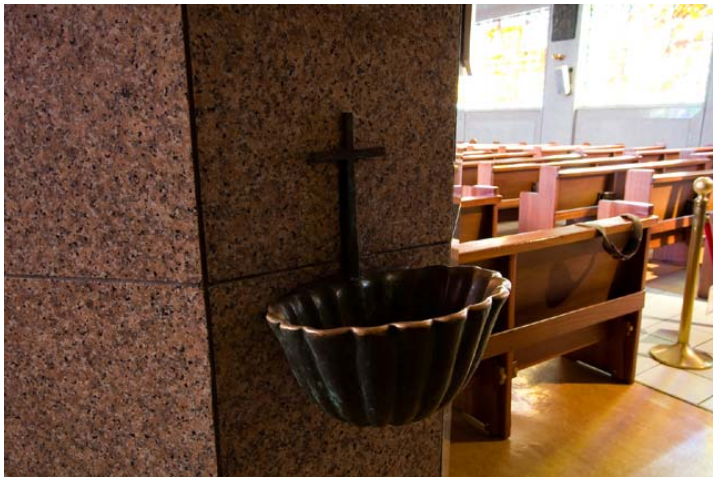


그림 93. 성수반

성수반

본당 입구에 들어서면 2층 회중석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중 좌측 기둥에 설치된 성수반은 1961년 7월 김종영(프란치스코)가 디자인하고 마포구 도화동에 살았던 박승환이 제작한 작품이다. 성수반은 성당 현관이나 입구 쪽에 설치된 성수를 담는 그릇으로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옴과 동시에 성수반의 성수를 찍어 성호를 긋고 스스로를 축성하는 의식을 행한다. 성수는 특별히 종교적인 용도를 위해 사제가 교회의 이름으로 축성한 물이다.

혜화동 성당 성수반의 형상은 조개모양의 그릇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모습이며 브론즈로 제작되었다. (그림 94)

부활 성수대

성수는 용도에 따라 성수와 성세수, 부활절의 특별한 예식으로 축성되는 부활절성수 등으로 나뉜다. 성수는 이렇게 나뉘지만 일반적인 성당에서 성수반을 구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혜화동 성당은 별도의 부활 성수대를 두고 있는데 1994년 이종상(요셉)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이며 상부에 임영선 교수의 예수 부활상을 얹어 완성하였다.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피를 상징하는 암적색의 화강석 성수대 위에 올려진 예수부활상은 황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가시관을 쓰고 못 자국이 선명한 두 손을 포갠 예수의 상반신 등신대이다. 성수반은 그리스도의 손이 포개진 바로 아래에 형성되었다. 성수대의 정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를 양각으로 새겼다. 부활성수대의 크기는 53cm × 53cm × 212cm이다. (그림 95)

성모상

혜화동성당에는 두 곳에 성모상이 설치되었으며 하나는 사제관과 본당 사이 성모동산에 설치된 것이며 하나는 본당으로 진입하는 계단의 좌측에 설치된 것이다. 그중 진입계단 좌측에 위치한 성모상은 성 미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1996년 10월 최종태(요셉)가 화강석으로 제작하였다. 성물의 토착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받아들여 한국적인 조각 양식으로 성모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높이 185cm에 이른다. (그림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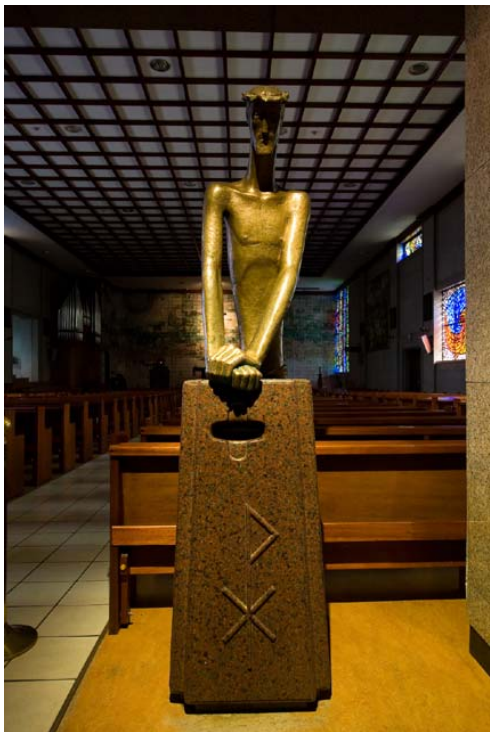


그림 94. 부활성수대

그림 95. 성모상

로사리오기도문

'장미꽃다발'이나 그 화관을 뜻하는 로사리오는 자신을 신께 바치는 의미를 지닌다. 로마 시대에 순교자들은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될 때 하느님에 대한 예모의 표식으로 장미 관을 썼다. 이 때 신자들은 밤중에 몰래 순교자들이 썼던 장미관을 한데 모아 꽃송이마다 기도를 바쳤는데 이것이 로사리오 기도의 기원이다. 현재 천주교신자들이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 기도이다.

일반적으로 로사리오 기도문을 형상화한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혜화동 성당에는 화강석으로 십자가의 형상을 한 로사리오 기도를 조각으로 만들어 성당의 남쪽 화단에 설치하였다. 이 기도는 1994년 최봉자(레지나) 수녀가 제작한 작품으로 폭 1m 높이 80cm 정도로 화강석 십자가의 가운

데 장미꽃이 조각되었다. (그림 97)

그림 96. 로사리오 기도문

혜화동 성당의 건축적 내용을 가구를 제외하고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부위	위치	건축 내용		관련자료
			구조체 형식	마감형식 및 보존상태	
기초	기초	기둥기초	독립기초	미확인	그림 4-1
		벽체기초	줄기초		
		지하층	온통기초		
몸체	기둥	본체기둥	각변 900mm 각기둥	외부 벽돌마감	그림 3-4
		정면기둥	지름 600mm 원기둥	외부 화강석돌림	그림 2-2
	벽체	동쪽벽면	콘크리트 옹벽구조	내부 도자벽면처리	그림 2-9
		남북벽면	조적 벽 위 옹벽	외부 적벽돌 마감 /북쪽벽체 상부일부 훼손	그림 2-1
		정면	콘크리트 옹벽	외부화강석 부조벽 마감 /부조벽 하부 훼손	그림 3-1
	바닥	회중석	콘크리트 슬래브	화강석물갈기 위 장판지	그림 2-8
		제의실	콘크리트 슬래브	몰탈 위 무늬목 깔기	
		지하 홀	콘크리트 슬래브	화강석 물갈기	그림 5-10
		지하 방	콘크리트 슬래브	테라죠 현장 깔기	그림 5-9
		유아실 및 2층 복도	콘크리트 슬래브	몰탈 위 장판지 깔기	그림 2-13, 16
		전면 홀	콘크리트 슬래브	화강석 물갈기 위 타일	그림 5-8

구분	부위	위치	건축 내용		관련자료
			구조체 형식	마감형식 및 보존상태	
	반자	지하 홀	경량 천정틀	텍스마감	그림 5-10
		지하 방	콘크리트 슬래브 아래 몰탈	수성페인트	그림 5-9
		전면 홀	경량 천정틀	텍스마감	그림 5-8
		회중석	목재 천정틀	텍스마감	그림 5-6
		2층	목재 천정틀	텍스마감	그림 5-11
	창문	전면홀	남쪽 수직창 정면 출입문 위 수평창	유리그림처리	그림 6-6,7
		회중석	제대 수직창, 남북면 상하 수평창	유리그림처리	그림 6-8~20
	문	출입문	중앙 철재 힌지문 양여닫이 양측 철재 힌지문 외여닫이	암갈색 도장처리	그림 6-1
		홀-회중석문	중앙 목재문 양여닫이 양측 목재문 외여닫이	무늬목 위 니스처리	그림 6-2
		부출입구	남측 바깥 알루미늄 양여닫이 남측 안쪽 철재 힌지문 북쪽 알루미늄 양여닫이		그림 5-3
		2층 출입문	회중석/종탑출입문 철재여닫이 일반 실 출입문 목재 여닫이문	회색 도장처리 니스처리	그림 2-13
		지하출입문	홀 출입문 유리문 여닫이 모세실 출입문 스테인레스 스틸 여닫이문 일반실 출입문 플라스틱 미서기문		그림 3-7 그림 5-9.10
		지하 외부출입문	폐백실 출입문 스테인리스여닫이 창고 등 출입문 철제 여닫이문	회색도장처리	그림 2-22
상부	트러스	옥상하부	목재 ㅅ자 트러스	2중 목재 보 사이 연결보 보울트 조임	그림 4-5
	지붕마감	트러스상부	판재 위 방수처리 외부 동판 얹기	동판 이음 위 방수도장처리	그림 4-6 지붕창호평면도
		배풍기	경량철골 위 동판얹기	동판이음 위 방수도장처리	
	옥상난간	전면 난간	두께 60mm 두겁돌		그림 5-5
		동남북난간	두께 1.2mm 동판후레싱	방수도장처리	그림 5-4
	홈통	기둥 외부	구리홈통	방수도장처리	

Ⅳ. 종합고찰

Ⅳ. 종합고찰

전체 보존 상태와 부분적 보완부분

혜화동 성당은 1960년에 준공되었던 규모와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개수가 이루어지고 변형된 부분도 있지만 본당의 기본 크기와 형식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시공과정에서 전체 비례가 부분적으로 달라지고[18], 백동관이 본당에 연결된 상태로 증축되고 지하 성당이 증축되면서 배면이 가려지는 등 외관상의 변화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또 부출입구 형식의 변화, 유아실 설치, 고해실의 위치이동, 설비 교체 및 보수, 마감재료 보수 등에 따라 내부 공간형식의 변화도 수반되었으나 회중석과 제대공간을 비롯한 주요 공간과 각종 성 미술품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변화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준공당시의 형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천주교 전례형식의 변화가 크기 않았다는 것과 신자수가 늘어나면 별도의 성당을 지어 분당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전통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교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별도의 행위와 모임이 필요하여 백동관이나 지하 성당 등 부속 공간에 대한 증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주일 미사를 비롯한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전례의식은 성당 설립시의 형식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본당 건축형식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 5월 축성된 이후 2007년까지 47년 동안 혜화동 성당은 지붕을

18) 정인하는 혜화동 성당 입면비례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도면을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는 1971년 6월 [공간]지에 실린 도면이며 하나는 1997년 성당 설립 70년을 맞이하여 엄이건축에서 건물을 실측하여 작성한 도면이다. 후자의 도면에 비해 전자의 도면에 나타난 비례가 명료한데 그것은 이희태가 제시한 도면이 시공중에 변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인하 '이희태 건축론:감각의 깊이'(도서출판 시공문화사. 서울. 2003년) pp.38-40

제외하면 외관상 큰 변화는 없으며 주요 구조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벽돌을 비롯한 내외부의 마감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을 통해 성당의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도 경과 년 수에 비하여 전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부록 : 혜화동 성당 노후도 조사결과 참조) 다만 경과 년 수가 오래되어 피복이 얇은 부위를 중심으로 철근부식으로 인한 콘크리트 박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정면과 측면, 지붕과 계단부 등 전 부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면 2층의 부조벽 하부는 지속적인 누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백화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에 고여 있는 물이 스며들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붕 돌출난간이나 지붕 층의 방수층이 깨어져 물이 흡수되어 콘크리트 옹벽과 화강석 부조벽 사이로 물이 흘러 누수가 진행되는 것이다. 장차 이러한 누수가 계속 진행될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방수층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양호한 보존을 위해서는 2층이나 지하층에 위치한 작은 방들의 기물을 정리하고 마감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혜화동 성당의 건축적 특징과 가치

혜화동 성당은 한국 천주교의 전통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는 곳이다. 아울러 건축적인 관점에서도 독특한 위상을 부여받는다.

명동성당, 중림동성당과 더불어 서울의 3대 성당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혜화동 성당은 한국 땅에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1900년대 초에 시작된 유서 깊은 성당이다. 각별히 천주교 신앙의 성조로 추앙되는 이승훈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초기 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한국 천주교 교회사에서 그 의미가 지대하다. 나아가 혜화동 성당 일대는 초기부터 신앙의 틀을 형성하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소신학교, 대신학교 등 교육기

관들이 들어서면서 사제를 양성하고 교리탐구를 위한 진원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이다. 또한 혜화동 성당은 서울 북부의 성당들이 분할되고 성장하는 기초가 됨으로써 명실 공히 서울 북부지역의 중심 성당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혜화동성당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의 한 곳이며, 사제를 배출하는 신학교와 연계되면서 한국 천주교의 요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작품으로서의 혜화동 성당은 건축을 비롯하여 그림과 조각 등 성 미술 분야에서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는다. 그것은 2공화국 내각 수반이었던 장면의 아우이자 당시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장이었던 장발이 '신축 성당 건립 기성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신자들이었던 많은 예술인들을 참여시키면서 촉발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장발은 스스로도 작품을 남겼지만 건축가 이희태를 비롯하여 조각가 김세중, 장기은, 권순형, 이남규 등의 예술가들을 참여시켜 전면 부조작품을 비롯한 예술성이 뛰어난 근대적 종교 작품들을 남기도록 하였다. 이들 작품들로 인해 천주교 신앙은 문화와 예술적으로도 성공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건축적인 관점에서 혜화동 성당은 전통적인 성당건축의 틀을 벗어나 본격적인 한국 근대건축의 시발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계를 담당한 이희태는 전통적인 서구식 교회에 입각한 절충적인 성당들이 들어서던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근대적 재료와 비례를 중시하는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이희태가 성당을 위시한 종교작품들에서 보여준 시도에 대해 김정신은 '그들은 오랫동안 보편화되어왔던 양식주의 혹은 절충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합리성과 기능성, 창의성을 추구하였다. 명수대 성당, 혜화동 성당은 선구적인 건물인데, 이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교회건축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었다'[19]라고 피력하고

19) 정인하. 감각의 깊이 : 이희태 건축론(도서출판 시공문화사, 서울 1993) p.30에서 재인용

있다. 그러나 혜화동 성당의 설계가 끝난 시점이 1955년이라는 점에서 혜화동 성당은 현대적 교회정신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보다 앞선 것이어서 건축가의 선구적인 의식은 더욱 부각된다. 혜화동 성당의 건축형식은 전문 건축가에 의해 자율적으로 개발된 근대적 형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직육면체의 단순한 입방체 형식을 토대로 전통적인 공간구분과는 다른 통합된 형식의 공간구성체계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며, 이후 건립되는 근대적 성당건축의 모태가 되었다.

Ⅴ. 흑백 사진

서쪽 전경

정면

전면 부조벽

정면

종탑상세

지붕상세

정면

종탑상세

지붕상세

좌측면

우측면 상세

입구

남쪽 부출입구

예수상

로사리오 기도문

로사리오 기도문

로사리오 기도문

로사리오 기도문

로사리오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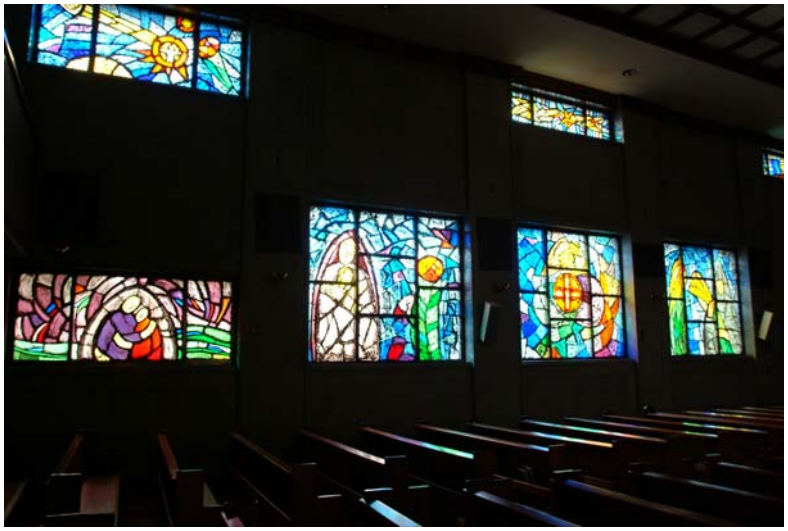
로사리오 기도문
'시작기도'

로사리오 기도문
'성모 찬송'

남쪽 유리화

남쪽 유리화

남쪽 벽 내부



북쪽 벽 내부

성당 내부

제대 전경

지붕 트러스 상세

지붕 트러스 상세

회합실 '루가실'

회합실 ‘마태오실’

회합실 ‘모세실’

요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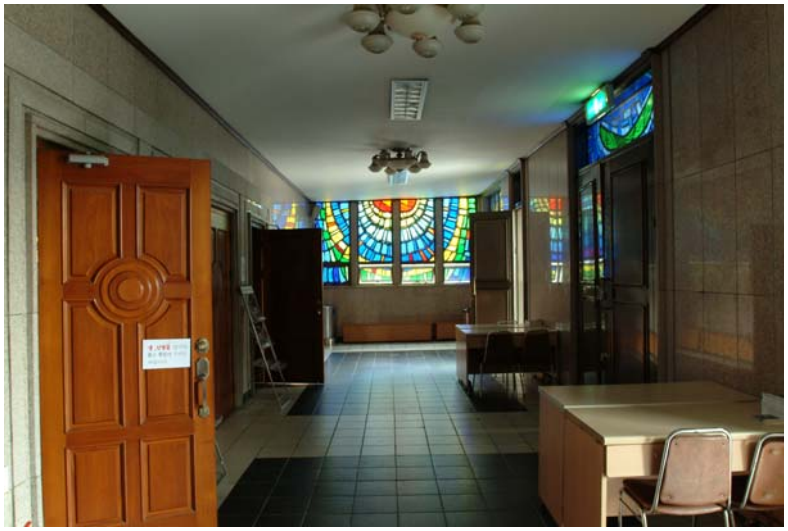
성모상

예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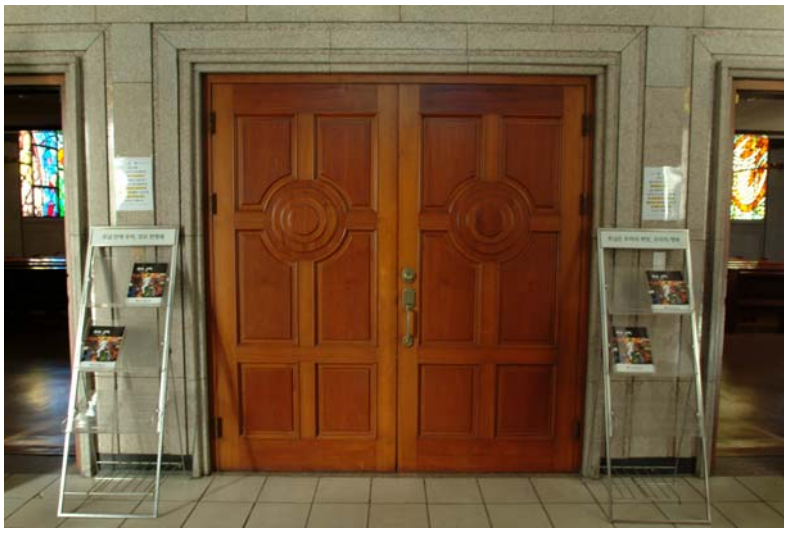
지하층 출입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유리그림

성수반



현관



주 출입구
(현관-회중석)

전례부실

창고

유아실

동쪽 외부 공간

주출입구 내부
(현관-외부)

주출입구 외부
(외부-현관)

참고문헌 및 부록/초록

참 고 문 헌

1. 천주교 혜화동 교회 백동 70년사 편찬위원회 '백동 70년사'(빅벨출판사. 서울. 1997)
2. 염수의, 천주교 혜화동 교회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도서출판 기쁜 소식. 서울. 1996)
3. 정인하 ' 감각의 깊이 : 이희태 건축론 '(도서출판 시공문화사, 서울. 2003)
4.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한국 교회사 연구소. 서울. 1994)
5. 메디나 신부, 박철 역 '한국 천주교 전래의 기원'(서강대 출판부. 서울)
6. 김정신 "우리나라 교회 건축의 현황"('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1996))
7.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9)
8. 김정신 "한국의 성당건축"(건축문화 1985년 6월호)
9. 김정신 "한국의 성당건축"(건축문화 1985년 9월호)
10. 천주교 혜화동성당 홈페이지
11. 배선영 "한국 가톨릭 회화의 토착화 과정에 관한 연구"(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2. 강지훈 "한국 천주교회 성당건축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3. 김상원, 정인하 "이희태의 종교건축에서 나타난 비례개념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권 10호 2000년 10월호)
14. 이연호 "혜화동 성당의 조각"(Copyright(C)2002 Nuri Media Co, Ltd)

부 록

혜화동 성당 노후도 조사 결과[20]

구분	위치	현황	비고
1층	홀출입문바닥	타일파손	
1층	홀 바닥	타일파손	
1층	홀 바닥	타일파손	
1층	홀 바닥	타일파손	
1층	출입 계단	상부처마 누수 및 백화 발생	
2층	외부	석재 하부 누수로 인한 백화	
우측	지붕층	벽체 수평 균열 발생	
우측	1층	벽체 경사 균열	
우측	1층	콘크리트 박락조짐	내부철근부식
우측	지붕층	창상부콘크리트 박락/철근부식	철근부식요인
우측	지붕층	수직균열	철근부식요인
우측	1층	벽체 경사 균열(우수관주위)	
우측	1층	벽체 경사 균열(우수관주위)	
우측	1층	벽체 경사 균열	
우측	2층	창상부 박락조짐	철근부식요인
우측	1층	창상부 수평균열	철근부식요인
우측	1층	창상부 콘크리트 박락	철근부식요인
우측	1층	창상부 수평균열	철근부식요인
우측	지붕층	처마슬래브 균열	
우측	1층	차양 콘크리트 박락	
우측	1층	수직 균열 발생	철근부식요인
우측	1층	콘크리트 박락	
우측	1층	균열 발생	철근부식요인
우측	1층	콘크리트 박락/철근노출	
우측	2층	균열 발생	

20) 한국구조성능평가원의 협조로 조사되었음

구분	위치	현황	비고
좌측	지붕층	벽체 계단식 균열	
좌측	1-2층	벽체 균열(우수관 주위)	
좌측	지-2층	우수관주변 벽체 균열	우수관 매립요인
좌측	1층	우수관 주변 벽체 균열	
좌측	1층	창문상부 콘크리트 박락	
좌측	1층	출입문 상부 캐노피 측면 균열	
좌측	지붕층	처마슬래브 균열	
좌측	지붕층	벽체 수평균열	
좌측	지하층	출입구 상부 누수로 인한 백화 발생	진행중

<사진 1> 1층 홀 출입문 바닥 타일 파손	<사진 2> 1층 홀 바닥 타일 파손

<사진 3> 1층 홀 바닥 타일 파손

<사진 4> 1층 출입계단 상부처마 누수 및 백화 발생

<사진 5> 1층 출입계단 상부처마 누수 및 백화 발생

<사진 6> 2층 외부 석재 하부 누수로 인한 백화

<사진 7> 2층 외부 석재 하부 누수로 인한 백화

<사진 8> 우측 지붕층 벽체 수평 균열 발생

<사진 9> 우측 1층 벽체 경사 균열

<사진 10> 우측 1층 콘크리트 박락 조짐

<사진 11> 우측 지붕층 창상부 콘크리트 박락/철근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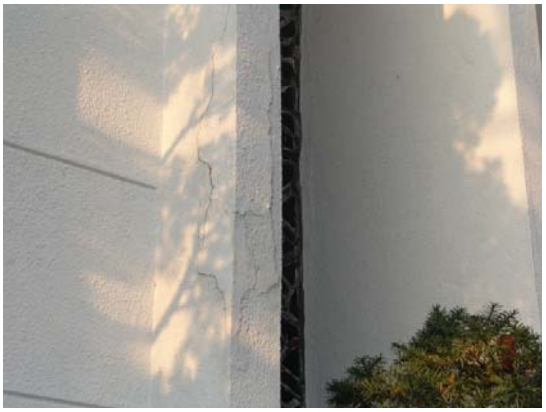
<사진 12> 우측 지붕층 수직 균열

<사진 13> 우측 1층 벽체 경사 균열(우수관 주위)

<사진 14> 우측 1층 벽체 경사 균열(우수관 주위)

<사진 15> 우측 1층 벽체 경사 균열	<사진 16> 우측 2층 창상부 박락조짐
<사진 17> 우측 1층 창상부 수평균열	<사진 18> 우측 1층 창상부 콘크리트 박락
<사진 19> 우측 1층 창상부 수평균열	<사진 20> 우측 지붕층 처마슬래브 균열

<사진 21> 우측 1층 차양 콘크리트 박락



<사진 22> 우측 1층 수직 균열 발생

<사진 23> 우측 1층 콘크리트 박락

<사진 24> 우측 1층 균열 발생

<사진 25> 우측 1층 콘크리트 박락/철근노출

<사진 26> 우측 2층 균열 발생

<사진 27> 좌측 지붕층 벽체 계단식 균열

<사진 28> 좌측 1-2층 벽체 균열 (우수관 주위)

<사진 29> 좌측 지-2층 벽체 균열 (우수관 주위)

<사진 30> 좌측 1층 우수관 주변 벽체 균열

<사진 31> 좌측 1층 우수관 주변 벽체 균열

<사진 32> 좌측 1층 창문 상부 콘크리트 박락

<사진 33> 좌측 1층 출입문 상부 캐노피 측면 균열

<사진 34> 좌측 지붕층 처마슬래브 균열

<사진 35> 좌측 지붕층 벽체 수평균열

<사진 36> 좌측 지하층 출입구 상부 누수로 인한 백화 발생

혜화동 성당 노후도 조사 결과 경과년수에 비하여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경과년수가 오래되어 피복이 얇은 부위에 철근부식으로 인한 콘크리트 박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전면 석재조각 하부에는 누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누수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천시가 아님에도 석재하부에서 계속적인 백화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상부부위에 우수고임으로 인해 일부 석재가 우수를 흡수함으로 인해 약한 줄눈부위를 통하여 누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누수가 계속 진행될 경우 구조물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문초록

혜화동 성당은 1927년 백동본당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존하는 성당건물은 1954년 '신축성당 건립 기성회'가 조직된 후 1960년 5월 건축면적 225평 연면적 545평의 사제관을 포함한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길이 42.6m 폭 16.5m의 직사각형 평면형식은 전문 건축가에 의해 자율적으로 개발된 근대적 형식이다. 직육면체의 단순한 입방체 형식을 토대로 전통적인 공간구분과는 다른 통합된 형식의 공간구성체계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전체 공간구성은 가톨릭의 전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들과 최소한의 회합실로만 구성되었으며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로, 지상 1층의 대부분은 회중석이 차지한다.

혜화동 성당의 근대적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입면을 통해 외부로 드러난 형태부분이다. 화강석과 적벽돌로 치장된 외부형태는 육면체의 박스 형태와 평활한 면, 지붕의 수평선, 노출된 기둥을 통한 규칙적인 리듬이 근대적 비례와 리듬감을 잘 전달한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를 토대로 목조지붕트러스를 올린 형식이다. 동쪽벽은 옹벽이며 남북 양쪽 벽은 11개의 기둥을 설치하고 기둥사이는 조적벽으로 마감하였다. 따라서 재료는 골조와 바닥슬래브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지붕 트러스는 목재로 제작하였다. 벽은 조적벽을 활용하였는데 외부는 적벽돌로 마감하였다. 실내는 여러 번의 변경을 통해 석재와 목재로 마무리되었다.

혜화동성당에 설치된 개구부는 각층의 개수를 합쳐 문이 총 36개소에 있으며, 창은 41개소이며, 대부분의 창은 성화를 주제로 하는 유리그림이 그려져 있다.

혜화동 성당은 1960년에 준공되었던 규모와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시공과정에서 전체 비례가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있으나 전체 규모와 형식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또 지붕을 제외하면 외관상 큰 변화는 없으며 구조와 벽돌 마감상태도 양호하다.

혜화동 성당은 한국 천주교의 전통과 성당건축의 전통 속에서 독특한 위상을 부여받는다. 명동성당, 중림동성당과 더불어 혜화동성당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의 한 곳이며, 사제를 배출하는 신학교와 연계되면서 한국 천주교의 요람이 되었다. 건축적으로는 건축가 이희태(1925-1981)의 대표작으로 전통적인 성당건축의 틀을 벗어나 본격적인 한국 근대건축의 시발점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건축을 비롯하여 그림과 조각 등 성 미술 분야에서도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는다.

영문초록

The Hyehwadong Catholic Cathedral got started with establishment of the Baekdong-main temple in 1927. The existing Catholic Cathedral had finished inclusive of parsonage 225 pyeong building area, 545 pyeong gross area in May 1960 after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for new construction of Church' in 1954.

The rectangular form of length 42.6m width 16.5m is a modernistic form developed autonomously through a professional architect. Architectonic of united form different traditional space division base rectangular parallelepiped was anomalous form difference of architectonic was anomalous form that united form of traditional space division based rectangular parallelepiped. Overall majority of formation is composed of essential space for a ceremony and the minimum meeting place, It is composed 2 floor and 1 basement and nave occupy most part of first floor.

The best part of showing a modernistic feature of the Hyehwadong Catholic Cathedral is exterior through the elevation. The form of outside decorated granite and red brick express modernistic proportion and rhythm in regular rhythm through box form of a hexahedron, expanse of surface a horizon of a roof, exposed column. The structure is form which a wood-carving trussed roof is based a rectangular rigid frame of ferroconcrete. The east wall is a retaining wall, the north and south wall are set up 11 columns, between column and column are finished brick wall. Consequently, in materials, the frame and floor-slab are made up ferroconcrete and trussed roof are made up woods. The wall is made up brick wall and exterior is finished red brick. The interior is finished stones and woods through

several change.
The established openings of the Heyhwadong Catholic Cathedral are 36-gates including gates of the sum of each floor, 41-windows, most windows are painted holy picture of glass.
Generally, the Heyhwadong Catholic Cathedral is preserved the scale and form as initial Heyhwadong Catholic Cathedral in 1960. General proportion was partly modified in process of construction but general scale and form have preserved as the original form. It have no a great change of exterior except the roof, the structure and the condition of finished brick are good.
The Heyhwadong Catholic Cathedral have given a peculiar phase in tradition of the Korean Catholic and Catholic Cathedral. The Heyhwadong Catholic Cathedral is one of the oldest Catholic Cathedral with Myeong Dong Catholic Cathedral and Junglim Dong Catholic Cathedral, It has became a cradle of Korean Catholic connecting with a seminary for delivery priests. Architecturally, this building has meaning of the deviating traditional Catholic Cathedral, the first departure of modern architecture of Korea in earnest meaning as the masterpiece of HeeTae-Lee's works. And it is unique status that holy art fields of paintings, culptures and architecture in history of Korean Cathol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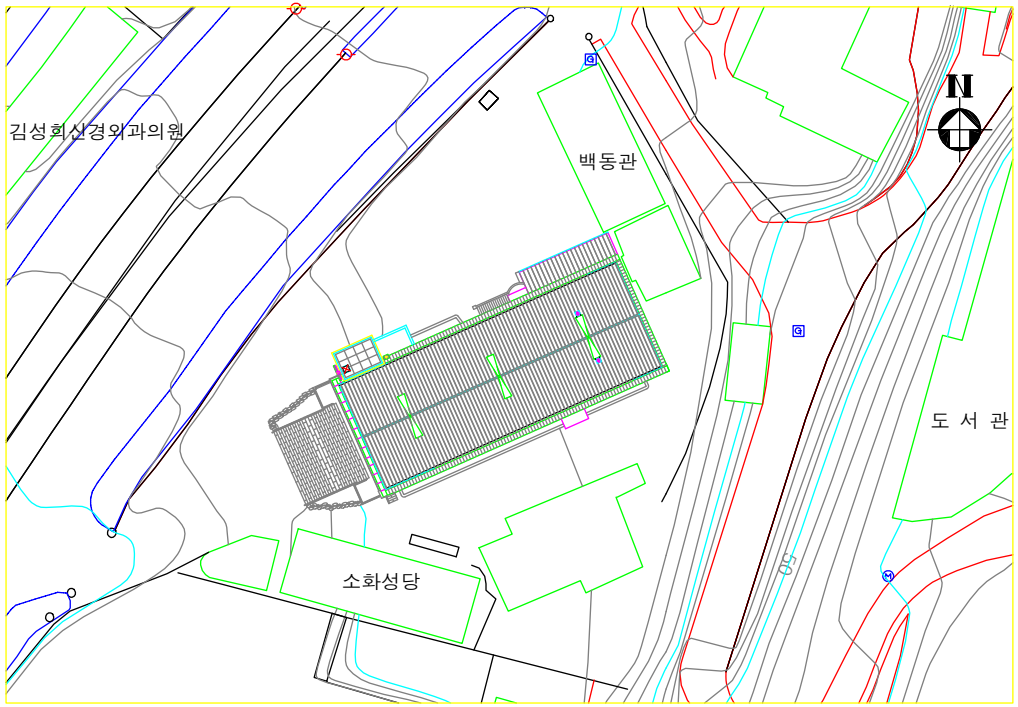
실 측 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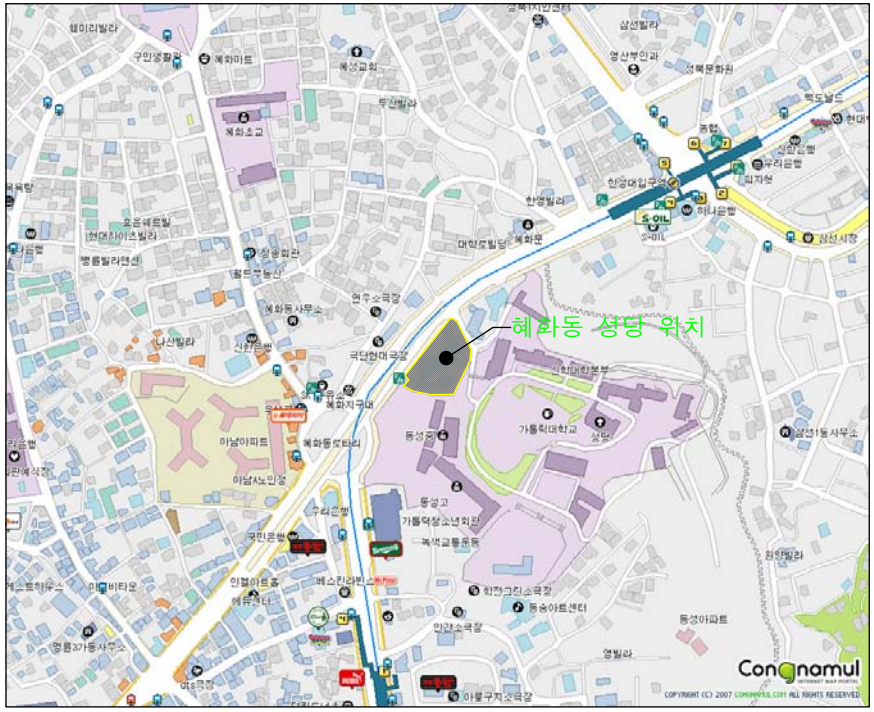
실 측 도 면 목 록 표 (A4)

번 호	도 면 명	비 고
1	위치도 및 배치도	
2	실내재료 마감표	
3	지하 1층 평면도	
4	지상 1층 평면도	
5	지상 2층 평면도	
6	지붕 평면도	
7	정면도	
8	우측면도	
9	좌측면도	
10	종단면도	
11	횡단면도	
12	전면돌 패턴도	
13	트러스 실측도	
14	지하 1층 창호평면도	
15	지상 1층 창호평면도	
16	지상 2층 창호평면도	
17	지붕 창호평면도	
18	창호일람표 1	
19	창호일람표 2	
20	창호일람표 3	
21	창호일람표 4	
22	창호일람표 5	
23	창호일람표 6	
24	창호일람표 7	
25	창호일람표 8	
26	창호일람표 9	
27	각부상세도	
28	지상 1층 평면도(균열변형도)	
29	우측면도 (균열변형도)	
30	좌측면도 (균열변형도)	

실 측 도 면 목 록 표 (A3)

번 호	도 면 명	비 고
1	지하 1층 평면도	
2	지상 1층 평면도	
3	지상 2층 평면도	
4	지붕 평면도	
5	정면도	
6	우측면도	
7	좌측면도	
8	종단면도	
9	횡단면도	
10	전면돌 패턴도	
11	트러스 실측도	
12	각부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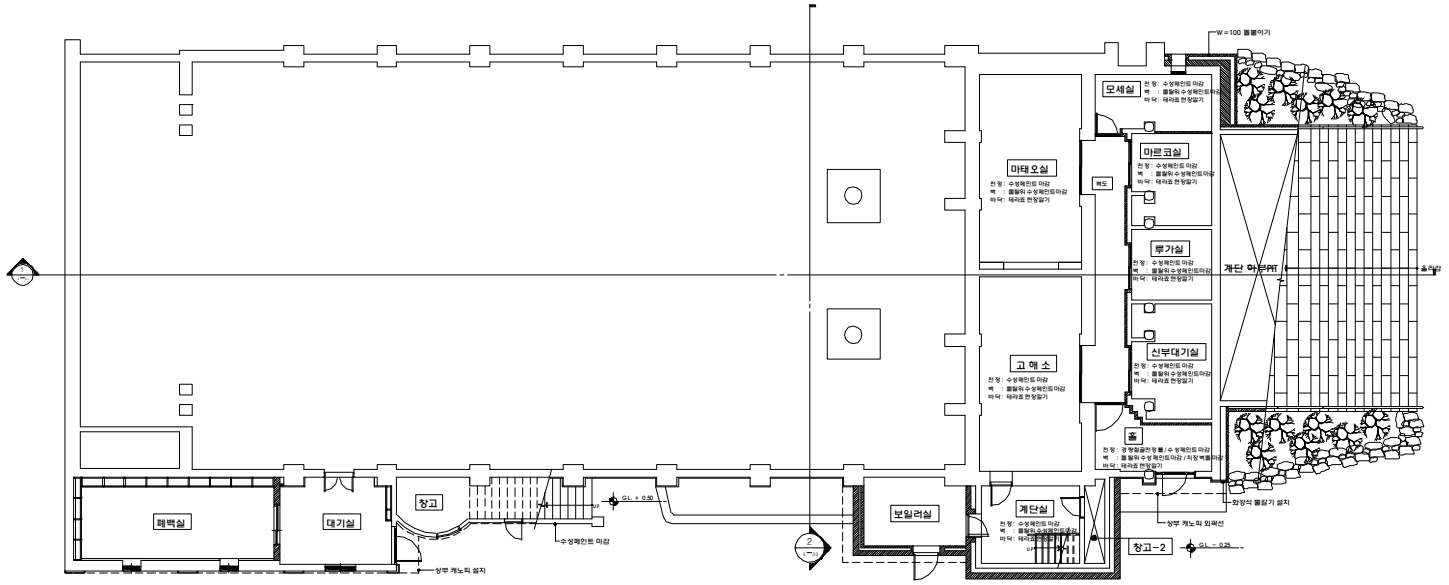


위 치 도 및 배 치 도

실내재료마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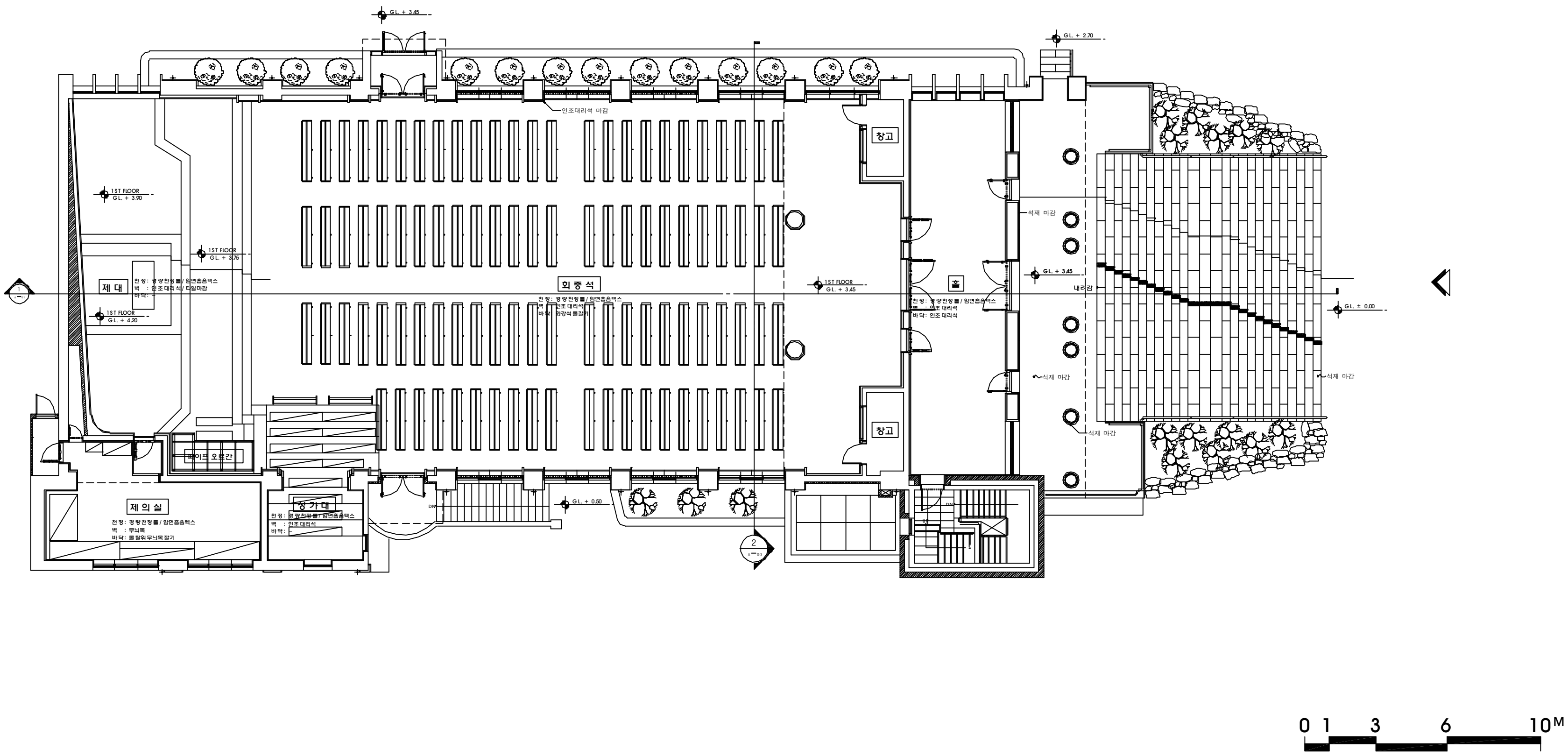
구 분	실 명	벽	바 닥	천 정	비 고
지하1층	마태오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고 해 소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모 세 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마르코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루 가 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신부대기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홀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치장벽돌마감	화강석 물갈기	경량철골 천정틀/수성페인트 마감	
	계 단 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보일러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창 고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대기실 및 폐백실	몰탈 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수성페인트 마감	
지상1층	전 면 홀	화강석 물갈기	화강석 물갈기	목재 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회 중 석	인조 대리석	화강석 물갈기	경량 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성 가 대	인조 대리석	-	경량 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제 의 실	무늬목	몰탈위 무늬목 깔기	경량 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지상2층	회 중 석	인조 대리석	화강석 물갈기	경량 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유 아 실	몰탈위 수성페인트 마감	몰탈위 장판지 마감	경량 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창 고	몰탈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	
	백동사료전시관	몰탈위 수성페인트 마감	테라죠 현장깔기	경량 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복 도	몰탈위 수성페인트 마감	몰탈위 장판지 마감	경량 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지하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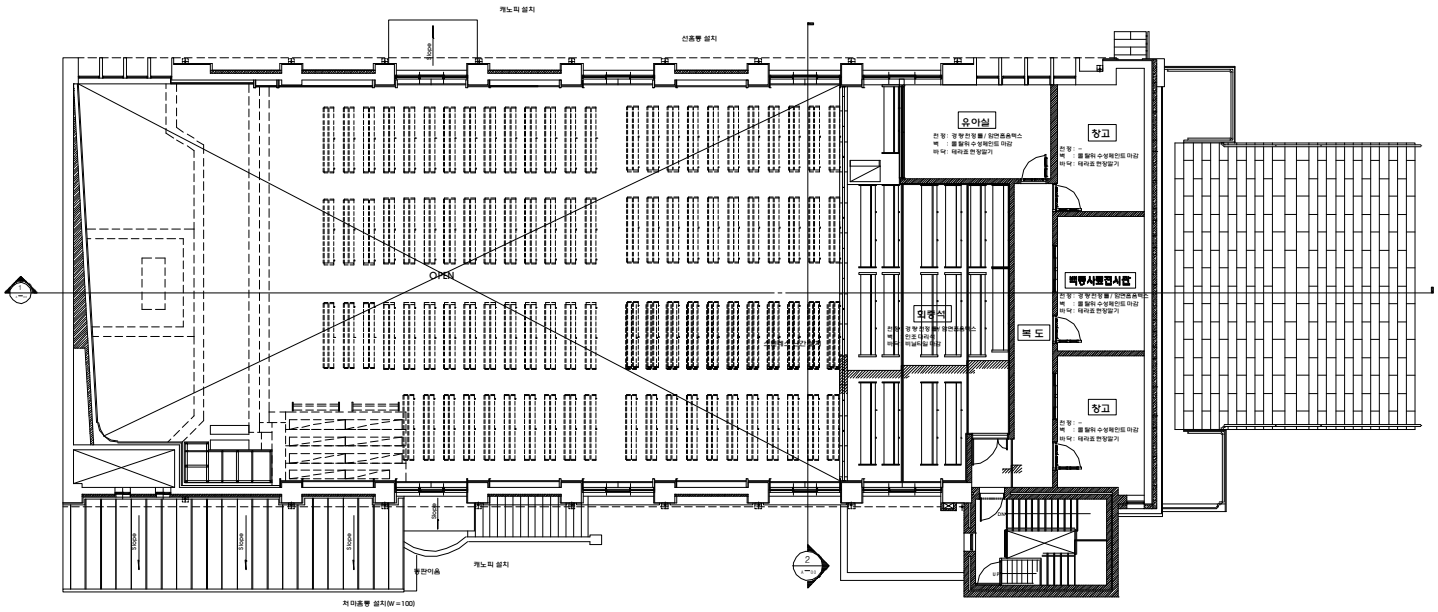


0 1 3 6 10M

지상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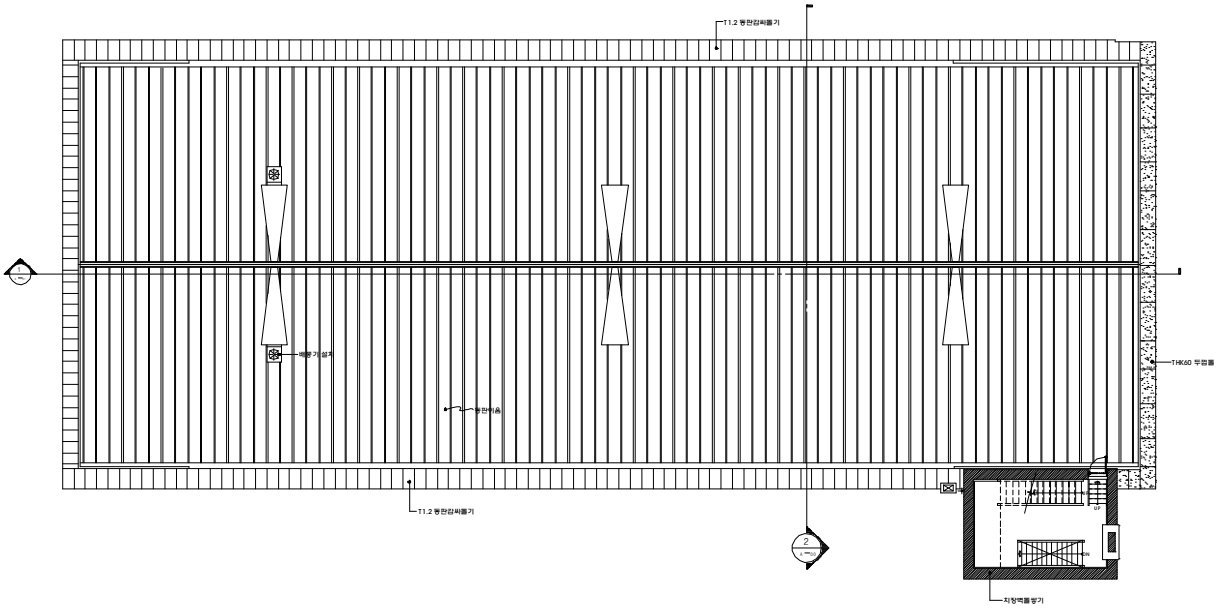

GL. + 3.45
인조대리석 마감
1ST FLOOR GL. + 3.90
1ST FLOOR GL. + 3.75
1ST FLOOR GL. + 4.20
제 대
천정 : 경량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벽 : 인조대리석 / 타일마감
회 중 석
천정 : 경량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벽 : 인조 대리석
바닥 : 화강석 물갈기
파이프 오르간
제 의 실
천정 : 경량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벽 : 무늬목
바닥 : 몰탈위 무늬목 깔기
성 가 대
천정 : 경량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벽 : 인조 대리석
DN
GL. + 0.50
창고
창고
1ST FLOOR GL. + 3.45
홀
천정 : 경량천정틀 / 암면흡음텍스
벽 : 인조 대리석
바닥 : 인조 대리석
GL. + 2.70
석재 마감
GL. + 3.45
내려감
GL. ± 0.00
석재 마감
석재 마감
석재 마감
DN
UP
0 1 3 6 10M

지상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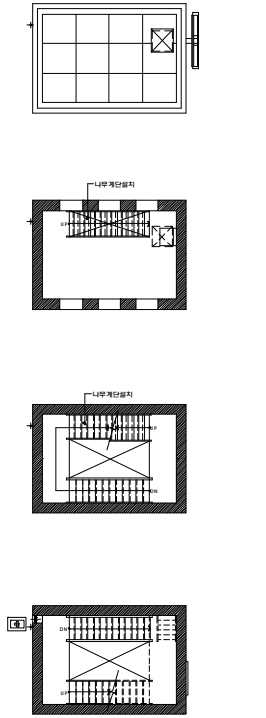


0 1 3 6 10M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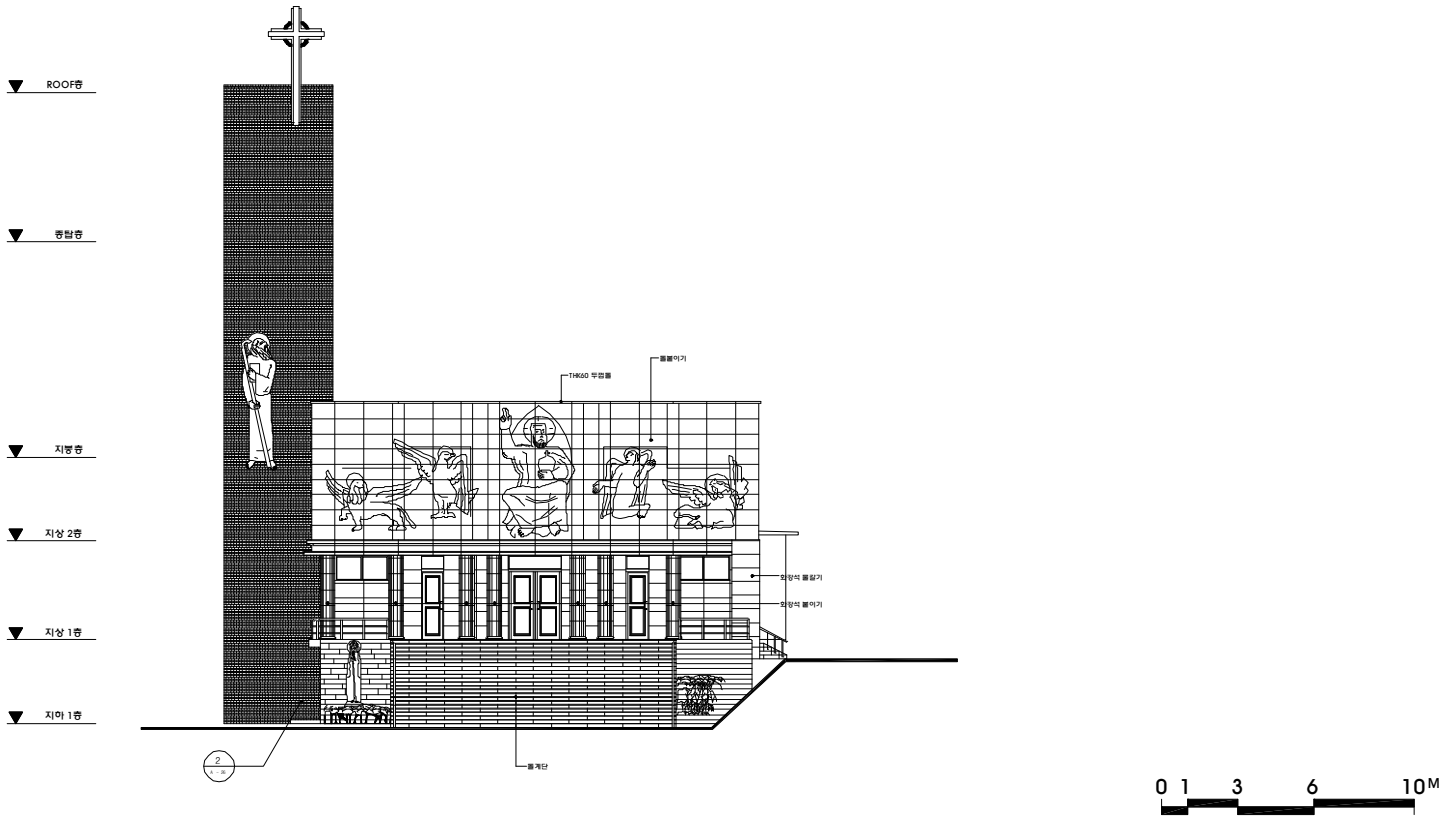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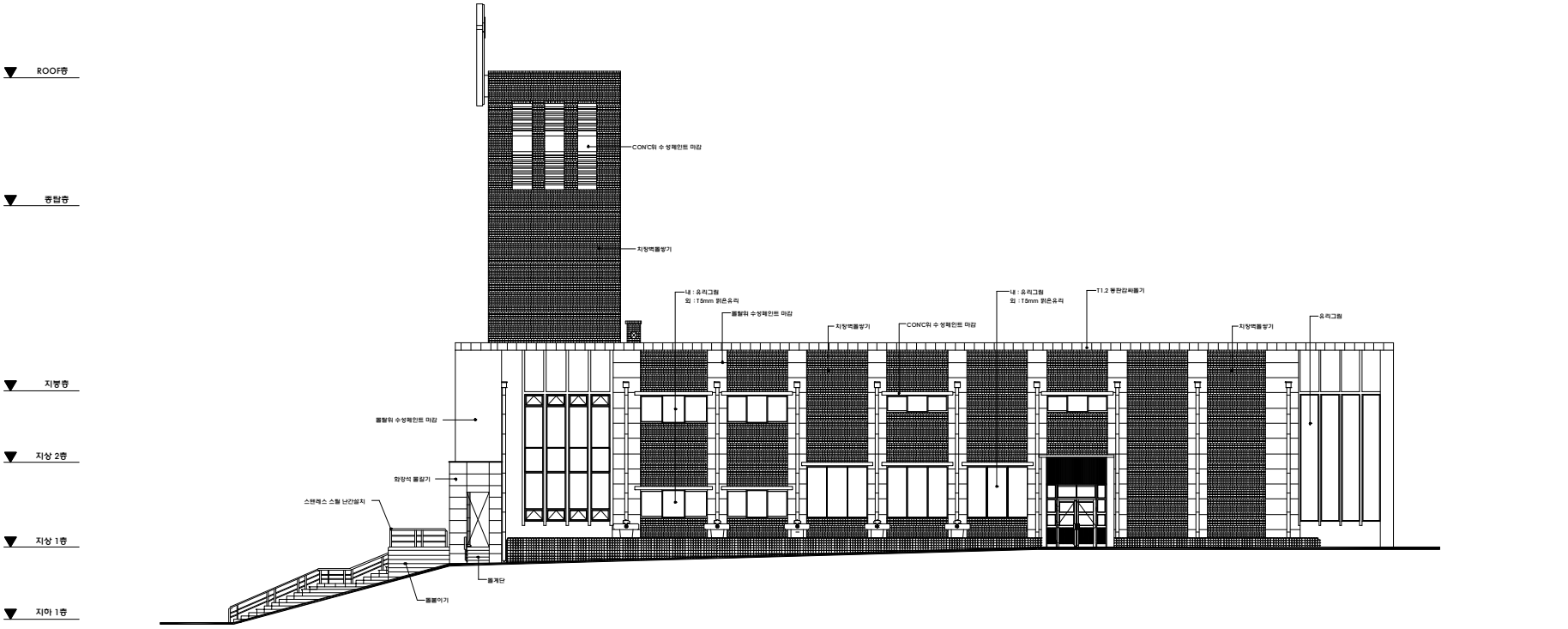
종탑 계단평면도

0 1 3 6 10M

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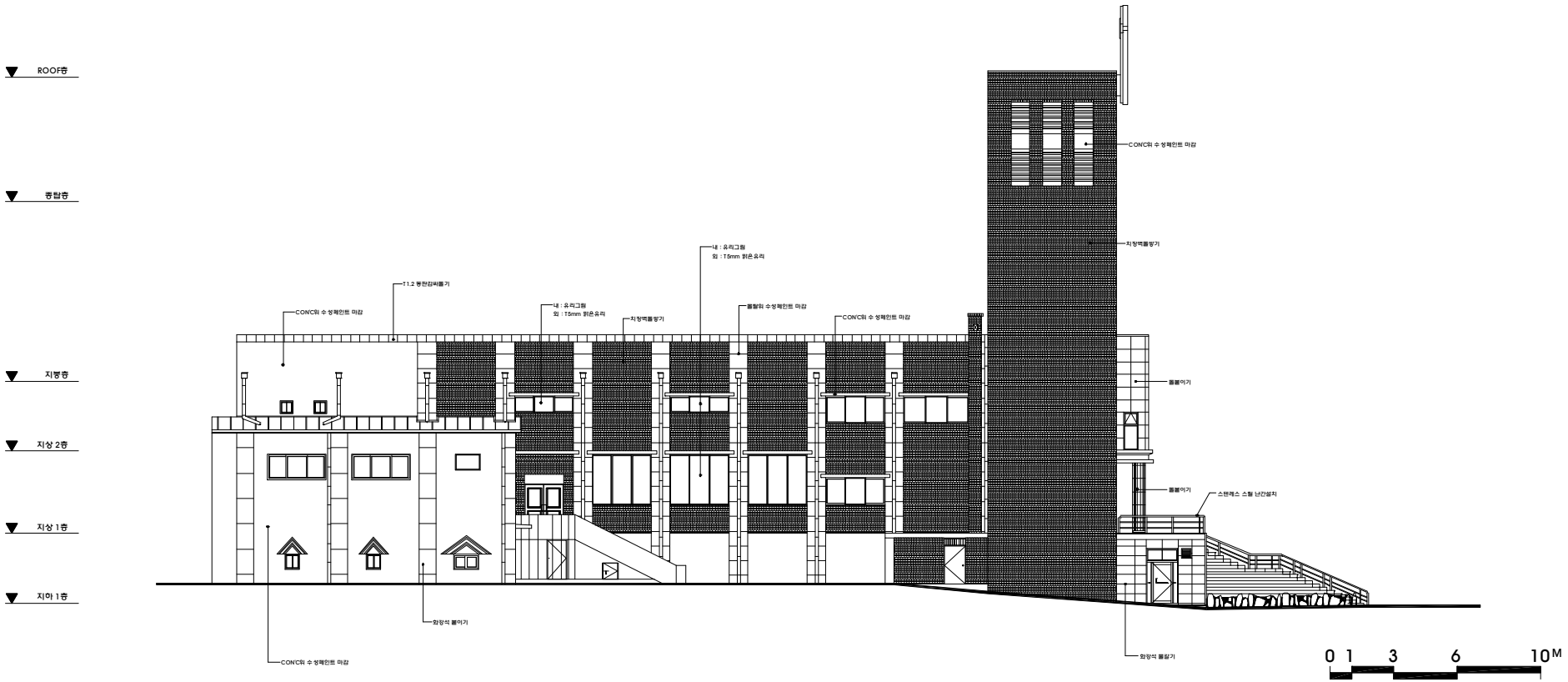

ROOF층
종탑층
지붕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THK60 무껍불
불불이기
화장석 불칠기
화장석 불이기
불계단
2
A - 36
0 1 3 6 10M

우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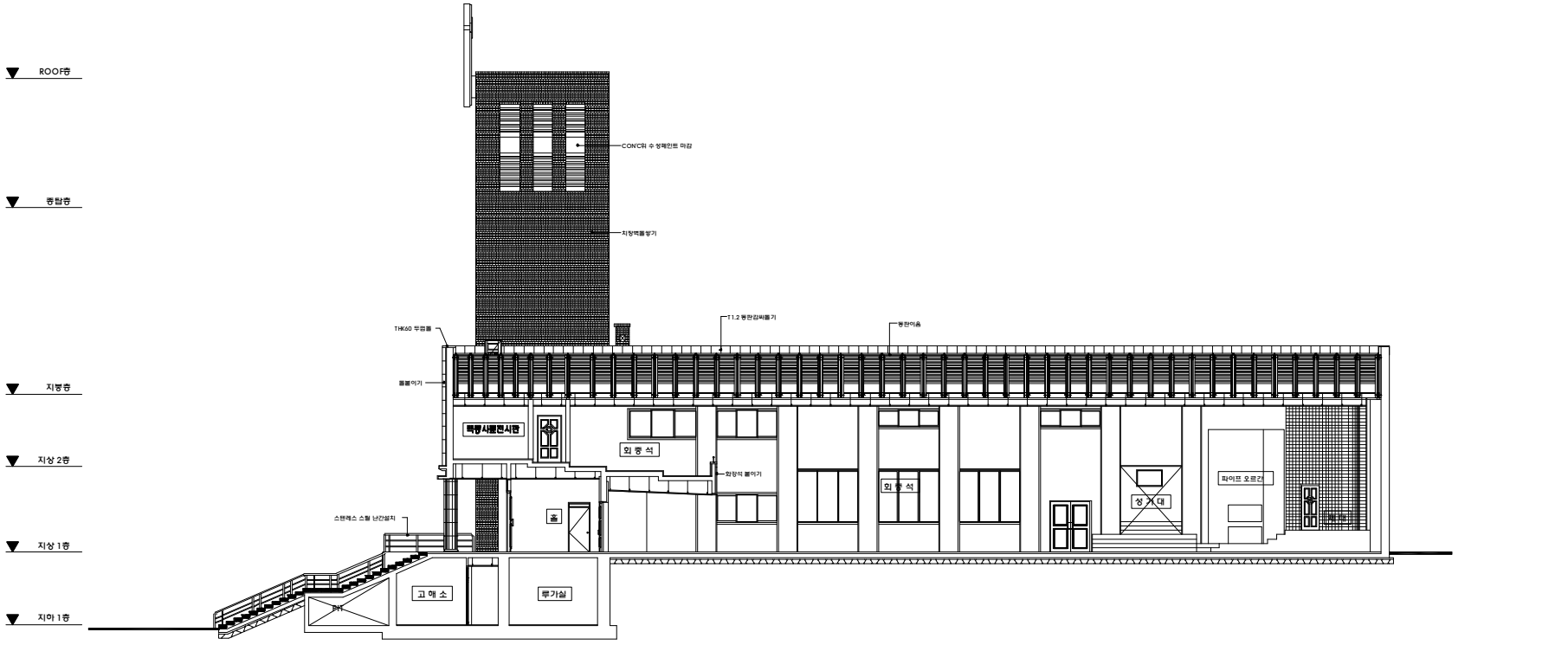
0 1 3 6 10M

좌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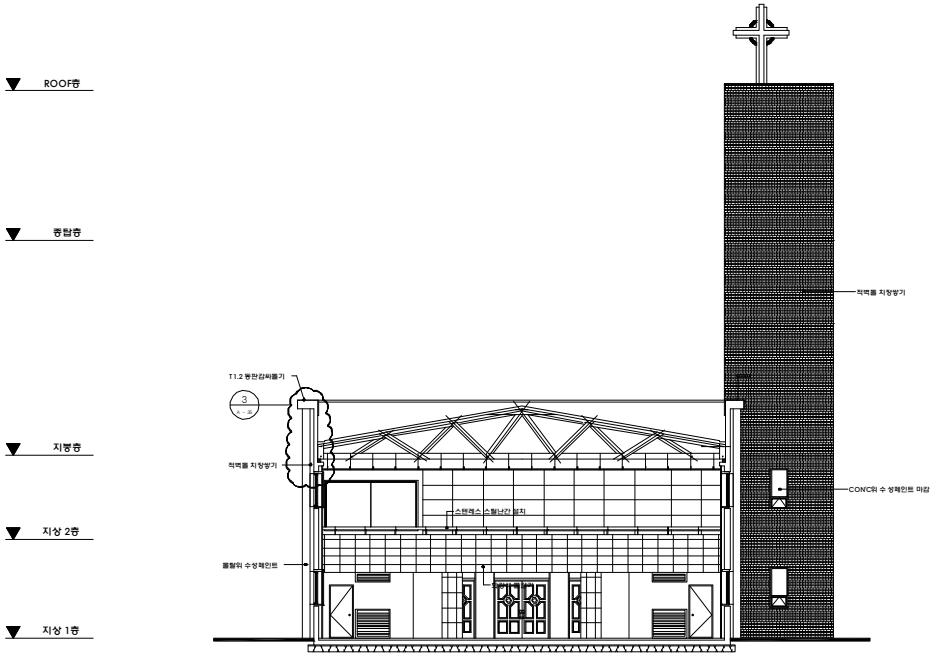
ROOF층
종탑층
지붕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CONC위 수 성체인트 마감
T1.2 동판감싸돌기
내 : 유리그림
외 : T5mm 밝은유리
지창벽돌방기
돌철위 수성체인트 마감
CONC위 수 성체인트 마감
CONC위 수 성체인트 마감
지창벽돌방기
돌붙이기
돌붙이기
스텐레스 스틸 난간설치
화강석 붙이기
CONC위 수 성체인트 마감
화강석 돌갈기
0 1 3 6 10M

종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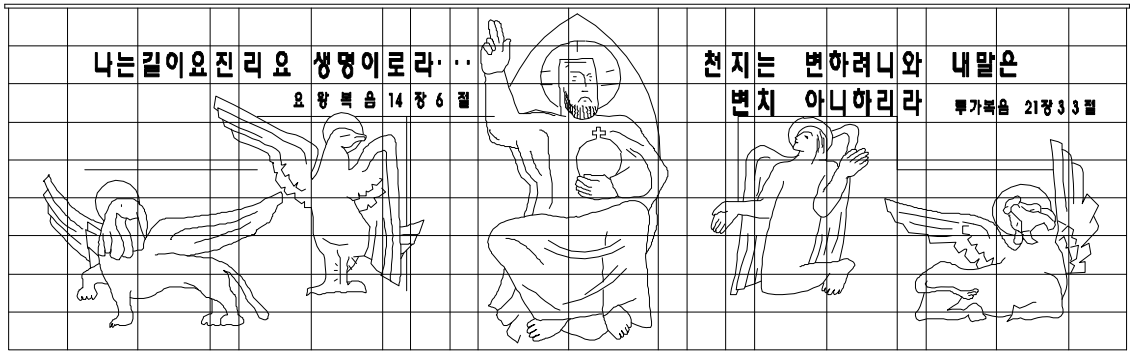
0 1 3 6 10M

횡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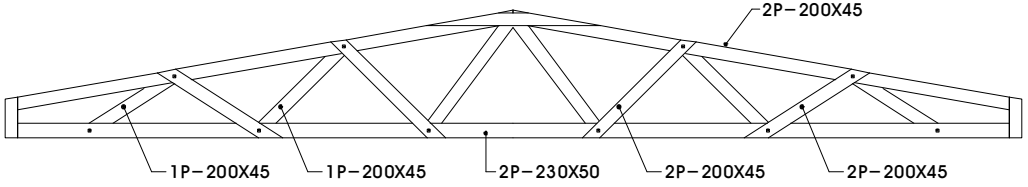
0 1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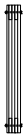
전면돌 패턴도


나는길이요진리요 생명이로라···
요 한 복 음 14 장 6 절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말은
변치 아니하리라
루가복음 21장 33절

0
1
3
6
1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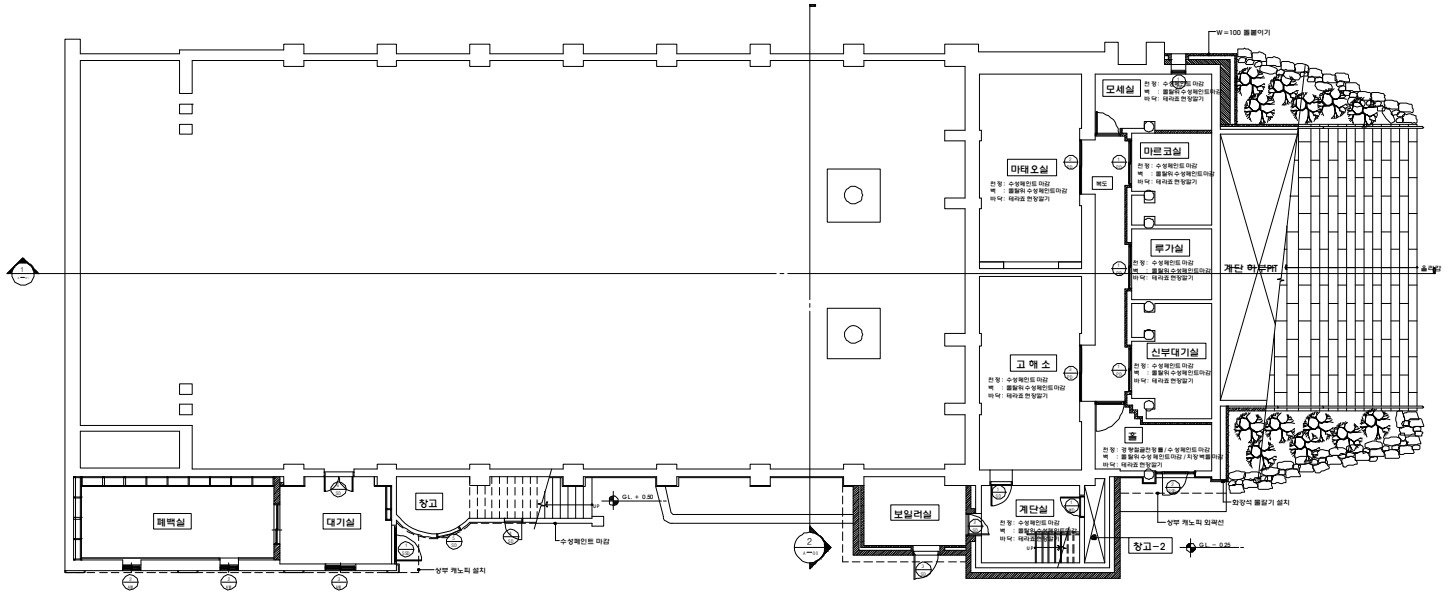
트러스 실측도


2P-200X45
1P-200X45
1P-200X45
2P-230X50
2P-200X45
2P-200X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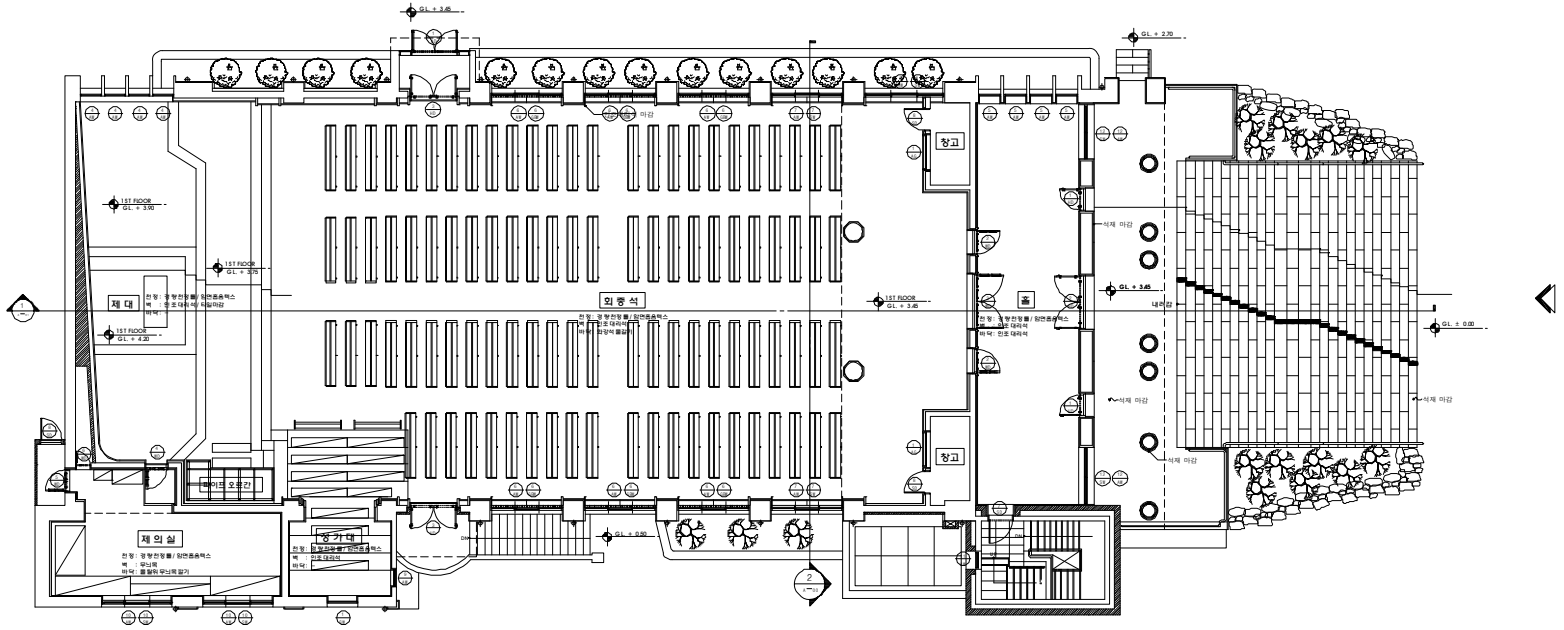
0
1
3
6
10
M

지하1층 창호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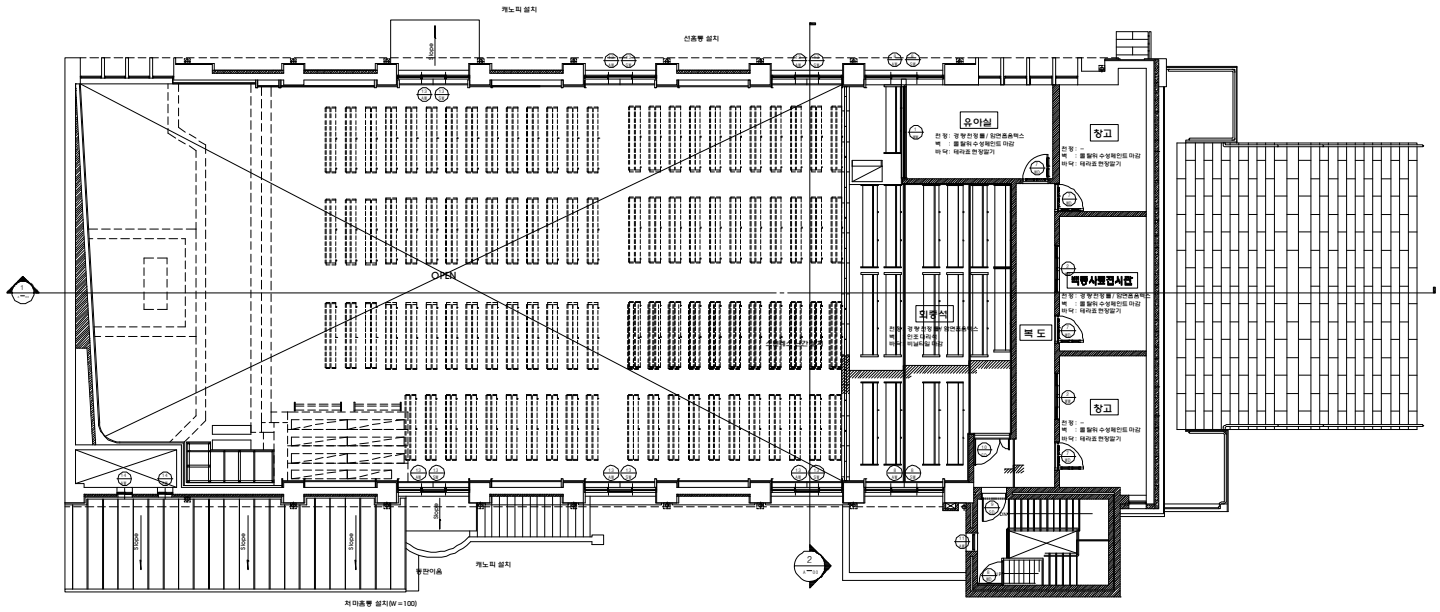
0 1 3 6 10M

지상1층 창호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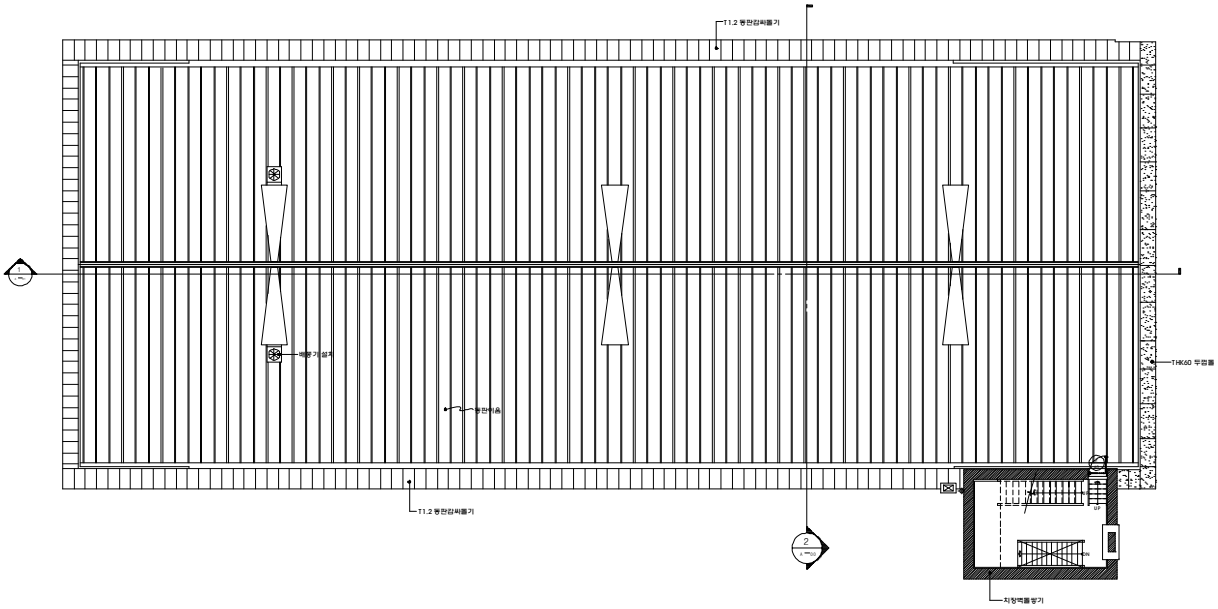
0 1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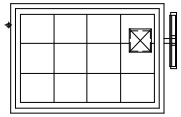
지상2층 창호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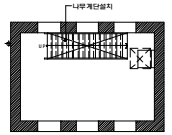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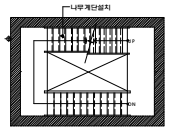
0 1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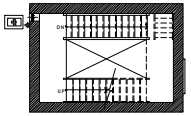
지붕 창호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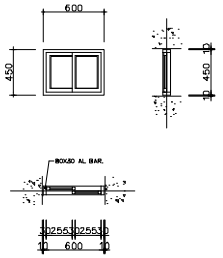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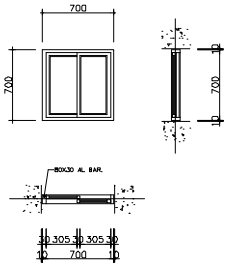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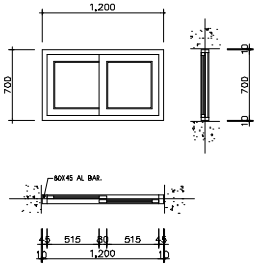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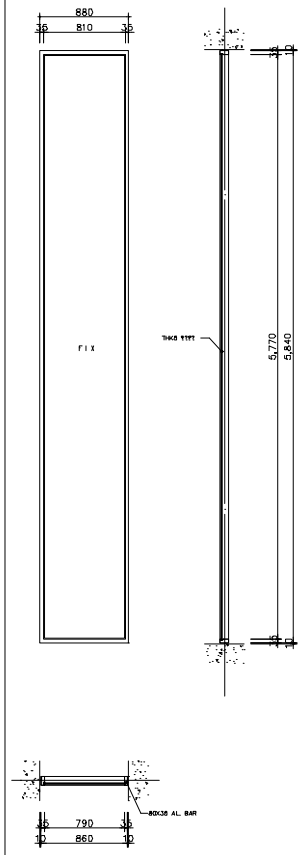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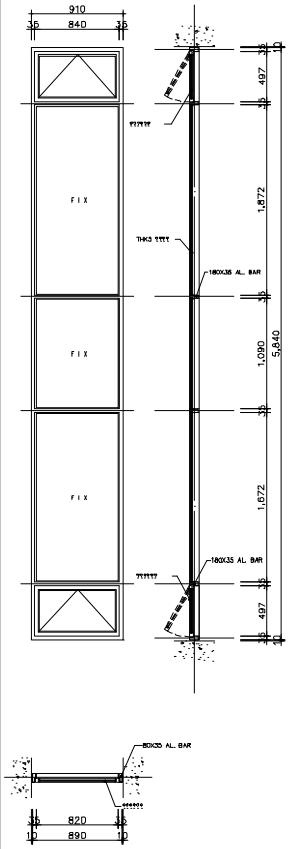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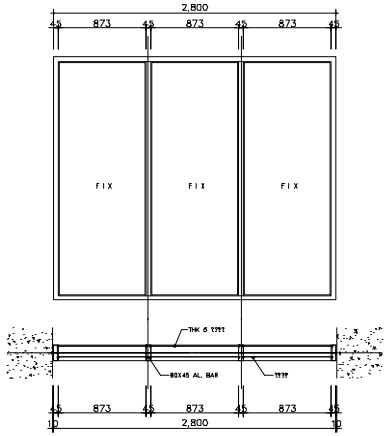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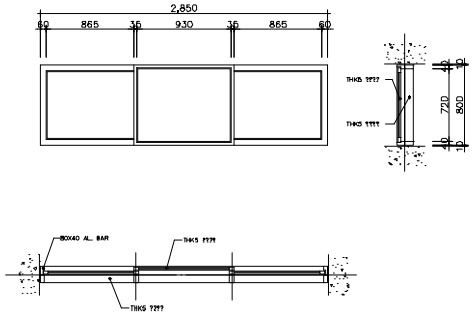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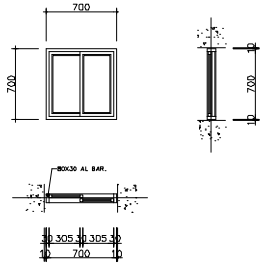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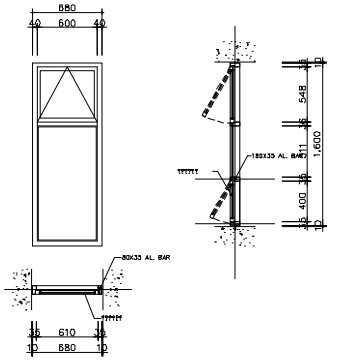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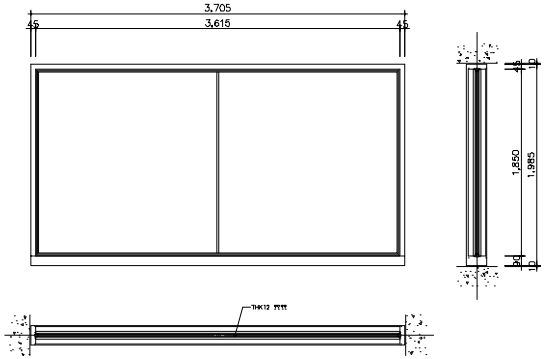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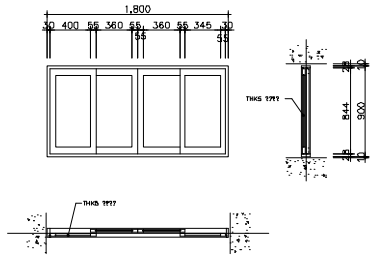
0 1 3 6 10M

형 태		형 태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1	모세실 알루미늄 창	재 료	2	메백실 알루미늄창	재 료	3	대기실 알루미늄창	재 료	4	제대 유리 그림창	재 료	5	1층 홀 유리그림창
마 감	AW	지정색 도장	마 감	AW	지정색 도장	마 감	AW	지정색 도장	마 감	AW	지정색 도장	마 감	AW	지정색 도장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형 태														
재 료	6	6	외풍식 알루미늄 창 / 유리그림											
마 감	AW	GBW	지정색 도장											
유 리			5MM 맑은유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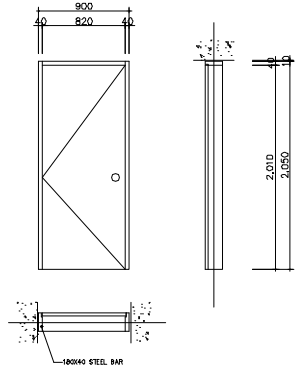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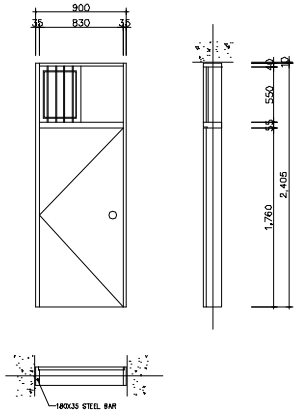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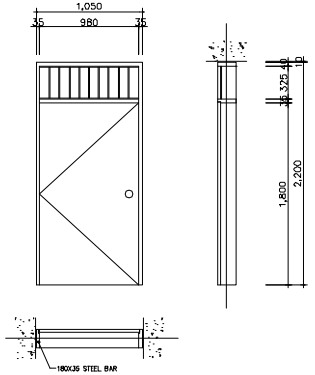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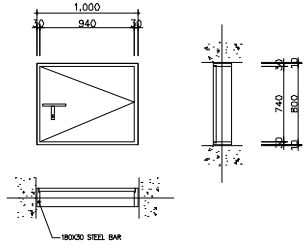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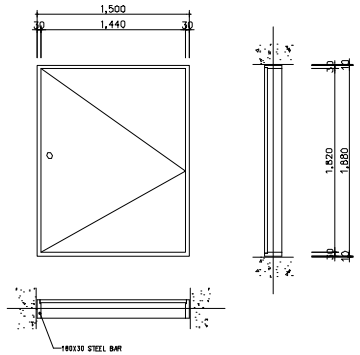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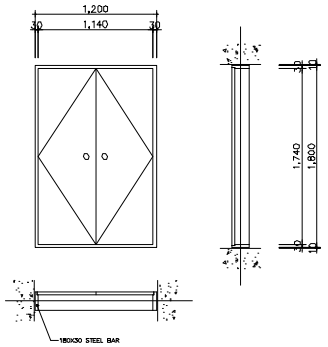
창호일람표-1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7 7 외풍식 알루미늄 창 / 유리그림	재 료	8 8 외풍식 알루미늄 창 / 유리그림	재 료	9 성기대 알루미늄 창 / 미서기창
마 감	AW SW 지정색 도장	마 감	AW SW 지정색 도장	마 감	AW 지정색 도장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10 10 제의실 알루미늄 창 / 유리그림	재 료	11 계단실 알루미늄 창	재 료	12 12 1층 홀 알루미늄 창 / 유리그림
마 감	AW SW 지정색 도장	마 감	AW 지정색 도장	마 감	AW SW 지정색 도장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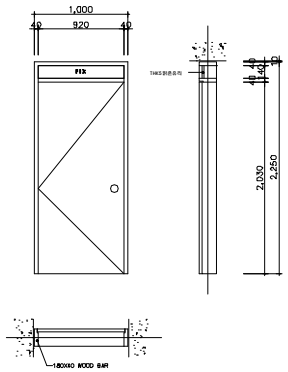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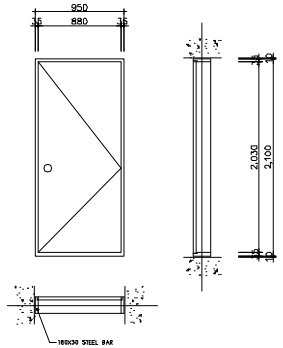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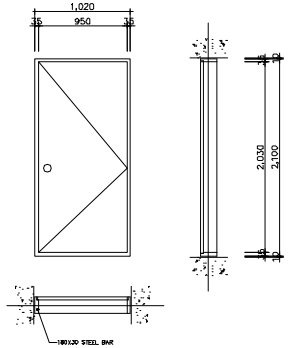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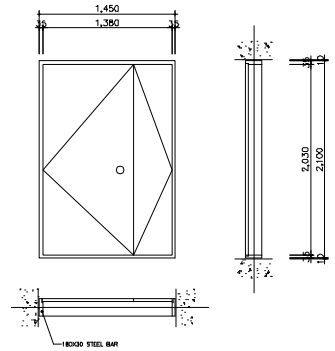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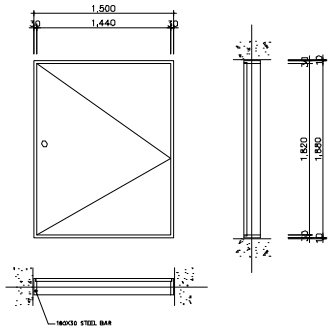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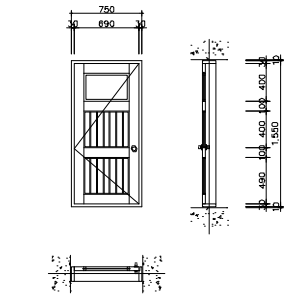
창호일람표-2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13 13 외풍식 알루미늄 창 / 유리그림	재 료	14 제의실 알루미늄 창	재 료	15 창고 알루미늄창 / 미서기창
마 감	AW SW 지정색 도장	마 감	AW 지정색 도장	마 감	AW 지정색 도장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1 유아실 목재틀	재 료	2 창고 및 백동사료전시관 목재 미서기창	재 료	
마 감	WW 지정색 도장	마 감	WW 지정색 도장	마 감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5MM 맑은유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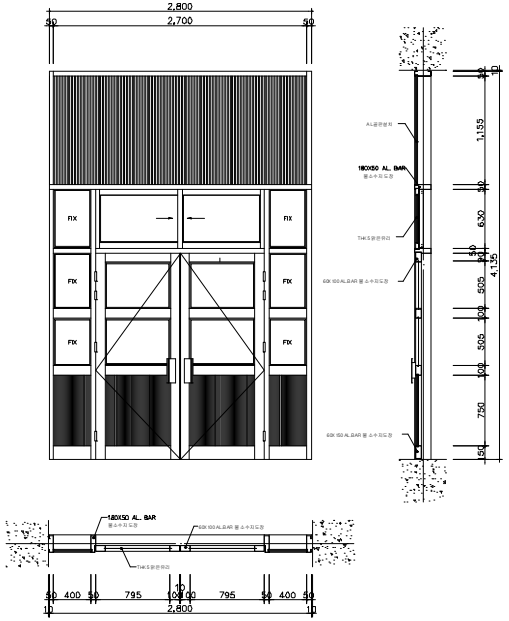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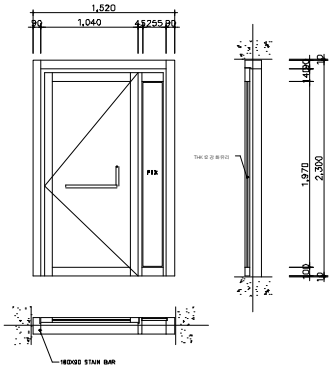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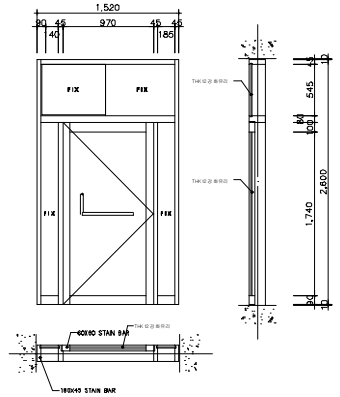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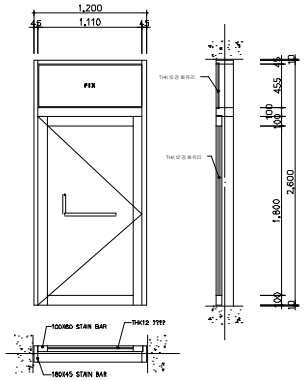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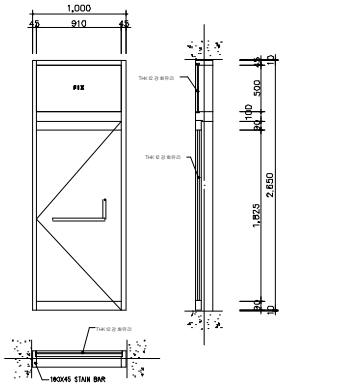
창호일람표-3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1 철제문 (계단실)	재 료	2 철제문 (계단실 – 보일러실)	재 료	3 철제문 (외부 – 보일러실)
마 감	SD 지정색 도장	마 감	SD 지정색 도장	마 감	SD 지정색 도장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4 철제문 (외부 – 창고)	재 료	5 철제문 (외부 – 창고)	재 료	6 철제문 (대기실 – 창고)
마 감	SD 지정색 도장	마 감	SD 지정색 도장	마 감	SD 지정색 도장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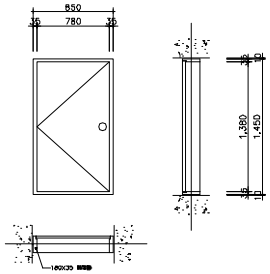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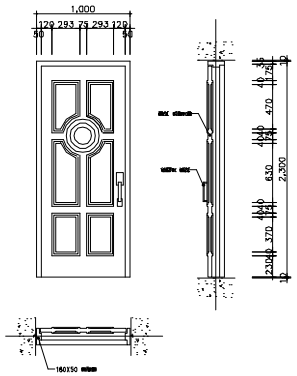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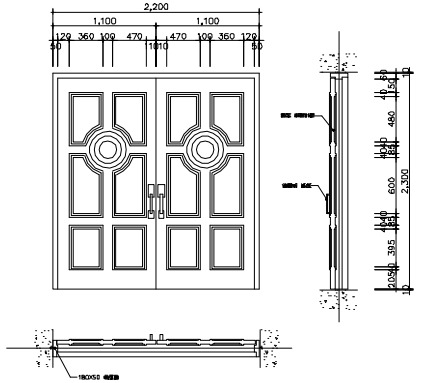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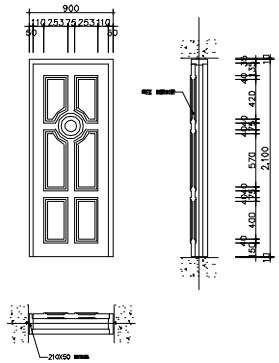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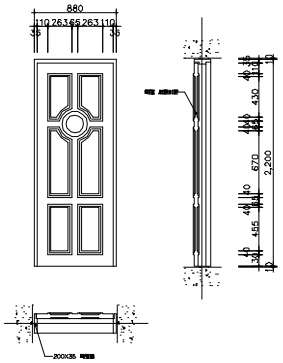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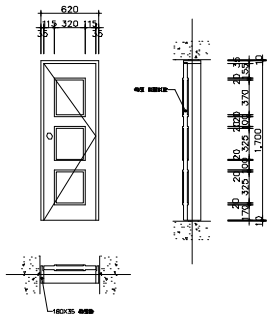
창호일람표-4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7 철제문 (홀 – 계단실)	재 료	8 철제문 (외풍석 – 창고,외부 – 복도)	재 료	9 철제문 (복도 – 계단실)
마 감	SD 지정색 도장	마 감	SD 지정색 도장	마 감	SD 지정색 도장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10 철제문 (홀 – 외풍석(2중))	재 료	5 철제문 (외부 – 창고)	재 료	2 알루미늄문 (계단실 – 지붕)
마 감	SD 지정색 도장	마 감	SD 지정색 도장	마 감	AD 지정색 도장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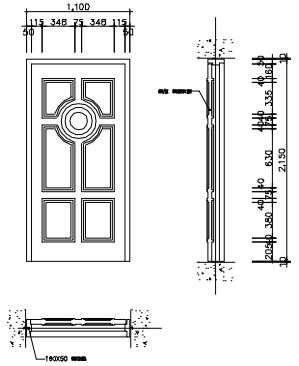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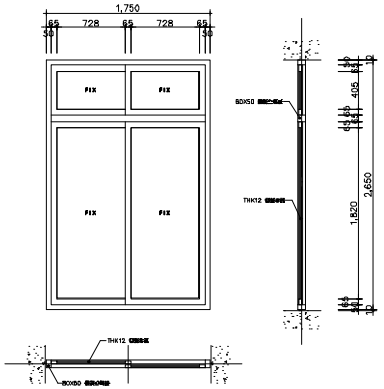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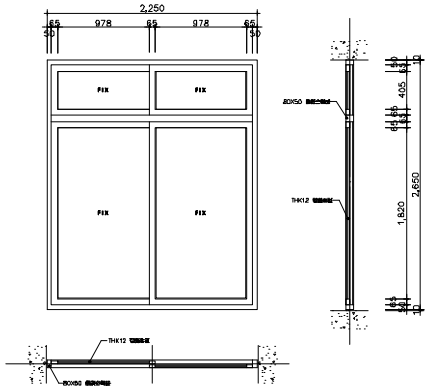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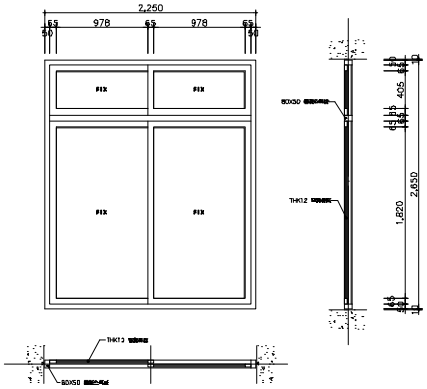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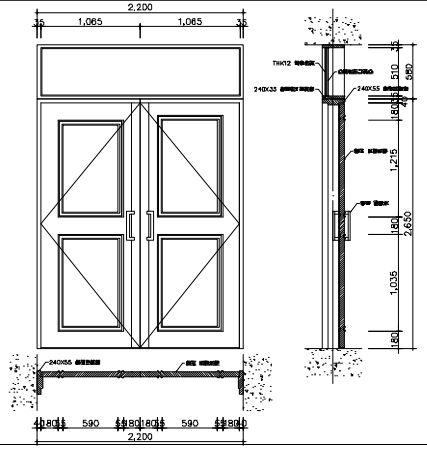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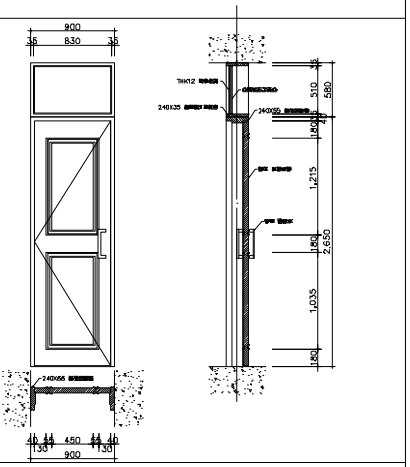
창호일람표 – 4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1	알루미늄문 (1층 외풍석 – 외부)	재 료	1	스테인레스 문 (외부 – 대기실)	재 료	2	스테인레스 문 (외부 – 홈)
마 감	AD	지정색 도장	마 감	SSD	지정색 도장	마 감	SSD	지정색 도장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형 태			형 태					
재 료	3	스테인레스 문 (홈 – 복도)	재 료	4	스테인레스 문 (복도 – 모세실)			
마 감	SSD	지정색 도장	마 감	SSD	지정색 도장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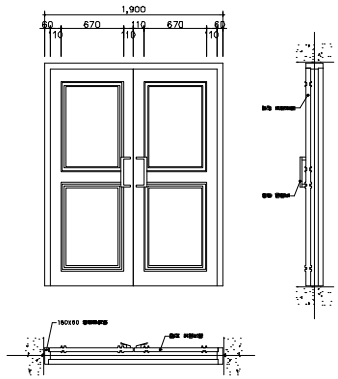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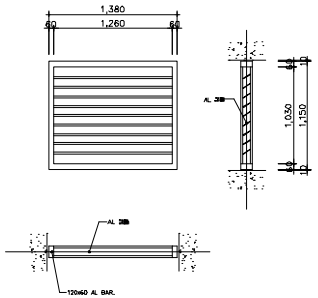
창호일람표 – 5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1 목재문 (계단실 – 창고)	재 료	2 목재문 (홈 – 회중석(1층))	재 료	3 목재문 (홈 – 회중석(1층))
마 감	WD 지정색 도장	마 감	WD 지정색 도장	마 감	WD 지정색 도장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4 목재문 (제대 – 제의실)	재 료	5 철재문 (제의실 – 전실)	재 료	6 목재문 (제의실 – 창고)
마 감	WD 지정색 도장	마 감	WD 지정색 도장	마 감	WD 지정색 도장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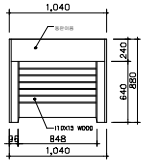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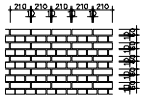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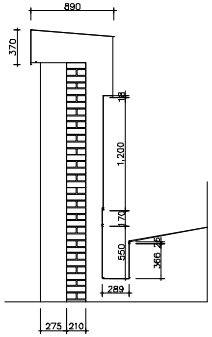
창호일람표-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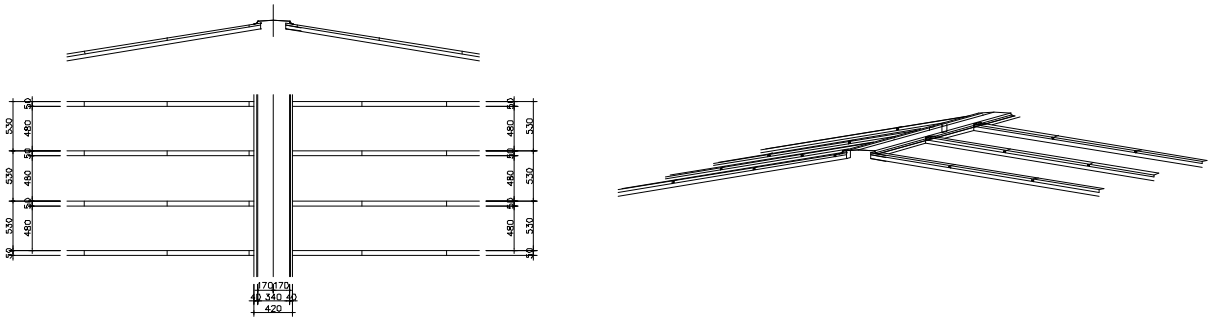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7 목재문 (복도 – 창고, 박동사료전시관, 유아실)	재 료	1 플라스틱 문 (복도 – 신부대기실, 루가실, 마르코실)	재 료	2 플라스틱 문 (복도 – 마태오실)
마 감	WD 지정색 도장	마 감	PD 지정색 도장	마 감	PD 지정색 도장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3 플라스틱 문 (복도 – 고해실)	재 료	1 한지도어 (외부 – 홈)	재 료	2 한지도어 (외부 – 홈)
마 감	PD 지정색 도장	마 감	HD 지정색 도장	마 감	HD 지정색 도장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창호일람표 – 7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3 인지도어 (1종 외중석 - 외부)	재 료	1 그릴창 (1종 외중석 - 창고)	재 료	
마 감	HD 지정색 도장	마 감	AG 지정색 도장	마 감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부속철물 일체	철 물	
형 태		형 태		형 태	
재 료		재 료		재 료	
마 감		마 감		마 감	
유 리		유 리		유 리	
철 물		철 물		철 물	

창호일람표-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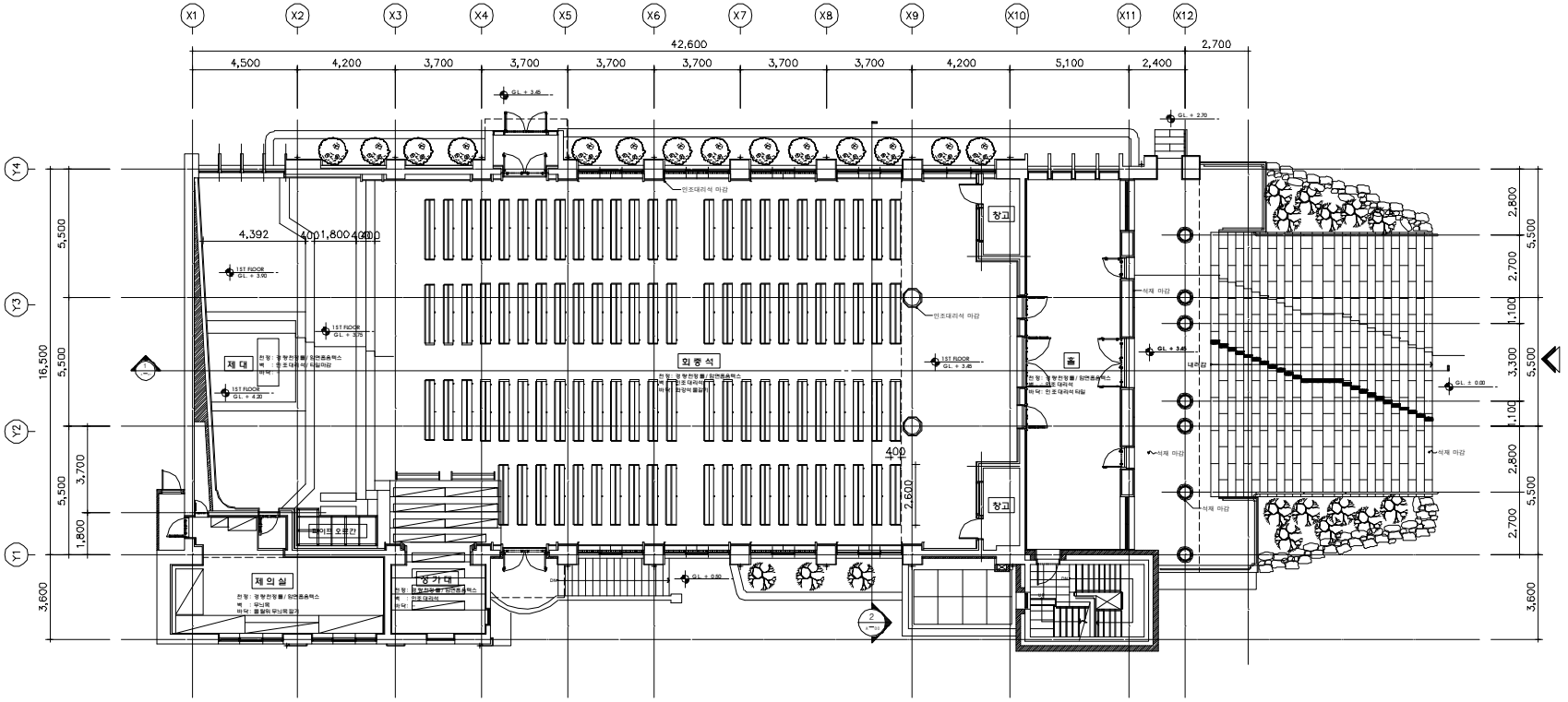
형 태		형 태		형 태					
									
위 치	1 지붕층	위 치	2 지하층 정면	위 치	3 지붕층	위 치	5 지상2층		
명 칭	DA 환풍구 창 상세도	명 칭	DA 중탑부위 치장벽돌 상세도	명 칭	DA 지붕층 배수구 단면 상세도	명 칭	DA 돌덩 상세도		



위 치	4 지붕층
명 칭	DA 지붕층 동판이음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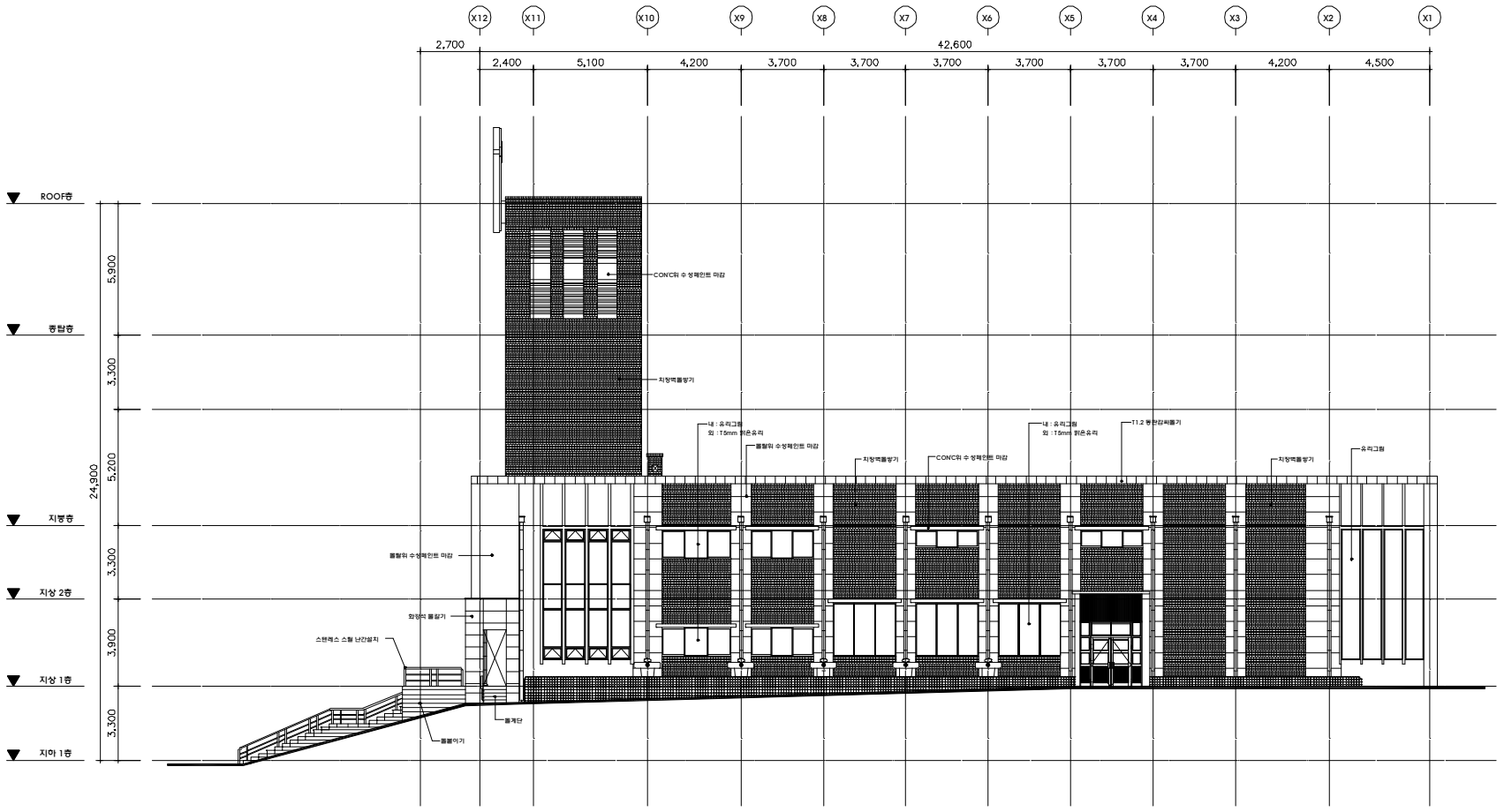
각부상세도

지상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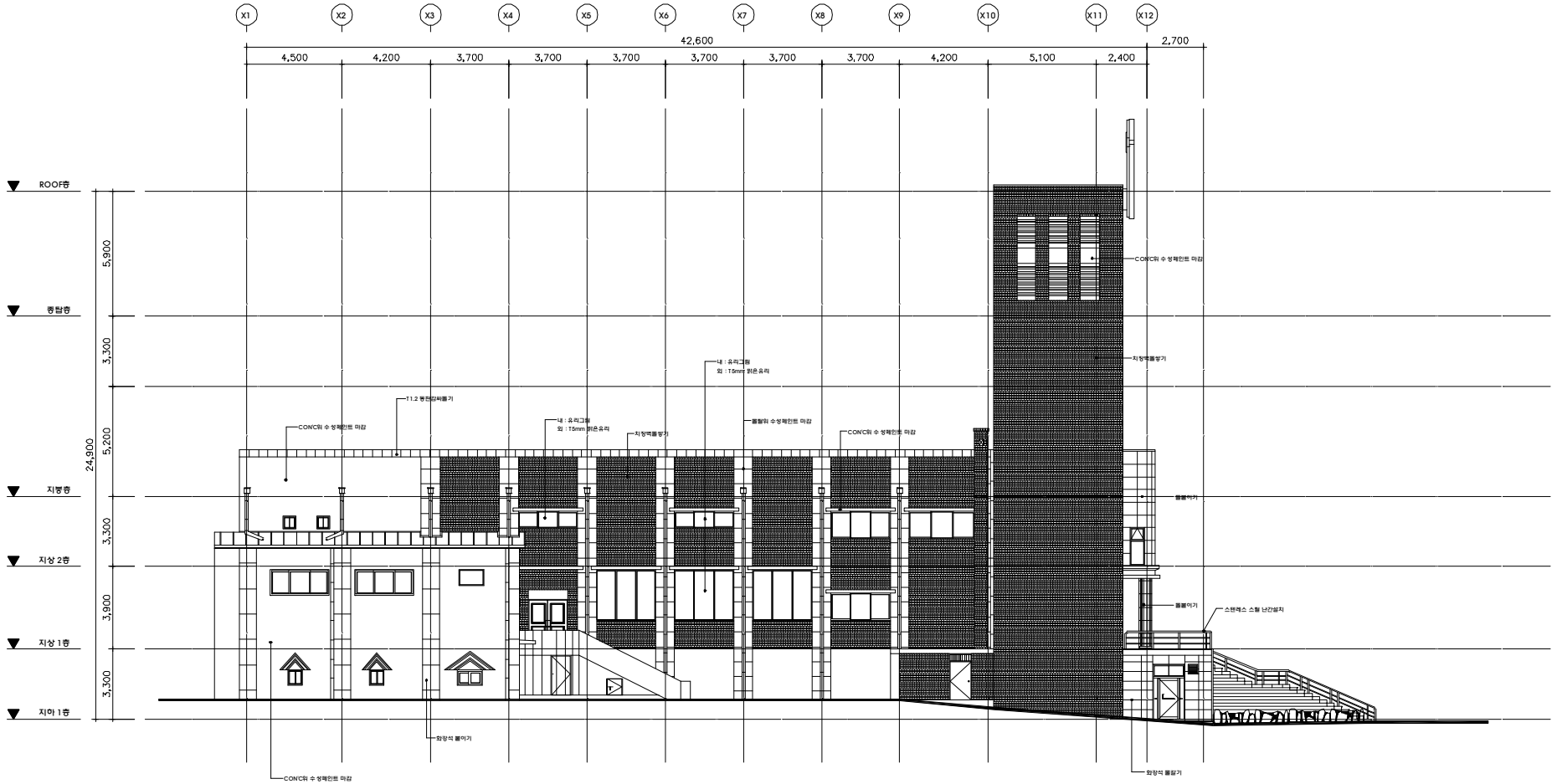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2,600
2,700
4,500
4,2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200
5,100
2,400
Y4
Y3
Y2
Y1
16,500
5,500
5,500
3,700
1,800
3,600
2,800
2,700
1,100
3,300
1,100
2,800
2,700
5,500
5,500
5,500
3,600
4,392
400
1,800
400
400
2,600
400
창고
창고
제 대
회 중 석
홀
제 의 실
엉 가 대
인조대리석 마감
석재 마감
내려감

우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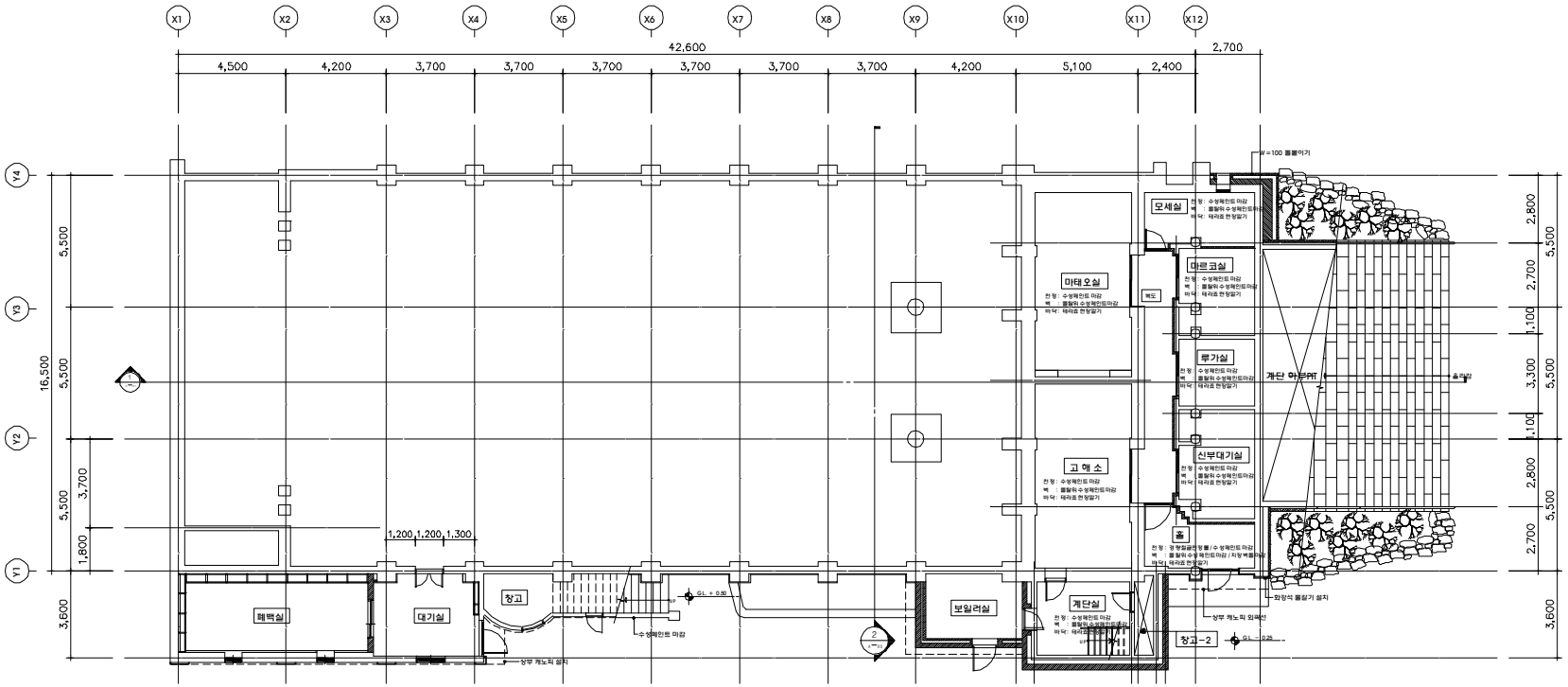
X12
X11
X10
X9
X8
X7
X6
X5
X4
X3
X2
X1
2,700
42,600
2,400
5,100
4,2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200
4,500
ROOF층
종탑층
지붕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5,900
3,300
5,200
3,300
3,900
3,300
24,900
CONC위 수성페인트 마감
지창벽돌쌓기
내 : 유리그림
외 : T5mm 위은유리
돌철위 수성페인트 마감
지창벽돌쌓기
CONC위 수성페인트 마감
내 : 유리그림
외 : T5mm 위은유리
T1.2 평판강화돌기
지창벽돌쌓기
유리그림
돌철위 수성페인트 마감
외장석 돌칠기
스텐레스 스틸 난간설치
돌계단
돌붙이기

좌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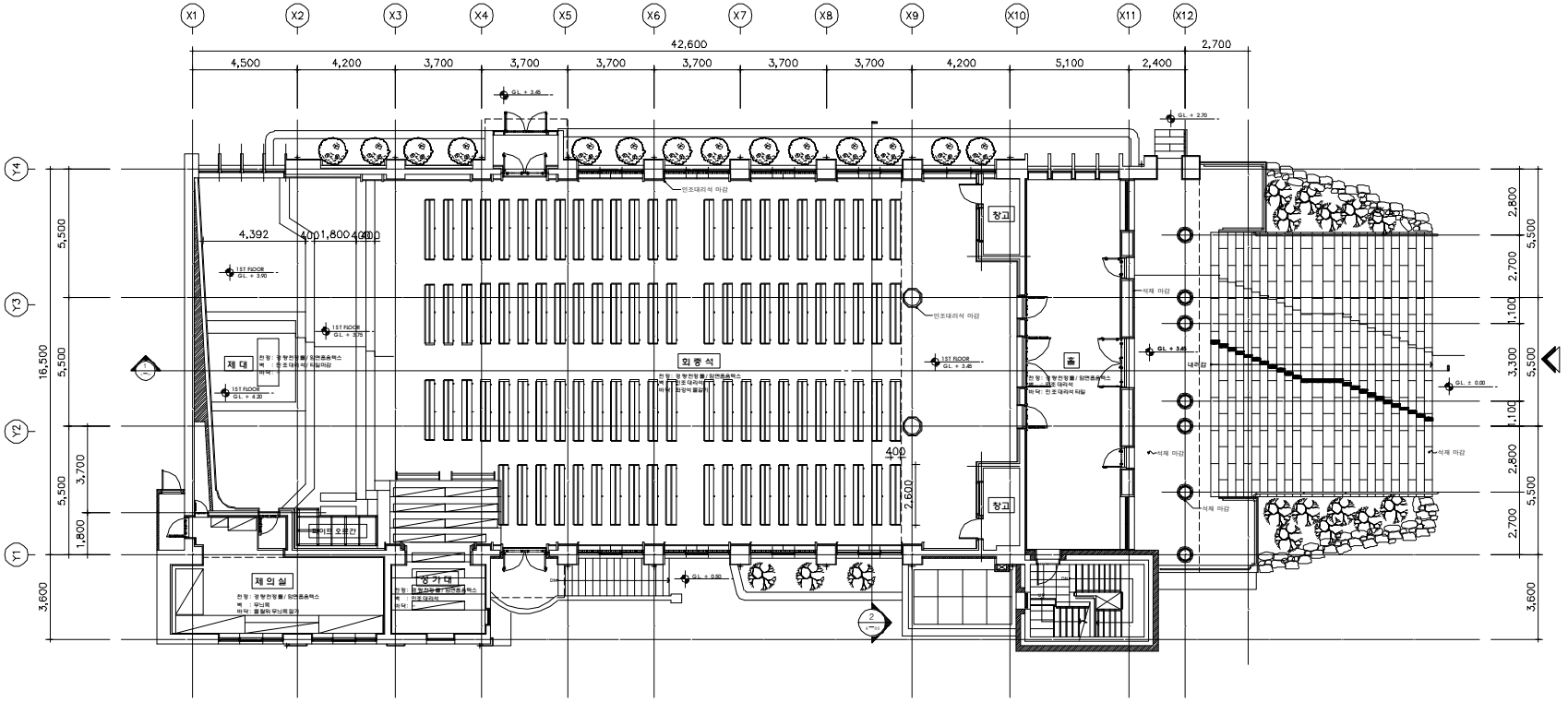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2,600
2,700
4,500
4,2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200
5,100
2,400
ROOF층
종탑층
지붕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24,900
5,900
3,300
5,200
3,300
3,900
3,300
CON'C위 수 성체인트 마감
T1.2 동편감싸돌기
내 : 유리그림
외 : T5mm 밝은유리
지창벽돌쌓기
돌붙이기
스텐레스 스틸 난간설치
와장석 붙이기

지하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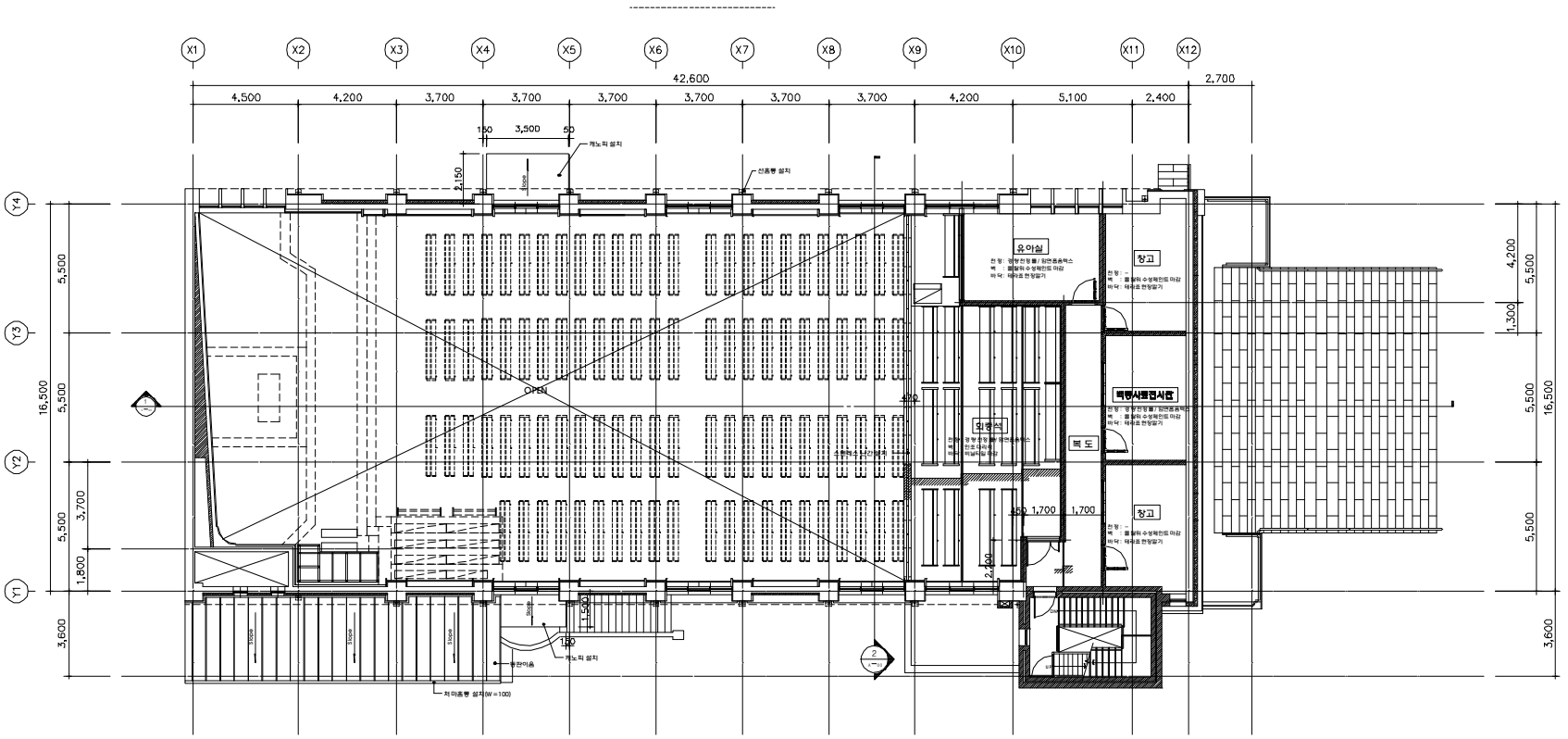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2,600
2,700
4,500
4,2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200
5,100
2,400
Y4
Y3
Y2
Y1
16,500
5,500
5,500
5,500
3,700
1,800
3,600
2,800
2,700
1,100
3,300
1,100
2,800
2,700
3,600
1,200
1,200
1,300
W=100 물붙이기
모세실
마르코실
마태오실
뿌기실
신부대기실
고 해 소
홀
계단실
보일러실
창고
대기실
폐백실
창고-2
계단 하부PIT
홀라감
GL + 0.50
GL - 0.25
수성페인트 마감
상부 캐노피 설치
상부 캐노피 외곽선

지상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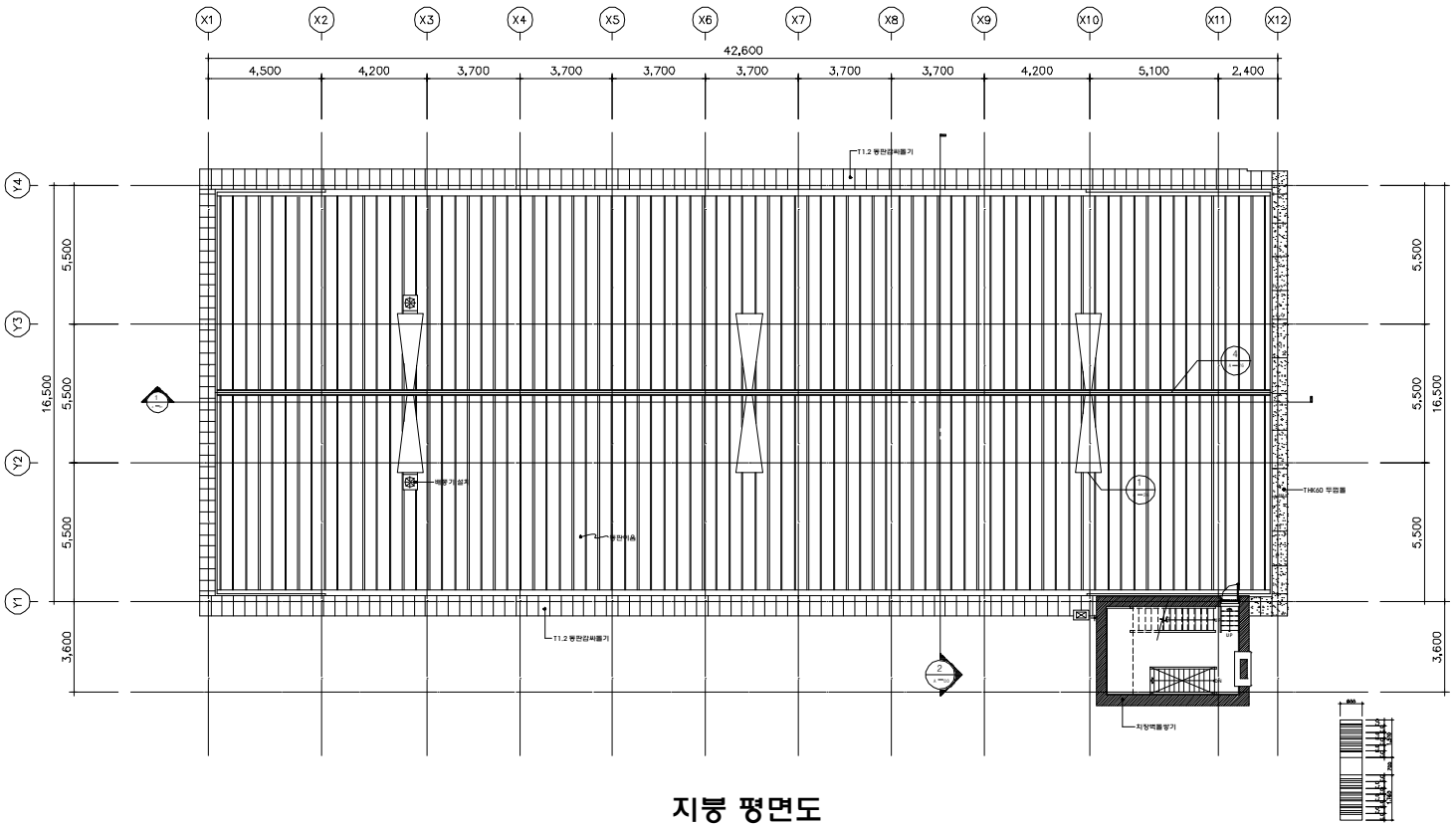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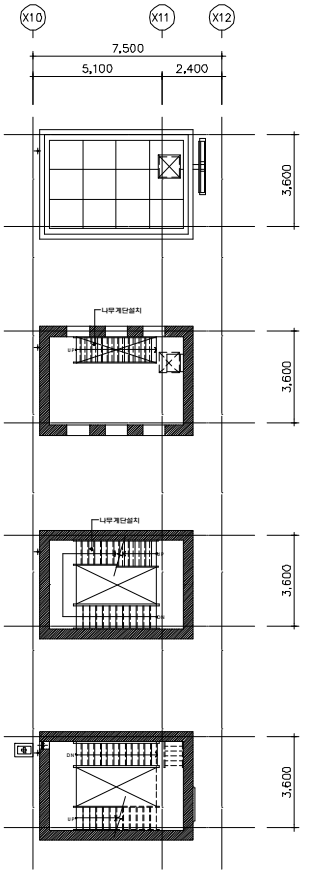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2,600
2,700
4,500
4,2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200
5,100
2,400
Y4
Y3
Y2
Y1
16,500
5,500
5,500
3,700
1,800
3,600
2,800
2,700
1,100
3,300
1,100
2,800
2,700
5,500
5,500
5,500
3,600
4,392
400
1,800
400
400
2,600
400
창고
창고
제 대
회 중 석
홀
제 의 실
엉 가 대
인조대리석 마감
석재 마감
내려감

지상2층평면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2,600
2,700
4,500
4,2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200
5,100
2,400
Y4
Y3
Y2
Y1
16,500
5,500
5,500
5,500
3,700
1,800
3,600
4,200
5,500
1,300
5,500
16,500
5,500
3,600
150
3,500
50
캐노피 설치
2,150
선홈통 설치
OPEN
420
요양실
창고
휴게실
김영식
복 도
특무사법전시관
창고
150
1,700
1,700
2,700
1,500
150
캐노피 설치
우편이송
저 마홈통 설치(W=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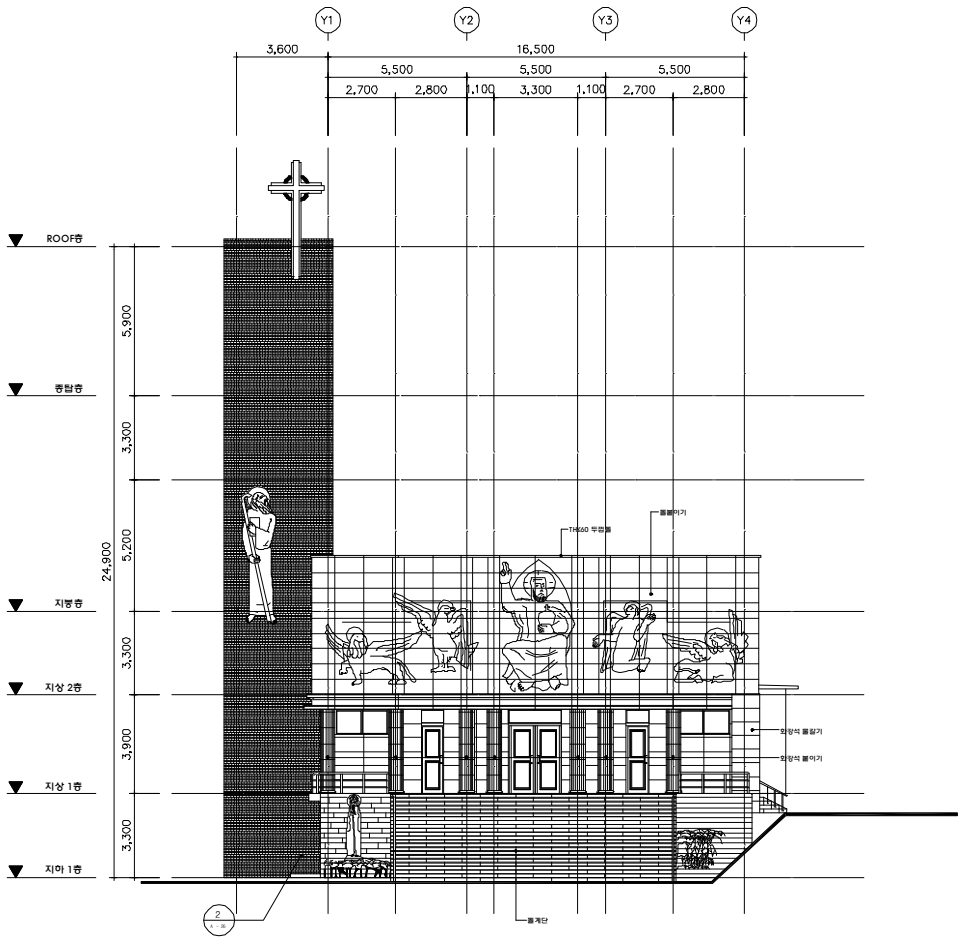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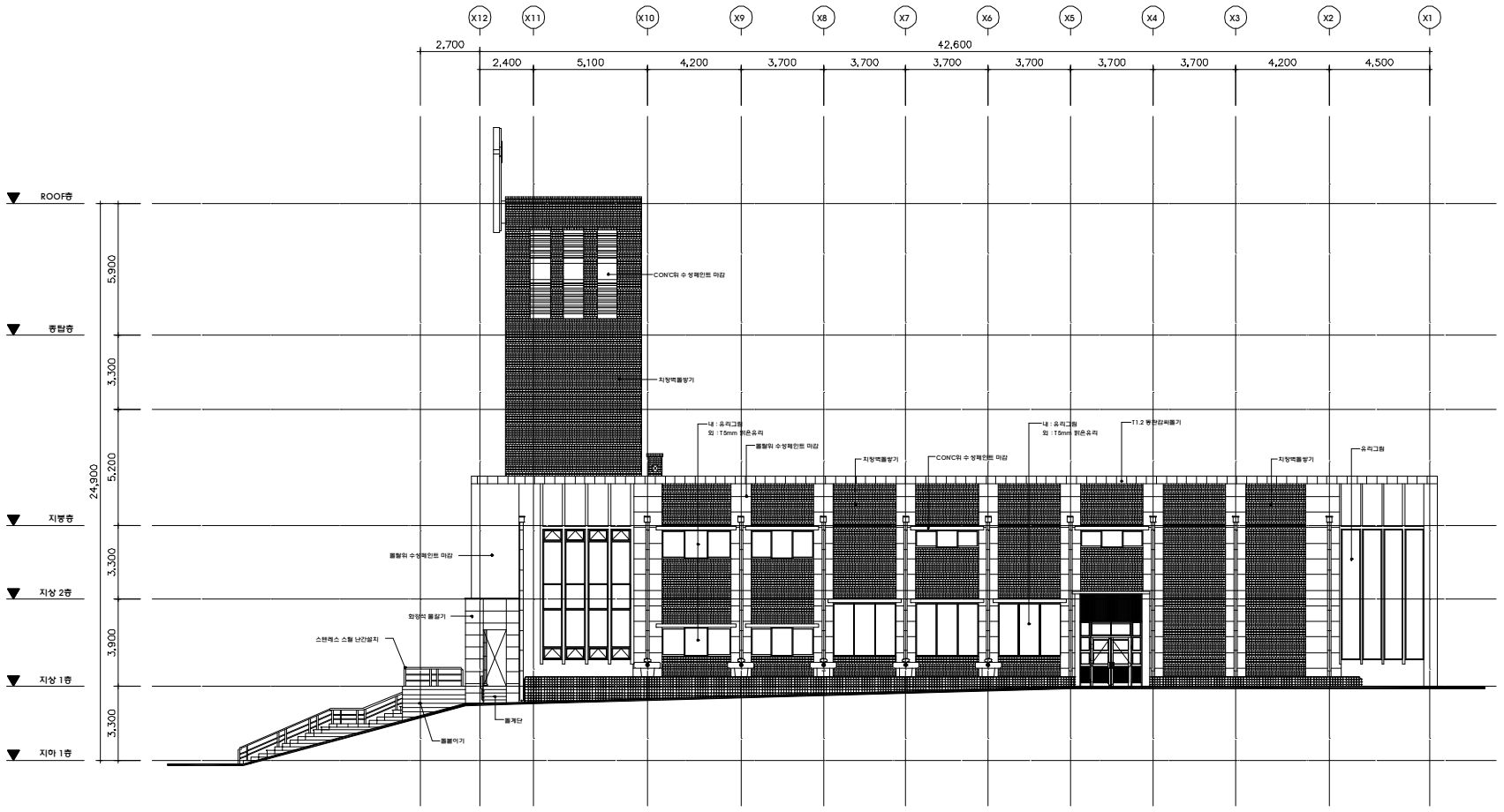
종탑 계단평면도

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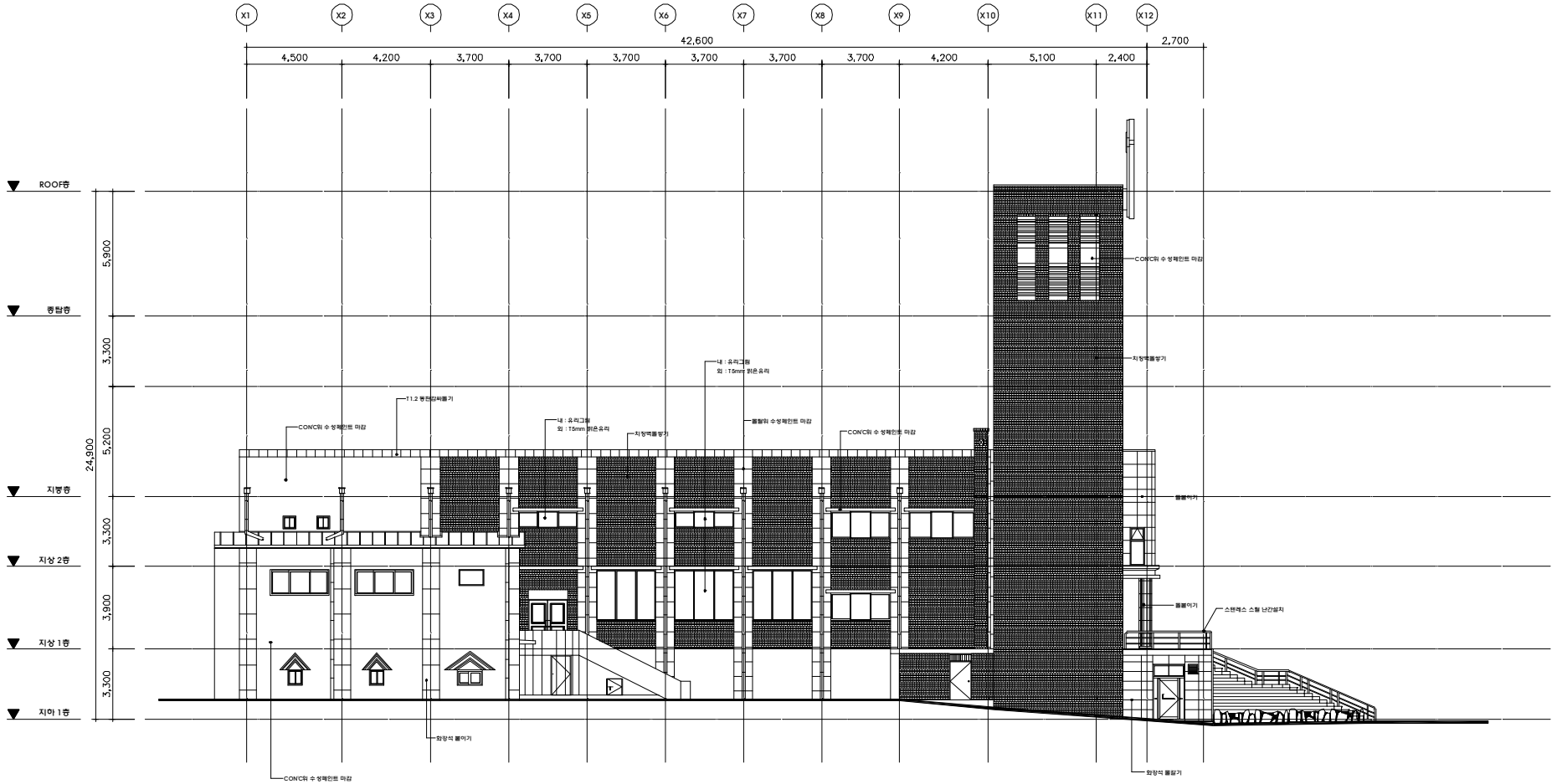
Y1
Y2
Y3
Y4
3,600
16,500
5,500
5,500
5,500
2,700
2,800
1,100
3,300
1,100
2,700
2,800
ROOF층
종탑층
지붕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5,900
3,300
5,200
3,300
3,900
3,300
24,900
TH650 부등률
물홈마기
화장석 물질기
화장석 홈마기
물계단
2

우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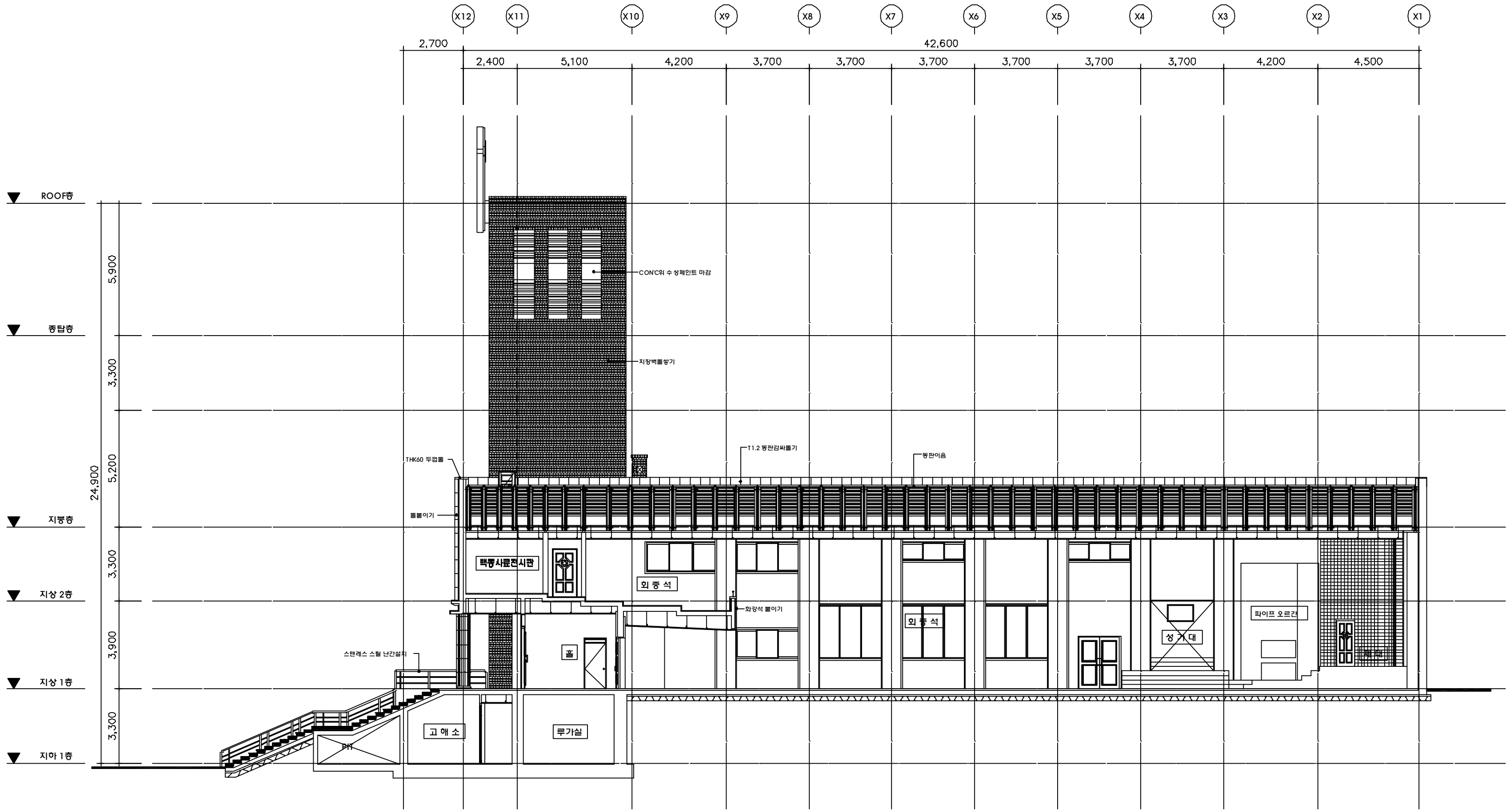
X12
X11
X10
X9
X8
X7
X6
X5
X4
X3
X2
X1
2,700
42,600
2,400
5,100
4,2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200
4,500
ROOF층
종탑층
지붕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5,900
3,300
5,200
3,300
3,900
3,300
24,900
CONC위 수성페인트 마감
지창벽돌쌓기
내 : 유리그림
외 : T5mm 위은유리
돌철위 수성페인트 마감
지창벽돌쌓기
CONC위 수성페인트 마감
내 : 유리그림
외 : T5mm 위은유리
T1.2 평판강화돌기
지창벽돌쌓기
유리그림
돌철위 수성페인트 마감
화장석 돌칠기
스텐레스 스틸 난간설치
돌계단
돌붙이기

좌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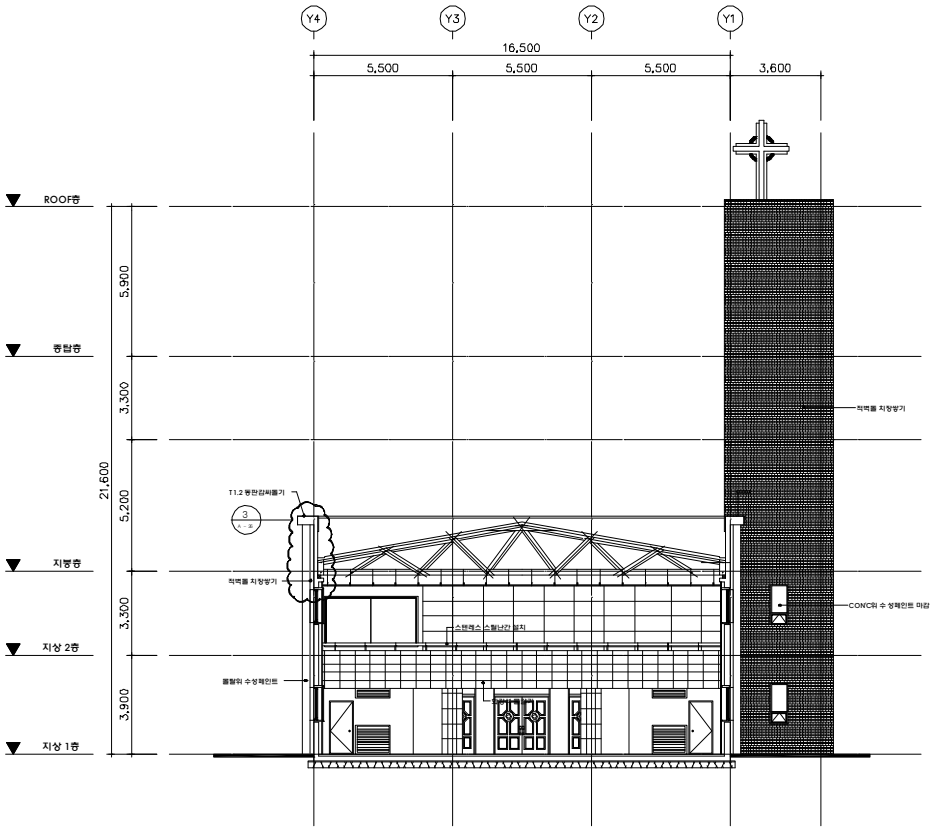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42,600
2,700
4,500
4,2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200
5,100
2,400
ROOF층
종탑층
지붕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24,900
5,900
3,300
5,200
3,300
3,900
3,300
CON'C위 수 성체인트 마감
T1.2 동편감싸돌기
내 : 유리그림
외 : T5mm 밝은유리
지창벽돌쌓기
돌붙이기
스텐레스 스틸 난간설치
와장석 붙이기

종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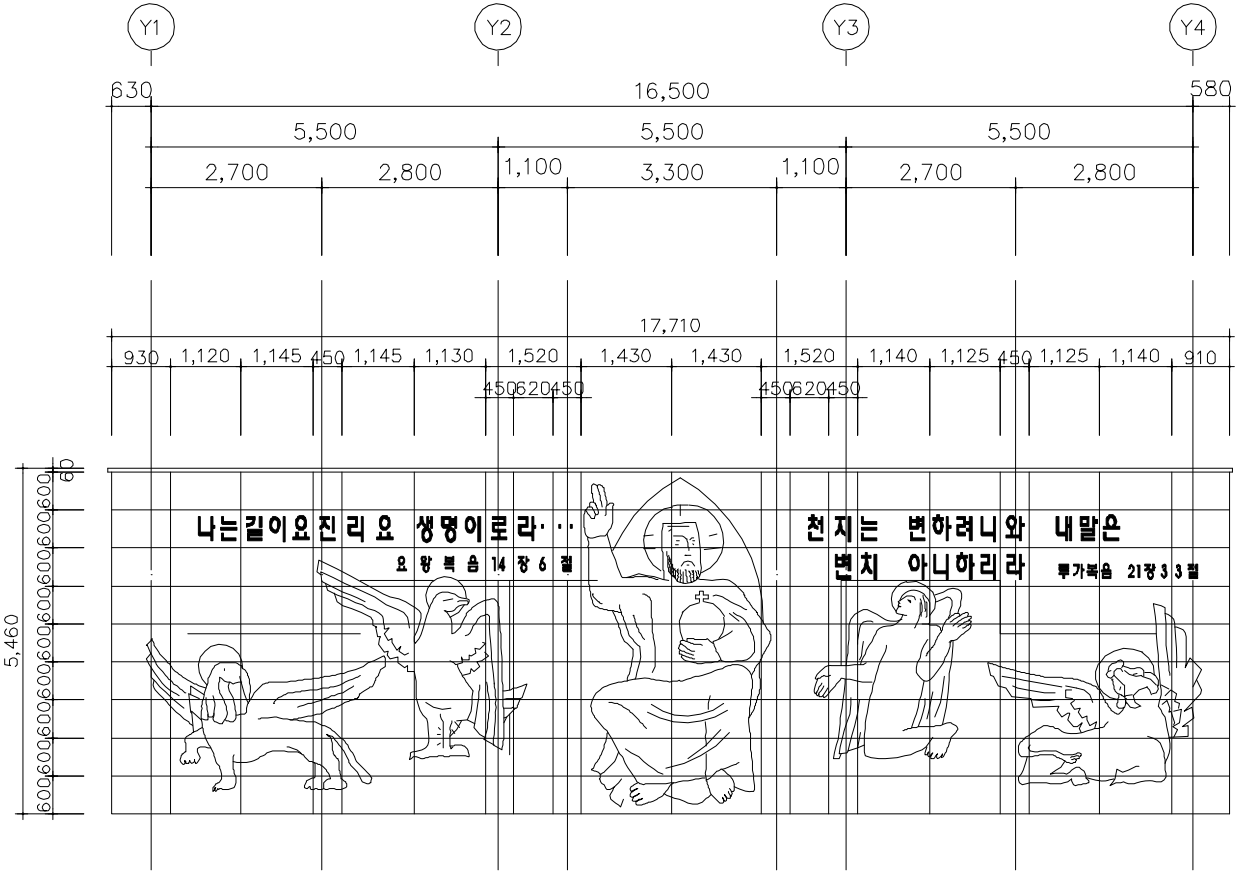
X12
X11
X10
X9
X8
X7
X6
X5
X4
X3
X2
X1
2,700
42,600
2,400
5,100
4,200
3,700
3,700
3,700
3,700
3,700
3,700
4,200
4,500
ROOF층
종탑층
지붕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5,900
3,300
5,200
24,900
3,300
3,900
3,300
CON'C위 수 성페인트 마감
치장벽돌쌓기
THK60 두껍돌
T1.2 동판감싸돌기
동판이음
돌붙이기
백종사료전시관
회 중 석
화강석 붙이기
회 중 석
성 가 대
파이프 오르간
제대
홀
스텐레스 스틸 난간설치
PIT
고 해 소
루가실

횡 단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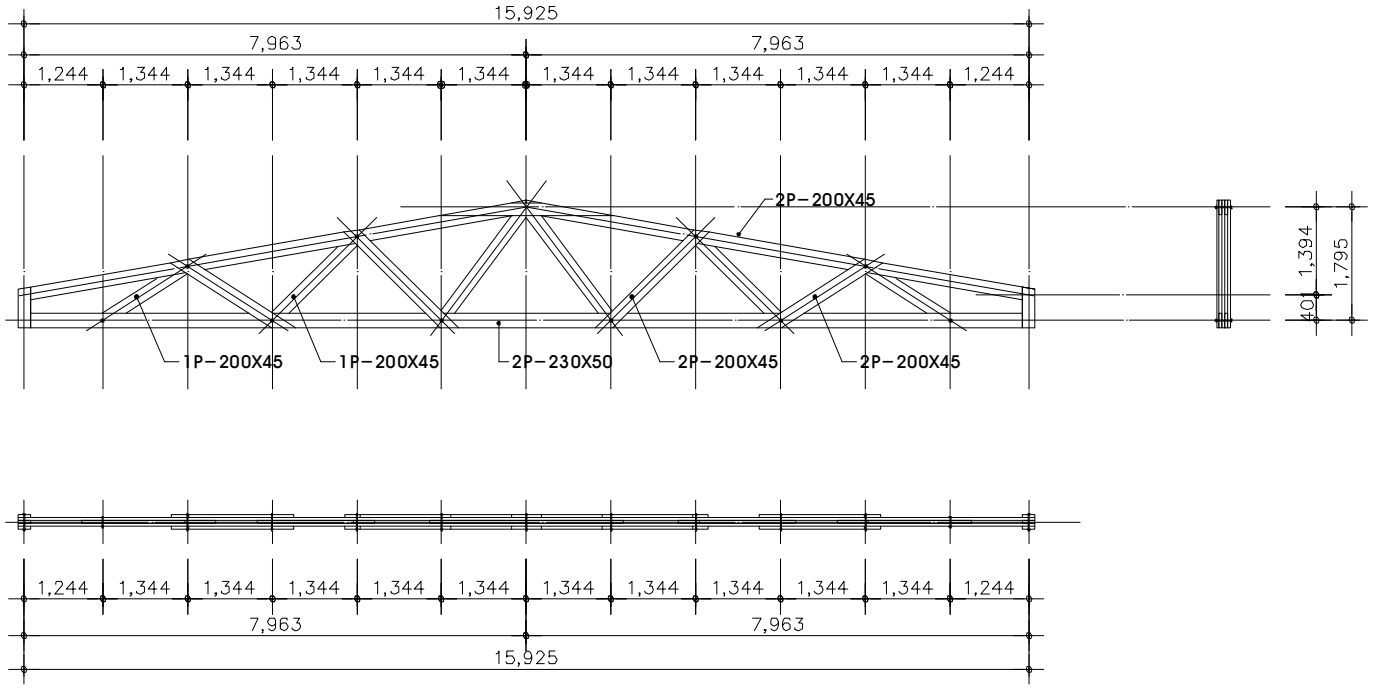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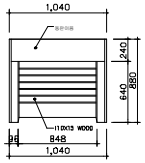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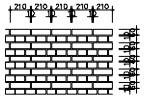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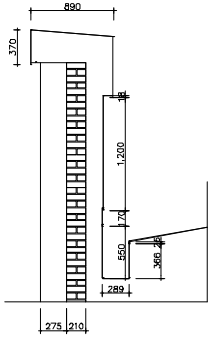
Y4
Y3
Y2
Y1
16,500
5,500
5,500
5,500
3,600
ROOF층
종탑층
지붕층
지상 2층
지상 1층
21,600
5,900
3,300
5,200
3,300
3,900
T1.2 종탑감퍼물기
3
A - 조
적벽돌 치장방기
적벽돌 치장방기
CONC위 수성페인트 마감
스텐레스 스텔난간 설치
몰탈위 수성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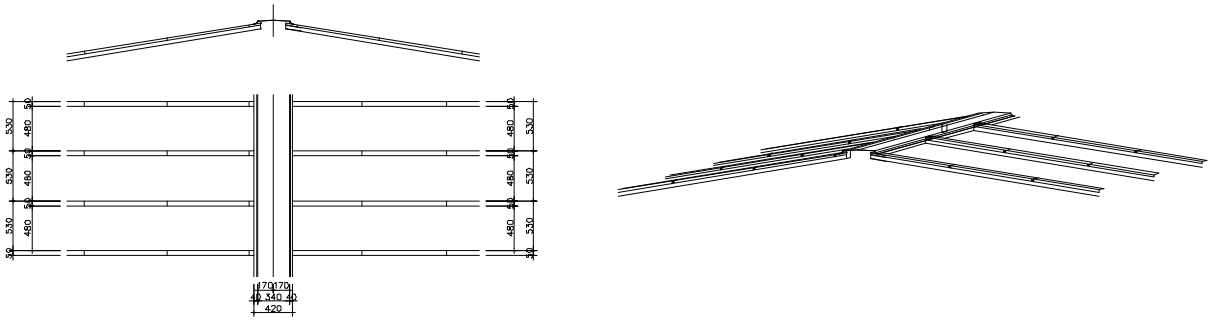
전면돌 패턴도


Y1
Y2
Y3
Y4
630
16,500
580
5,500
5,500
5,500
2,700
2,800
1,100
3,300
1,100
2,700
2,800
17,710
930
1,120
1,145
450
1,145
1,130
1,520
1,430
1,430
1,520
1,140
1,125
450
1,125
1,140
910
450620450
450620450
60
5,460
600
나는길이요진리요 생명이로라···
요 한 복 음 14 장 6 절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말은
변치 아니하리라
루가복음 21장 33절

트러스 실측도


15,925
7,963
7,963
1,244
1,344
1,344
1,344
1,344
1,344
1,344
1,344
1,344
1,344
1,344
1,244
2P-200X45
1P-200X45
1P-200X45
2P-230X50
2P-200X45
2P-200X45
401
1,394
1,795
1,244
1,344
1,344
1,344
1,344
1,344
1,344
1,344
1,344
1,344
1,344
1,244
7,963
7,963
15,925

형 태		형 태		형 태					
									
위 치	1 지붕층	위 치	2 지하층 정면	위 치	3 지붕층	위 치	5 지상2층		
명 칭	DA 환풍구 창 상세도	명 칭	DA 중탑부위 치장벽돌 상세도	명 칭	DA 지붕층 배수구 단면 상세도	명 칭	DA 돌덩 상세도		



위 치	4 지붕층
명 칭	DA 지붕층 동판이음 상세도

각부상세도

서울 혜화동 성당
기록화 조사보고서

2007년 12월 21일 인쇄
2007년 12월 26일 발행

발 행 처 : 문화재청

조사편찬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편 집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사연구실
제 작 : 대원(02-895-3080)

비매품 한정판